다르마 칼리지 우수 에세이 선집

『동국에서 시작한 나의 삶, 나의 글』 제10집을 펴내며

동국대학교 | 다르마칼리지

CONTENTS

최우수상 … 01

학업기초글쓰기

노란 봉투법 개정 방향의 고찰
윤영헌 정선경 권미정 길도현

우수상

· 자기표현글쓰기 … 13
나의 주파수 강신범

· 학업기초글쓰기 … 18
배송 속도 경쟁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환경 악화의 원인과 개선 방안 가을햇살처럼 김부겸 백지연 진진화

· 실용글쓰기 … 30
셔틀버스의 모든 것, 동국패스에서 확인해봐!
: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 기획
백충환 이가연 위세훈 김민희 장여원

· 지혜와자비 명작세미나 … 41
욕망으로 만들어진 사회, 내달리는 청년들 김지원
: 슈마허의 불교경제학을 중심으로

· 문화와예술 명작세미나 … 49
우리나라 현실 속 <괴물>과 의미 박성은

·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 55
쌀, 배추 가격 폭락과 폭등으로 보는 농산물 시장 국가 개입의 필요성 박상준
:「화식열전」에 나타난 사마천의 경제관을 중심으로

· 경제와사회 명작세미나 … 62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 경제 진해주
: 미국 금리 변동을 중심으로

· 자연과기술 명작세미나 … 69
개발적 복원과 재야생화(rewilding) 남도원

장려상

· 자기표현글쓰기 … 77
지루해, 정말 송현준

· 학업기초글쓰기 … 82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국어과 메이커교육 수업 개발 오동규

· 실용글쓰기 … 93
세미나 수업의 비타민, "글쓰기"
: 동국대학교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글쓰기 이수제도 개선 방안
김민지, 박진혁, 임동준, 장윤지

· 지혜와자비 명작세미나 … 108
행동이 만들어 내는 가치 온다빈
:『붓다 브레인』에서 나타난 결과로서의 자아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 문화와예술 명작세미나 … 114
김수영의 양립세계와 연결 매개체 분석 신한울
: 영화 <인셉션> 속 '토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 131
자연적 소질의 계발 재검토 엄수빈
: 외적 동기화의 학습을 중심으로

· 경제와사회 명작세미나 … 138
소비와 규율의 역학관계 이예린
: '감시와 처벌'을 통해 살펴본 프로야구단의 팬덤과 스포츠 마케팅

· 자연과기술 명작세미나 … 145
기후변화의 진실 혹은 거짓 정지영

DHARMA COLLEGE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최우수상

학업기초글쓰기

노랑 봉투법 개정 방향의 고찰

경영대학 경영학과 윤영헌
경영대학 회계학과 정선경
법과대학 법학과 권미정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길도현

Ⅰ. 머리말
Ⅱ. 노란 봉투법 제정 배경
1 노동자에게 파업 손실의 책임을 묻는 실태
1)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2)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2. 현 노조법의 문제점
1) 고전적인 1:1 노사관계 상정 문제
2) 노동쟁의의 대상 한정 문제
3)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민사면책 인정 범위 한정 문제
4)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및 액수 한정 문제
Ⅲ. 노란 봉투법 제정의 필요성
1. 노동자 범위의 확대 측면에서
2. 사용자 범위의 확대 측면에서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측면에서
1)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기본 조항 변화
2)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Ⅳ. 노란 봉투법의 문제점 및 개정의 방향성
1. 노동쟁의의 측면에서
2. 손해배상액 청구의 측면에서
1) 노조의 위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2) 손해배상청구액 감면 청구 조항 신설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의 손해배상을 철회하라”[1] 지난 2012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칭한다.)의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에 남긴 말은 노동자에게 청구되는 고액의 손해배상이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으로 작용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올해 6월,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실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노란 봉투법’이 등장했다. 노란 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한다.)의 개정 내용을 담은 노란 봉투법을 두고 여당과 야당, 노동계와 기업계는 격렬한 의견 대립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를 고려하여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 이러한 노조법 개정 내용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불법 파업까지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비좁았기 때문에 이러한 합법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이 조합원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며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노란 봉투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3]

기업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이 오래 계속된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만,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용자와 비교하면 상대적 약자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조법을 개정하는 이점을 비롯하여 복잡한 산업 구조와 노사관계, 기업의 재산권과 노동자의 기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기업 측과 노동계가 노란 봉투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견 대립을 완화할 노란 봉투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노란 봉투법의 제정 배경을 서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 노조법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노란 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란 봉투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분석해 적절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노란 봉투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노조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란 봉투법”이 등장했다. 여기서는 노란 봉투법 제정의 주된 배경이 됐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자에게 파업 손실의 책임을 묻는 실태

1) 최강서, 유서, 2012.12.20.
2) 송찬욱,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검토」, 『채널 A』, 2022.09.17.
3) 강청완, 「범야권 ’노란봉투법’ 발의…여당 “황건적 보호법“」, 『SBS 뉴스』, 2022. 9. 15.

1)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밝혔다. 이러한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노조가 반발하며 2009년 5월 22일부터 7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손실과 입력 투입으로 피해를 본 쌍용자동차와 경찰 측은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의 조합원에게 총 20억 5,444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3년, 1심에서는 조합원에게 13억 7,67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판결에 항소했으나, 결국 법원은 11억 3,072만 원을 청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업계 임금은 완전히 동결되었고, 상당수의 해당 노조는 해체되는 절차를 밟았다. 또한, 파업 당사자인 쌍용자동차 노조 역시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되었다.

2)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2022년 6월 2일 노조는 지난 5년간 조선업의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파업을 시작했다. 7월 22일 22개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과 합의하여 파업과 점거농성은 해체되었다.[4)5)] 이후 대우조선 측은 51일간 지속된 파업으로 8천억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약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노동자 개개인은 극심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렸다.

2. 현 노조법의 문제점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리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같은 법적 자유를 가지며, 자유의사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의 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업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복지와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의 자유는 노동자를 실업과 빈곤으로 내몬다.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가 해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들이 가진 권한 자체가 노동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처럼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한 시민법과 수직 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법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바람직한 노조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1) 고전적인 1:1 노사관계 상정 문제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생활양식, 가치 등이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했다. 화물노동자가 그 예시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15일간 파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화물노동자에게 이 제도는 최저임금인 셈이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니, 과적, 과속 운행 또한 줄어들었다. 그러나 화주는 물류비용의 증가로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

4) 김상철, 「단체행동권 행사요건의 흠결과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06. 15

5) 이유섭,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해배상 청구 방침」, 『매일경제』, 2022. 08. 23

연장과 적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는 간접고용노동자로 현행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쟁의행위는 불법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쟁의행위로 남는 것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뿐이다. 즉, 현행법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의 대상 한정 문제

현행법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이다. 실제 '정리해고나 부서,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를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다.[6] 구조조정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 범위가 좁게 한정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3)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민사면책 인정 범위 한정 문제

현 노조법은 사용자가 법률을 통해 인정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7] 즉, 여기서 손해배상의 면책사유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노조법에서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가 합법적 파업의 요건이자 범위임을 판례를 통해 드러냈다.[8] 위와 같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노조 행위를 저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파업행위를 불법 파업이라 본다. 이에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를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한다. 모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목적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법률 아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해왔고, 이는 결국 노조의 행위를 저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4)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및 액수 한정 문제

현행법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액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기업은 제한 없이 고액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6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15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운임의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조 행위에 참여한 132명의 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25명에게는 손해배상으로 55억 원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사태를 "악랄한 노조파괴의 행위"라고 표현했다.[9] 사용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노조파괴 행

---

6)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2도3450

7) 이은주 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2022.09.14.

8) 대법원, 2011.03.17. 선고, 2007도482

9) 유하라, 「고공농성 화물노동자 상대로 하이트진로, 25명에 55억원 손배 청구」, 『레디안』, 2022.08.25.

위"라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25명에게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가 행한 파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즉, 객관적 기준이나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쉽게 자의적 판단으로 개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수십억 원은 이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노조와 노동자 개인이 수용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손해배상을 통해 노동자의 두려움을 촉발함으로써 노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Ⅲ. 노란 봉투법 제정의 필요성

노란 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관련 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손해배상 관련 조항 외에도 노동자의 범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보장한다.

1. 노동자 범위의 확대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의 첫 번째 개정 내용은 '노동자 범위의 확대'이다. 현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한다.[10]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노동고용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한정하고 있기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비임금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11]

두 번째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없다면 사용자는 교섭의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노동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본다.
>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 나.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2]

IMF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과 경제적인 변화, 기업 구조의 다원화로, 다양한 형태의 노사 관계

10)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11) 반기웅, 「노동법 밖 노동 '비임금 노동자' 700만명...코로나19, 노동지형 바꿨다」, 『경향신문』, 2022.02.07
12) 이은주 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14.

가 발생했다. 그렇기에 단순히 단체교섭의 권리를 직접적인 계약 체결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망에 넣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 봉투법 조항은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2. 사용자 범위의 확대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의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이다. 현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13]라고 정의했다. 현 노조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그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14]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교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원청과의 대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원청이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은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구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며 이전까지와는 다른 해석을 보여줬다.[16] 즉,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복지, 임금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해당 조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 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 나.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17]

이처럼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포괄적,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의 세 번째 개정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다룬 조항의 개정과 신설이다.

---

13)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
14) 박지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쪽
15) 신다은, 「하청노동자는 원청과 대화할 수 없는 '법'…대우조선 사태 꼬았다」, 『한겨레』, 2022.08.02
1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17) 이은주 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14.

1)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기본 조항 변화

현 노조법 제3조와 노란 봉투법에서 제시하는 제3조의 첫 조항은 손해배상 면책의 기본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과 노란 봉투법의 차이는 쟁의행위 등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에서 발생한다. 노란 봉투법의 제3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 “제1조의 목적 달성 여부의 고려”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현 노조법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만을 면책의 대상으로 인정한다.[18] 즉, 이는 노조의 파업이 여러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란 봉투법은 노조의 행위가 제1조[19]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별다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단체교섭, 파업과 단체교섭 등의 주된 동기와 행위가 헌법 제33조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지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동쟁의의 합법 기준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는 것 보다,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정당성을 판단하여 손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질 때, 폭력과 파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무분별한 폭력과 파괴 행위를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2)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노란 봉투법은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목적 적합한 쟁의행위라면 노조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 시민 단체인 ‘손잡고’의 송영섭 변호사는 “쟁의행위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집단의 행동이므로 노동자 개인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제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20] 즉,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교섭과 쟁의행위는 1인 시위 같은 것이 아니라 노조의 단체 행위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조합원 개인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집단에 속한 상태로 행동할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행동의 비중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참여의 빈도는 어떠한지, 적극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기업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을 통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실제 쌍용 자동차 사례에서 봤듯이, 현 노조법으로 노동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21] 이에 사측은 선진국의 법을 근거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안’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또한, 독일은 높은 손해배상액 책정을 제한한다. 실제로 독일 기업 루프트한자는 파업으로 900만 유로의 손해를 봤지만, 3만 2천 유로를 요구했다. 이에 독일 법원은 이마저도 노동자에게 부담이라고 생각해 기각했다.[22] 따라서 사측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현 노조법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파업 노동자를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

18) 노동조합법 제3조

19) 노동조합법 제1조: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오연서, 「‘노조 파괴’ 손배·가압류…노조원 개인 책임부터 제한해야」, 『한겨레』, 2019.01.24.

21) 박민식, 「파업 후 손해배상 소송 '골치', 13년 지난 쌍용차는 아직 진행형」, 『한국일보』 2022.07.20

22) 이경원,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 … 해외 사례는 어떨까?」, 『SBS 뉴스』, 2022.09.29.

노동자가 포기하게 한다. 따라서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란 봉투법의 조항은 타당하다.

Ⅳ. 노란 봉투법의 문제점 및 개정의 방향성

1. 노동쟁의의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에서 제시하는 노동쟁의의 정의와 현 노조법의 차이는 '주장의 불일치'를 해석하는 것에서 나온다. 현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정의한다.[23] 여기서 말하는 주장의 불일치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 즉, 근로자는 다양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합의 시작의 주체는 노조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 노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화와 합의 요청의 횟수를 노조 측에서 측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따로 입증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들의 쟁의행위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노란 봉투법은 해당 조항에 위와 같은 추가적 서술을 삭제하여 제시한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때, 사용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요건을 아예 삭제한다면, 노조 측에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즉,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둔 것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이 클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실이 단순히 해당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는 해당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무분별한 노동쟁의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극대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노조 측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등이 기록된 근무 기록일지를 통해 노동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청구의 측면에서

1) 노조의 위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노란 봉투법에는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고

23)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찰할 때, 쟁의행위가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맞선다. 쟁의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쟁의행위의 선택은 노동자가 노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쟁의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노조법에서 쟁의행위의 간접적 결과의 책임을 노조에 되묻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하게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만일 위와 같은 조항을 노조법으로 신설할 것이라면, 예외의 경우를 후술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프랑스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귀책사유를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24]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간접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되, 사용자가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둬야 한다. 기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기업의 영업손실 발생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 기업이 해당 영업손실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실, 해당 채무불이행이 기업의 존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액 감면 청구 조항 신설

노란 봉투법은 손해배상액에 제한을 둘 것을 명시했다. 이에 입법으로 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관행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기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25] 우리는 손해배상 상한액과 관련된 쟁점에서는 후자 쪽 견해를 따른다.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관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액을 두는 것보다는, 노란 봉투법에서 배상액 감면의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원이 개인의 행위와 파업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노란 봉투법에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감면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USR, 즉,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강조되는 개념이다.[26]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때,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USR은 노동자 개인은 약자라고 보지만, 노조는 사용자와 거의 대등한 권력을 가진 단체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노동자 개인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노조의 노동쟁의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닛산 자동차의 사례가 있다. 닛산 자동차의 경영진이 원가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등의 경영전략을 내세우자 노동조합은 이에 극렬히 투쟁했다. 경영진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진행했고, 이는 다시 노조의 정치 파업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 정리해고, 파업의 반복으로 결국 1999년, 닛산 자동차는 경영난을 맞아 르노에게 인수되었다. 이렇듯 노조의 쟁의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결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노조는 기업과 거의 대등한 권력을 가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란 봉투

24) 이경원,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 … 해외 사례는 어떨까?」, 『SBS 뉴스』, 2022.09.29
25) 신다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뜯어보니…파업 면책 범위 확대가 뼈대」, 『한겨레』, 2022.09.20
26) 정경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2013, 465쪽-287쪽

법에 조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손해배상액의 감면 조항만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Ⅴ. 맺음말

우리는 ‘노동자, 노동조합에 파업 손실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현 노조법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 노조법의 개정안인 ‘노란 봉투법’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를 살펴본 후, 노란 봉투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했다. 사회의 다원화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등장하고 있기에, 노조법 또한 그에 발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란 봉투법을 통해 노조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쟁의 적법기준의 완화와 교섭권 강화, 손해배상 청구액의 감면을 제시하여 기존의 노란 봉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노동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노조 측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오랜 기간 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의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노란 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더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과 기업의 경영 논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여 기업계의 견해를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은 이 글의 한계이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겪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 환경과 구조 역시 급변하고 있다. 그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묶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노란 봉투법 제정 이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법 지식과 기업의 경영 논리를 반영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김상철,「단체행동권 행사요건의 흠결과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박래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동3권을 되찾아야 한다." 『월간 한국노총』: Vol.584 No.-[20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2.

박지순,「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정경호,「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경영교육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조임영,「프랑스에서의 파업권의 보장과 그 한계」,『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4.

기사

강예슬,「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정말 '불법'일까?」,『매일노동뉴스』, 2022.07.2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42

강청완,「범야권 '노란봉투법' 발의…여당 "황건적 보호법"」,『SBS 뉴스』, 2022. 9. 15. https://www.youtube.com/watch?v=nT6juJuctQw

민병오,「노사문화 확 바꾸자]잊었나? "닛산 추락"의 교훈」,『세계일보』, 2007. 02. 01. https://www.segye.com/newsView/20070124000457

박민식,「파업 후 손해배상 소송 '골치', 13년 지난 쌍용차는 아직 진행형」,『한국일보』, 2022.07.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115090003591

박태우 외,「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들에 470억 손해배상 소송」,『한겨레』,2022. 8.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5863.html

반기웅,「노동법 밖 노동 '비임금 노동자' 700만명…코로나19, 노동지형 바꿨다」,『경향신문』,2022.02.07.,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071739001

송찬욱,「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검토」,『채널 A』, 2022.09.17.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34192?type=editn&cds=news_edit

신다은,「국회가 7년 묵힌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넓혀 새로 발의한다」,『한겨레』, 2022.09.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5256.html

신다은,「노란봉투법 개정안 뜯어보니…파업 면책 범위 확대가 뼈대」,『한겨레』, 2022.09.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9222.html

신다은,「하청노동자는 원청과 대화할 수 없는 '법'…대우조선 사태 꼬았다」,『한겨레』, 2022.08.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088.html

오연서,「'노조 파괴' 손배·가압류…노조원 개인 책임부터 제한해야」,『한겨레』, 2019.01.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79733.html

유하라,「고공농성 화물노동자 상대로 하이트진로, 25명에 55억원 손배 청구」,『레디안』, 2022.08.25. http://www.redian.org/archive/164502

이경원,「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 … 해외 사례는 어떨까?」,『SBS 뉴스』, 2022. 09. 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5424

이유섭,「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해배상 청구 방침」,『매일경제』, 2022. 08. 23. https://www.mk.co.kr/news/business/10432417

최태범,「현대차 노조, '라이벌' 일본 도요타 노조와 어떻게 다른가」,『아시아 투데이』, 2014. 02.

17.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217010001916

기타
-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노동조합법 제1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항
노동조합법 제3조
이은주 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14.

-판례
대법원, 2006.05.12. 2002도345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대법원, 2011.03.17. 선고, 2007도482

최강서, 유서, 2012.12.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060741

우수상

자기표현글쓰기

나의 주파수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강신범

자대를 배치 받은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전날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복장을 채비 중이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연락처에 없는 번호로 오는 전화. “신범이니?”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작은 아빤데 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작은 아빠도, 돌아가셨다는 할아버지도, 내 기억 속에선 사라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부대에 물어보고 오늘 중으로 휴가 나가게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작은 아빠는 알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주말이었지만 부대에 문의하여 급하게 청원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병사들은 눈을 치우지 않고 나가는 나를 보며 부러워했다.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았다. 요양원에 들어간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고 그 기간은 무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치매 외엔 다른 잔병치레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심했던 2021년, 할아버지가 계셨던 요양원에선 코로나 연쇄 감염이 발생했고 할아버지 또한 코로나 감염에 의해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없었던 나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슬프지는 않았다. 그저 눈이 내린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입대하기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것 같은 세상을 구경할 뿐이었다. 지하철을 타기 전 작은 아빠에게 문자가 왔다. 일산병원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말이었다. 부대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아직 조문객이 올 시간이 아니었고 날이 추워 사람들이 바깥에 잘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이상했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큰 LED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했다. 상주들 이름에는 내 이름을 포함, 작은아빠와 고모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찾을 순 없었다.

아버지는 말기 암 투병을 2년째 하고 있었다. 물론 투병하지 않았어도 오지 않았을 걸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자신이 전부 물려준 재산을 장남인 아버지가 갖고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때렸다며 싫어했다.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이는 갈라지는 물줄기처럼 어긋나버렸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내가 어머니 쪽으로 가게 되면서 다신 친가 쪽 친척들과는 만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널 보러 라도 내가 갔어야 했는데…”, 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을 자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날 보러 라도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빈소에 홀로 도착하였다. “왔어? 오랜만이다”와 같은 안부를 묻는 말들이 들려왔다. 한 번에 여러 명이 몰려와 비슷한 말을 해서 귀가 먹먹해졌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라도 왔네. 그 집에선” 분명히 작은 아빠의 목소리였다. 고모들은 작은 아빠에게 눈치를 줬고 그 소리는 일종의 비아냥 같은 거여서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52헤르츠 고래처럼 홀로 다른 주파수를 뿜어내며 속으로만 소리를 내고 있었다.

빈소 안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방문을 걸어 잠군 채 귀를 대고 있으니 온 친척들이 분주하게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난 옷을 다 갈아입어도 밖으로 나가기 망설였다. 검은 줄이 새겨진 완장을 차고 빈소 옆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검은 두 줄의 완장을 차고 있는 작은 아빠에게 인사를 했고 그 중 몇 명은 나를 한 번 쳐다보고 나서 아버지를 찾는 듯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작은 아빠는 그럴 때마다 “형이 사정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아빠는 사정이 있어서 오지 않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작은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계속 소리를 냈다. 언제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일반 고래들과는 다른 주파수로 특이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52헤르츠 고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도 어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빠지는 빈소에는 나

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 때마침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많이 힘들지?" 어머니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곧 100일 휴가 나가게 되니까 그때 보게요." 대답하지 않고 말을 돌려 나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조만간 보자." 짧은 통화를 끝내고 다시 식장으로 돌아갔다. 내가 없는 사이에 저 빈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 내가 장손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아진 틈을 타 하늘에는 눈이 내렸다. 바닥으로 떨어진 눈송이는 녹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물이 됐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들이 밟고 간 웅덩이에 물이 튀면서 바지 끝이 젖어 버렸다.

늦은 밤이 되어서도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고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저렸다. 다들 나의 저녁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 밥 좀 먹고 와도 될까요?" 오늘 내가 처음 사람에게 속에 있는 문장을 꺼낸 소리였다. 작은 아빠는 당황했다는 듯이 왜 아까 밥 먹을 때 안 먹었냐며 물었고 가서 먹고 오라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곧 12시니까 자도 된다고도 말했다. 저녁은 식은 육개장에 말라 비튼 편육 몇 점이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앉아 있기보단 종이컵에 물을 떠주는 고모가 있었다. 내가 밥을 먹자 술을 마시던 조문객들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었고 내 얼굴은 술에 취한 것처럼 붉어졌다. "쟤가 학희 아들이야?" 같이 술을 마시던 또 다른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하라며 친척들에게 눈치를 줬다. 귀가 아픈 만큼 나의 주파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졌다. 차라리 화장실 벽면에 붙어 있던 좋은 글귀를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어 다 먹지도 못한 밥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왜 오지 않은 건지 자초지종을 따져야 하는 걸까. 사실 부모님은 잘못이 없는 게 나에게 장례식에 가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난 작은 아빠의 연락을 받고 간 것이었고 할아버지의 장례식보단 바깥을 구경하고 싶단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지긋이 바라봤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띤 얼굴은 아니었다. 죽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아프시기 전 집에서 술을 마실 때면 항상 할아버지 얘기를 했다. 동네 친구들이 할아버지만 보면 '너희 아빠 온다'며 도망을 갔고 형제자매들 모두 한 번씩 반항심에 가출했을 때에도 자신만 집에 남아 누나와 동생의 몫까지 맞았다고 했다. 그때 그 소음이 너무 싫었다고 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는 발자국 소리, 형제자매들이 두려움에 떠는 소리,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앉은 할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기억은 구체적이었고 난 그런 기억을 거의 매일 같이 듣고 살았다. 아버지의 삶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이해할 순 없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할아버지를 싫어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우두커니 앉아 할아버지를 원망 중이었다. 왜 날 이곳에 부르게 했는지,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꺼지지 않는 향불은 지독하게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양은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의 모양을 닮았다. 연기가 흘러가는 곳은 빈소 안의 작은 방. 방문을 열고 시들어버린 국화처럼 누워 소리를 냈다. '악', '악', '악' 전부 속에서 뱉어지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부터 친척들은 할아버지의 장례에 관한 의논을 상조회사 직원들과 분주하게 있었다. 나는 그저 어른들의 말을 따라 행동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뒤론 정말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다. 첫날보단 더 자연스럽게 조문객을 맞이했다. 할아버지의 시신을 염습하는 과정에서 작은 아빠는 할아버지가 입은 수의에 5만 원을 넣어드렸다. 할아버지가 가는 길에 노잣돈이 필요할 거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장손이었던 나는 염습을 할 때 작은 아빠의 옆에 있었고 할아버지의 굳은 몸을 오롯이 지켜보았다. 마치 눈을 뜨고 할아버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몸에선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고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던 고모들과 사촌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감정을 쥐어짜며 함께 울고 싶었지만 정말 흐르지 않았다. 사실 왜 사촌들이 우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기 전에도 워낙 말이 없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절 때 아빠가 오지 않은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내려와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손자, 손녀들에게 또한 큰 관심이 없었고 그저 나에겐 장손이란 이유로 다른 사촌들에 비해 용돈을 더 챙겨줬었다. 어릴 땐 왜 나만 돈을 더 받는 건지 이유를 알 순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자니 내가 장례식장에 와주길 바랐을 것 같단 마음이 들어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가슴팍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났다. 구겨진 지폐가 몸을 일으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작은 아빠는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줄 노잣돈을 수의에 넣어드리고 상조회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할아버지에게 수의를 입혀드렸다. 다리를 들고 팔을 들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시체에 수의가 걸쳐지면서 나는 특이한 소리가 귀에 맺혔다. 입기 싫은 옷을 억지로 입으면서 퍼지는 기묘한 소리였다. 죽은 사람의 몸이 이렇게까지 가벼운가. 울음소리를 내지 못한 나는 역시나 사람들과 다른 주파수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첫째 날보단 능숙하게 흘러가고 이제 식장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할아버지의 시신이 담긴 리무진을 뒤따라 장지까지 이동했다. 둘째 날에 늦게까지 조문을 오는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잠을 자지 못해서 많이 피곤했다. 화장시실에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모두 슬픔에 잠긴 눈동자를 하고 말이다. 할아버지를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저 다른 망자들보다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대기시간이 길었던 것이었다. 길어지는 시간만큼 내 휴가 복귀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모두 할아버지의 시신이 태워질 때 눈물바다가 되었다. 둘째 고모는 화장시설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했고 살아계실 때는 일절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던 다른 사촌들도 울음으로 목이 쉴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난 그 사이에서도 도저히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이런 슬픔을 같이 공유할 아버지도, 내 처지를 오롯이 이해해줄 어머니도 없는 내 상황이 더 슬펐다. 재가 된 할아버지의 몸이 하얀 상자 안에 고요히 담겼다. 난 그걸 들고 맨 앞에 서서 승화원을 한 바퀴 돌았다. 마침 승화원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눈이 온단 예보를 보고 잤었는데, 이 시각에 내리는 눈은 할아버지의 뼛가루처럼 소복하게 쌓여갔다. 자신을 녹아서 사라질 눈처럼 잊어달라는 할아버지의 신호 같은 거였을까. 정수리에 떨어진 눈은 차분하게 물이 되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작은 아빠와 고모들은 매장할 땅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난 부대로 복귀시간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매장할 땅에서 부대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쳤고 버스를 타기 전 담배를 피우는 작은 아빠에게 웃으면서 다가갔다.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대 들어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작은 아빠는 그러라고 하며 용돈을 챙겨주었다. “다음에 또 보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웃는 가면을 쓰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난 택시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곁에 남아 있지 못했다는 조금의 죄책감 같은 것이 마음속에 생겼지만, 부대에 다시 이야기하여 복귀시간을 늦추기에는 나는 아직 입대를 한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었다. 택시가 금세 잡혔고,

승화원에서 부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창문을 내리자 눈발이 택시 안으로 전부 들어왔다. 나는 손을 모아 눈을 담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뒷자리가 다 젖는다며 문을 닫으려고 했다. 손바닥에 모인 눈은 할아버지의 유골함보다 가벼웠다. 때마침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다. “장례는 다 끝났니?, 아빠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많이 미안하다. 군 생활은 할 만하지?, 울음

이 무엇을 해결해주진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땐 울어도 된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아빠는 건강하게 잘 있단다.” 아버지의 말처럼 울음이 무언가를 해결해줄 순 없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크게 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때가 있다. 나는 이제 나의 주파수를 낼 것이다. 남들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주파수를 모두가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내다보면 언젠가는 내 옆에 나의 주파수를 맞춰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랑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꾹꾹 참아왔던 말들을 이제는 소리 내면서 살아가야겠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하늘에는 고래 모양을 하고 있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DHARMA COLLEGE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학업기초글쓰기

배송 속도 경쟁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환경 악화의 원인과 개선 방안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가을햇살처럼
이과대학 통계학과 김부겸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백지연
경영대학 경영학과 진진화

I. 서론

II. 본론

1.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
1) 과로의 측면
2) 고용 불안의 측면

2. 물류센터 노동환경 악화의 원인
1) 과로에 대한 규제책 미비
2)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

3.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1) 규제 개선 방안
2)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III. 결론

I. 서론

오늘날 택배와 배달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며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에 더해 다양한 기업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고, 배달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배달 경쟁의 핵심은 속도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B마트'와 '요마트'를 시작으로, GS리테일의 '우리 동네 GS'와 '우딜 주문하기', 올리브영의 '빠른배송'과 '오늘드림', KT의 '1분 주문 & 1시간 배송' 등 많은 기업이 '퀵커머스' 서비스[27]를 도입하며 속도 경쟁에 나섰다.[28] 쿠팡 또한 퀵커머스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퀵커머스 서비스, 그리고 풀필먼트 서비스[29]를 비롯한 혁신을 통해 배달 시장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와이즈앱의 추정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2022년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결제한 이커머스 서비스[30]는 쿠팡과 쿠팡이츠였다. 쿠팡의 올해 1분기 결제추정금은 지난해에 비해 28% 늘었다.[31] 이처럼 쿠팡은 소비자의 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인다.

사진: 와이즈앱의 이커머스 결제추정금 보고서.

그러나 쿠팡의 성공 이면에는 저임금과 과로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빠른 배송과 온라인 시장은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칭찬받았지만, 이게 오히려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쥐어짜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팽창하는 신산업의 특성상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졌지만,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쪽의 투자는 부족했다."라고 말했다.[32]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산재 및 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로켓배송'의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뒤의 노동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고 장덕준 씨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고강도의 심야 노동을 지속하다가 사망하였다. 그의 어머니

27) 온라인 주문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분 단위 배송 서비스.
28) 이재영, 「더 빨라지는 배달 속도…유통업계 속도경쟁 가속화」, 『빅터뉴스』, 2021.07.08.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4. (2022.11.07.)
29) 배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상품 확인, 포장, 배송, 환불, 교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 자동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0) 전자상거래 서비스.
31) 백봉삼, 「쿠팡, 1분기 국내 이커머스 결제추정금 네이버 제치고 1위」, 『ZDNET Korea』, 2022.04.12. https://zdnet.co.kr/view/?no=20220412082324. (2022.11.07.)
32) 조해람, 「코로나 이후 업무 늘며 산재도 급증…노동자 "배달 폭증, 추석이 두렵다"」, 『경향신문』, 2022.08.1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52056005. (2022.11.07.)

박미숙 씨가 저자로 참여한『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33]을 보면, 박미숙 씨와 남편 장광 씨는 아들 또래의 쿠팡 노동자들을 위해 과로사 재발 방지책 마련을 쿠팡에 요구하고 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 쿠팡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 장덕준 씨 사건 이후로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쿠팡 목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박현경 씨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는 쿠팡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 1월 동탄 물류센터에서 야근 후 사망한 최경애 씨 사건을 보도한 일요신문 기자 또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의 저자들은 "쿠팡은 기자들 사이에서 집요하기로 유명하다.", "쿠팡은 비판 기사를 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걸어 '재갈 물리기'를 시도했다."라고 적고 있다.[34] 이처럼 쿠팡은 기자들을 압박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유가족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산재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라기보단 입막음의 성격이 강했다. 취재 중 만난 한 유족은 '합의는 봤지만, 쿠팡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35]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쿠팡은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덮기 위해서 유가족과의 합의에 임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으로 포장한 쿠팡의 '성공'은 노동자의 과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택배 및 배달업계 노동환경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달 전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근무량으로 인해 한동안 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쿠팡 외 다른 기업의 물류센터에서도 노동법 미준수 사례 및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36] 택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노동조건은 그에 따라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의 책임을 회피한다.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물류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생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물류센터 노동은 물류 산업의 중심이 기존의 B2B 단계[37]에서 X2C 단계[38]로 이동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다.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작업량을 비롯해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하였는데, 이를 과로의 측면과 고용 불안의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과로의 측면에서는 장시간 노동, 연속적 야간 노동, 높은 작업 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측면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동환경 실태를 살핀 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는 크게 과로에 대한 규제책 미비와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물류센터 업종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들의 과로가 용인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부족하다. 한편,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의 고용으로 인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과로에 시달린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하청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물류센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노동환경 악화의 원인에서 밝힌 규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33) 박미숙 외 6명,『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민중의 소리, 2022.
34) 박미숙 외, 위의 책, 79쪽~80쪽.
35) 박미숙 외, 위의 책, 같은 쪽.
36) 동효정,「고속성장 마켓컬리, 노동법 위반 '블랙리스트' 의혹」,『스포츠서울』, 2022.1.19. https://n.news.naver.com/article/468/0000821852?sid=101. (2022.12.15.)
37)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간의 물류 단계. 주로 대량의 물류가 이동한다.
38) X(기업, 소비자, etc.) to Consumer,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단계.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으로 소량의 물류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방안을 제시하고,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파견법 폐지 등의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II. 본론

1.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

물류업의 중심이 X2C 단계의 생활물류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물류센터 노동의 형태 또한 변화하였으나, 늘어난 비중에 비해 생활물류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물류센터 산업이 다른 산업과 함께 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통계 또한 찾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기사와 단행본을 통해 현재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증언을 볼 수 있고,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김철식 외의 조사와 장소영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철식 외는 1990년대 이후 '라스트 마일' 단계[39]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하며,[40] 장소영은 물류업(B2B)과 택배업(X2C)의 노동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41] 장소영의 연구는 물류업 종사자를 업태별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택배업 시설 근로자가 김철식 외의 연구에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철식 외의 조사는 생활물류센터의 종류를 단일품목회사, 택배사 터미널, 종합판매사가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노동환경의 차이를 언급한다.[42]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물류센터 노동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높은 작업 강도에 있다.[43] 장소영에 따르면 택배업 노동은 기존 물류업에 비해 노동의 내용이 늘어나고 복잡해졌고,[44] 택배업 종사자는 물류업 종사자보다 고용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45] 이 글에서는 직접 물류센터 노동환경을 조사할 수 없어 위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며 몇몇 노동자의 증언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생활물류센터 노동환경의 실태를 과로의 측면에서 살핀 뒤 고용 불안의 문제점을 살피겠다.

1) 과로의 측면

(1) 장시간 노동

김철식 외의 조사에서 생활물류센터 노동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9.66시간(식사 시간 제외 8.66시간)으로 일반적 기준인 8시간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택배사 노동자로 한정하면 평균 10.6시간이며, 그중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은 평균 11.6시간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주 3~4일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이러한 연장근무는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46] 한 노동자의 응답에 따르면 기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필요에 따라 연장근

39) X2C 단계와 마찬가지로 물품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단계를 이른다.
40) 김철식 외,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1, 10쪽.
41) 장소영, 「국내 물류산업의 업태별 근로여건과 고령화 영향분석」,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8쪽.
42) 김철식 외, 앞의 책, 89~90쪽.
43) 김철식 외, 앞의 책, 154쪽.
44) 장소영, 앞의 글, 2쪽.
45) 장소영, 앞의 글, 20쪽.
46) 김철식 외, 앞의 책, 60~61쪽.

무를 하는 물류센터도 있다.[47]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서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3사에서 노동 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포함한 196건의 위법이 적발되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48]

(2) 야간 노동

물류센터 노동자는 잦은 야간 노동에 노출된다. 단일품목 회사의 경우는 주간노동이 중심이나 택배사와 종합판매사의 경우는 오후-저녁 시간대에 출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다. 택배사의 경우 간선 터미널의 업무가 다른 물류센터의 업무가 끝난 후, 혹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종합판매사의 경우는 새벽 배송으로 인한 야간 노동이 요구된다.[49]

또한 물류센터의 야간 노동은 다른 업종이 주간 조와 야간 조가 일정 주기로 순환하는 것과 달리 고정적인 야간 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속적인 야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한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야간근무는 2군 발암물질이며,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6개월 동안 지속하는 것은 특수건강진단실시 유해인자에 포함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는 1년 4개월 동안 야간작업을 했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50]

(3) 높은 작업 강도

김철식 외의 조사에서 77.6%의 응답자가 '빨리 걷는 수준 이상의 힘듦' 이상의 강도로 작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하차 작업의 경우는 43.5%의 응답자가 '달리기 하는 수준'의 강도로 작업한다고 응답했다.[51]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는 "만보기를 차고 일했더니 하루에 5만 보가 찍혀 있더라"라고 아들의 말을 기록했다.[52] 그는 평균 무게 5kg 박스를 하루에 최대 100번까지 나르는 노동을 지속했다.[53]

(4) 총평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그리고 높은 작업 강도의 측면에서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측면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높은 강도의 작업이 장시간 이어지고, 충분한 수면 없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반복적인 과로로 인해 물류센터 노동자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및 근골격계 질환에 놓이며 심한 경우 과로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속적인 야간 노동은 수명 단축으로 연결된다.[54]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은 물류센터 노동자가 일용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도 연결된다.

2) 고용 불안의 측면

대부분의 물류센터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구성된다. 하도급 구조의 고용[55] 또한 두드러지는데,

---

47) 김철식 외, 앞의 책, 61~63쪽.
48) 윤희일, 「AI와 사물인터넷으로 물류센터 자동화…물류노동자 과로 줄어들까?」, 『경향신문』, 2021.03.21.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3211204001. (2022.11.08.)
49) 김철식 외, 앞의 책, 65~66쪽.
50) 양종곤, 「야간근로는 발암물질…10명 중 4명 "하루 8시간 넘게 일해"」, 『서울경제』, 2021.11.2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53Y91QK. (2022.11.08.)
51) 김철식 외, 앞의 책, 154~155쪽.
52) 박미숙 외, 앞의 책. 최용락, 「야간노동과 과로 위에 만들어진 한국사회의 '마지막 일터' 쿠팡」, 『프레시안』, 2022.09.09.에서 재인용. 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91112275734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2.11.08.)
53) 이정은, 「샛별배송을 만드는 물류센터의 샛별들」, 『인천투데이』, 2022.08.0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96. (2022.11.08.)
54) 박미숙 외, 앞의 책. 최용락, 앞의 기사에서 재인용.

쿠팡을 제외하면 많은 물류센터에서 중층적인 하도급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쿠팡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다.[56] 이는 물류센터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드러낸다. 장소영의 연구에서 택배업 시설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물류업 근로자나 운송 근로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류센터 노동자 중 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먼저 위에서 살핀 과로 누적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단기적인 '쪼개기 계약'을 요구한다는 점이 있다.[57]

2. 노동환경 악화의 원인

1) 과로에 대한 규제책 미비

(1)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 부족

배송 속도 경쟁으로 인해 물류센터 노동환경의 문제가 심해졌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야간 노동은 언급 수준에 그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8]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야간 노동에 대한 수당만을 언급하고 있기에 규제보다는 허용에 가깝다. 또한 무점포 판매업에 해당하는 물류센터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 야간 노동이 일상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59] 물류센터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야간 노동을 제한하거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 도입이 필요하지만,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뿐 실제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2) 물류 업종에서의 노동 시간 제한 특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방법도 부족하다.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근로 시간 특례 업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근로 시간 특례업종에서 물류 관련 업종 중 보관 및 창고업을 제외했지만,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보관 및 창고업뿐 아니라 운송업을 겸한다. 보통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과 아닌 업종이 혼재할 때 주된 업종이 특례업종인 경우, 특례 제외 업종이 혼재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60] 따라서 대부분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노동 시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 규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은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61]라고 명시하여 특례업종 노동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

55) 하청구조 고용과 같은 말로, 대기업이 노동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도급업체(하청업체)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하는 방식의 고용 형태이다.
56) 김철식 외, 앞의 책, 49~50쪽.
57) 김철식 외, 앞의 책, 53~54쪽.
58)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59) 오연주, 「"쿠팡 영업시간도 규제하라"…야간노동 문제 칼 빼든 국회」, 『헤럴드경제』, 2021.11.11.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11000580. (2022.11.04.)
60) 김철식 외, 앞의 책, 227쪽.
6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2020년 고용노동부가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발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행위가 28건 발생했으며 근로기준법이 명시하는 근무일 사이의 연속 휴게시간(11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도 더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2] 고용노동부는 이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계획을 밝혔다.[63] 그러나 기업이 기간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64]

이렇듯 기업과 법률 모두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으로 인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시스템은 물류센터 노동자가 장시간 야간 노동을 하기 쉬운 구조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

물류 산업은 보통 중층적인 하도급계약 구조에 따라 인력을 운영한다. 앞서 설명했듯 하도급계약은 원청 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하청 기업이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택배사는 택배터미널 운영을 도급업체에 맡기는 1차 도급계약을 하는데, 1차 도급업체가 인력회사를 통해 실제 인력을 조달하면 2차 도급이 되고, 심한 경우 3차, 4차 도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65] 대다수의 물류센터에서 이러한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가 나타난다.

물류 산업이 중층적 하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물류 산업에 파견 근로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물류 산업의 하역업무를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으며, 원청 기업(택배사)의 관리자가 하청 기업이 파견한 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66]

한편 물류센터의 중층적 하도급계약 구조는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저해하는 주원인이다. 보통 노동자를 모집하는 건 인력회사이지만, 실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물류센터 운영회사이다. 그러나 노동자 대부분이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고용 주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회사에서 지급하는 대로 일당만 받을 뿐 아무것도 모른 채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주휴수당, 사회보험 납입, 퇴직금 등의 계산 및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67]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는 대신 중간에서 갈취하거나, 강제 사직서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 알선 업체가 불법 파견을 하도급계약으로 위장하는 일도 있다. 이는 노동자가 고용 주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도급 단계를 늘려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을 현저히 낮추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실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재계약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된다. 그에 더해, 김철식 외의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이나 계약직 노동자들은

62) 최재필, 「11시간도 못 쉬고 다시 출근하는 야간 작업자들」, 『국민일보』, 2021.11.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9717&code=11131800&cp=nv. (2022.11.04.)
63)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6.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11. (2022.12.14)
6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65) 김철식 외, 앞의 책, 52쪽.
66) 신인식, 「편법과 위법이 판치는 물류 노동시장」, 『물류신문』, 2018.01.15.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36.(2022.11.04.)
67) 김철식 외, 앞의 책, 90쪽.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근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68]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많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포기하며, 기업은 아예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다.

결국 하도급 구조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 다시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노동자는 실질적인 책임이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중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원청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하청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하청구조 개선 방안

1) 정부의 규제 개선 방안

(1) 야간 노동 규제

야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법을 수정해야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물류센터 야간 노동에 대응하려면 다른 해결책도 동반해야 한다.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는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나, 무점포 판매업에 속하는 물류센터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을 0시~4시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물류센터의 야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69]

야간 노동 제한은 노동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0시부터 4시까지의 야간 노동 제한은 사측의 우려와 달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야간 노동 제한은 협력 업체로 확산하여 제조업 종사자의 야간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제조업의 사례는 야간 노동 제한이 노동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 양쪽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70]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간접적 방법 외에 야간 노동 시간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월 야간 노동 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연속 야간 노동을 제한한다면 반복적인 야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야간 노동 시간을 직접 규제하려면 노동법을 수정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빠르게 늘어나는 야간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해결책을 동반하며 장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모색해야 한다.

(2) 노동 시간 규제

기존의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근로 시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하다. 현재의 근로 시간 특례가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류센터 노동자가 장시간의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선의 방향은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을 비롯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로제, 휴일 근로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이 될 것이다.

연속휴식제도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특례업종에 대해 11시간 연

68) 김철식 외, 앞의 책, 157~158쪽.
69) 이희종,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2021.11.11.
70) 이희종, 위의 글.

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연속휴식제도는 노동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한다.[71]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되면 하루 24시간에서 휴식 시간 11시간을 제외한 뒤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보장하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11.5시간 근무가 가능해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80.5시간이 된다.[72] 즉, 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연속휴식 제도의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2)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물류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구조의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에 놓이고 각종 보호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복잡한 고용 형태로 인해 자신의 고용 주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폐지,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회보험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및 강화 등이 필요하다.

(1) 파견법 폐지

인력을 제공하는 과정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은 중간 착취의 성격을 보인다. 간접고용의 핵심은 파견 노동으로.[73] 엄격한 규제를 통해 노동시장 내 간접고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파견 노동 규제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내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간접고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세울 수 있다.

(2)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회보험 구축

물류센터 노동자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갈취하거나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갈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독일의 택배종사자보호법은 하청 또는 위탁업체가 피고용인과 고용관계를 개시한 후에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급 사업주(원청 기업)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신고 노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불법 노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74] 한국에서도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 가입이 유지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파악하고 고용주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3)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및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75]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원청 기업이 하청구조를 통해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예방한다.

---

71) 박귀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159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72) 박태우, 「'주 92시간' 논란 일자…정부 "11시간 연속휴식 병행" 물러서」, 『한겨레』, 2022.06.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8396.html. (2022.12.15.)
73) 손정순,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대안적인 법·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자료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74) 이승현, 「독일의 택배종사자보호법」, 『국제노동브리프』 Vol.19 No.5, 한국노동연구원, 2021.
7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시행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현행 중대재해법은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76]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의 대상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III. 결론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물류업체들의 속도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물류업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기업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며, 소비자 또한 빠르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의 이면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와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와 기업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물류센터 노동환경의 실태는 과로의 측면과 고용 불안의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과로의 측면은 장시간 노동, 연속적 야간 노동, 높은 작업 강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많은 물류센터 노동자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과 연속적인 야간 노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측면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높은 강도의 작업이 장시간 이어지고, 충분한 수면 없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사고와 과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로에 대한 규제 부족의 측면과 하도급 구조로 인한 복잡하고 불안한 고용 형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물류센터 업종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들의 과로가 용인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부족하다. 한편,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의 고용으로 인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과로에 시달린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하도급 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노동환경 악화의 원인에서 밝힌 규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파견법 폐지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정부의 강한 규제 없이 스스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으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현 정부는 중대재해법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77] 이러한 시점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지각해야 한다.

---

7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2.05.16.

77) 「[뉴스하이킥] 이은주 "SPC, 그동안 산재 은폐.. 중대재해법 위반, 청문회 해야"」, MBC, 2022.10.24.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2022.10.24.회차 중 이은주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기사.)

참고문헌

단행본

박미숙 외 6명,『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민중의 소리, 2022.

논문 및 간행물

김철식 외,「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1.

박귀천,「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월간 노동리뷰』통권 제159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손정순,「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대안적인 법·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자료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이승현,「독일의 택배종사자보호법」,『국제노동브리프』Vol.19 No.5, 한국노동연구원, 2021.

이희종,「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2021.11.11.

장소영,「국내 물류산업의 업태별 근로여건과 고령화 영향분석」,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기사

「[뉴스하이킥] 이은주 "SPC, 그동안 산재 은폐.. 중대재해법 위반, 청문회 해야"」, MBC, 2022.10.24.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2022.10.24.회차 중 이은주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기사.)

https://v.daum.net/v/20221024204631597?f=o. (2022.11.08.)

동효정,「고속성장 마켓컬리, 노동법 위반 '블랙리스트' 의혹」,『스포츠서울』, 2022.1.19.

https://n.news.naver.com/article/468/0000821852?sid=101. (2022.12.15.)

박태우,「'주 92시간' 논란 일자…정부 "11시간 연속휴식 병행" 물러서」,『한겨레』, 2022.06.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8396.html. (2022.12.15.)

백봉삼,「쿠팡, 1분기 국내 이커머스 결제추정금 네이버 제치고 1위」,『ZDNET Korea』, 2022.04.12.

https://zdnet.co.kr/view/?no=20220412082324. (2022.11.07.)

신인식,「편법과 위법이 판치는 물류 노동시장」,『물류신문』, 2018.01.15.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36. (2022.11.04.)

양종곤,「야간근로는 발암물질…10명 중 4명 "하루 8시간 넘게 일해"」,『서울경제』, 2021.11.2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53Y91QK. (2022.11.08.)

오연주,「"쿠팡 영업시간도 규제하라"…야간노동 문제 칼 빼든 국회」,『헤럴드경제』, 2021.11.11.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11000580. (2022.11.04.)

윤희일,「AI와 사물인터넷으로 물류센터 자동화...물류노동자 과로 줄어들까?」,『경향신문』, 2021.03.21.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3211204001. (2022.11.08.)

이재영,「더 빨라지는 배달 속도…유통업계 속도경쟁 가속화」,『빅터뉴스』, 2021.07.08.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4. (2022.11.07.)
이정은, 「샛별배송을 만드는 물류센터의 샛별들」, 『인천투데이』, 2022.08.0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96. (2022.11.08.)
조해람, 「코로나 이후 업무 늘며 산재도 급증…노동자 “배달 폭증, 추석이 두렵다”」, 『경향신문』, 2022.08.1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52056005. (2022.11.07.)
최용락, 「야간노동과 과로 위에 만들어진 한국사회의 '마지막 일터' 쿠팡」, 『프레시안』, 2022.09.09.
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91112275734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2.11.08.)
최재필, 「11시간도 못 쉬고 다시 출근하는 야간 작업자들」, 『국민일보』, 2021.11.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9717&code=11131800&cp=nv. (2022.11.04.)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제59조 제2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2.05.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6.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11. (2022.12.14)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실용글쓰기

셔틀버스의 모든 것, 동국패스에서 확인해봐!

: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 기획

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백충환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이가연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위세훈
이과대학 화학과 김민희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장여완

Ⅰ. 서론

1. 기획 의도
2. 셔틀버스 운행 현황 및 실태조사

Ⅱ.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 콘셉트와 구축 전략

1.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2. 서비스 콘셉트와 구축 전략
3. 앱 메뉴 구조 및 주요 기능

Ⅲ. 기대효과

1. 동국대학교 재학생
2. 동국대학교 BMC 종합 행정실
3. 셔틀버스 기사님

Ⅳ. 결론

Ⅰ. 서론

1. 기획의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번 환승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과 학교 사이의 거리도 가깝지 않다. 또한, 학교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원당역과 백마역은 학교에서 걸어서 이동하기 쉬운 거리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BMC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는 ① BMC ↔ 원당역(3호선), ② BMC ↔ 백마역(경의중앙선), ③ BMC ↔ 서울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그러나 직접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운영 및 이용 개선'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더욱 많은 학생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획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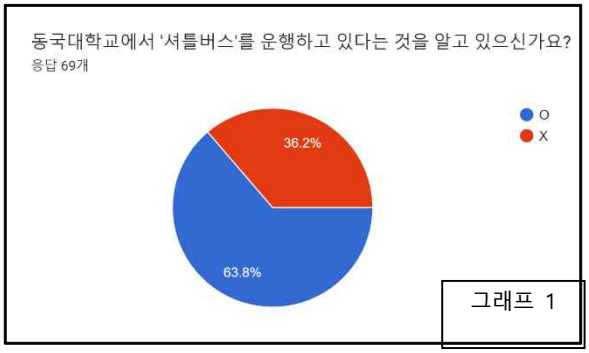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 우선 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국패스'앱에 셔틀버스 시스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에 있던 앱에 해당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인 만큼 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BMC와 서울캠퍼스의 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예컨대, BMC 재학생들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대동제, 취업 박람회,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는 BMC에서만 진행하는 강의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바이오메디캠퍼스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셔틀버스 운행 현황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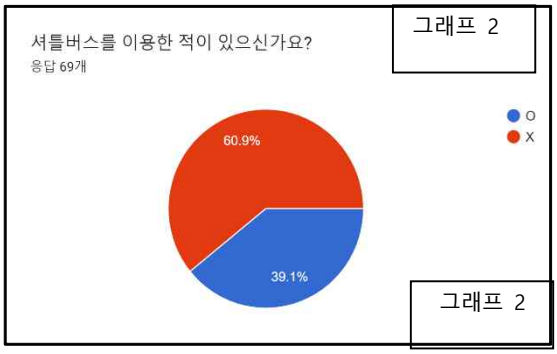
구글폼을 활용하여 '동국대 셔틀버스 운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동국대학교 재학생의 경험을 추가로 수집했다.

1) 설문 기간: 7일 (2022. 11. 01. ~ 2022. 11. 07.)
2) 설문 방법: 구글폼 설문조사
3) 설문 내용: 동국대 셔틀버스 이용 현황, 셔틀버스 만족도, '동국패스' 앱 사용 현황 등
4) 응답 인원: 69명[78)]
5) 설문 결과: 아래에 서술

78) 서울캠퍼스 소속 19명, BMC 소속 50명으로 총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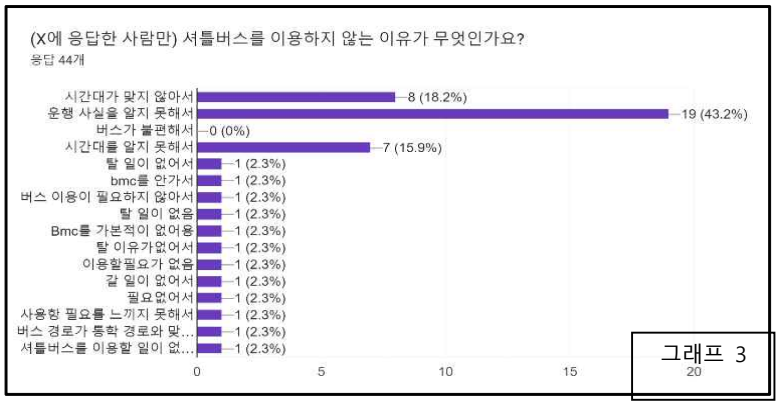
그래프 1



그래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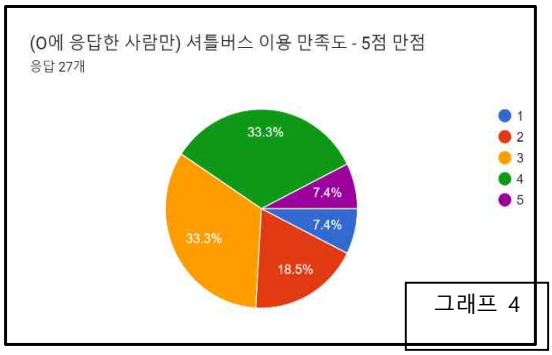
그래프 2

(그래프 1)-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6.2%이다.
(그래프 2)-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60.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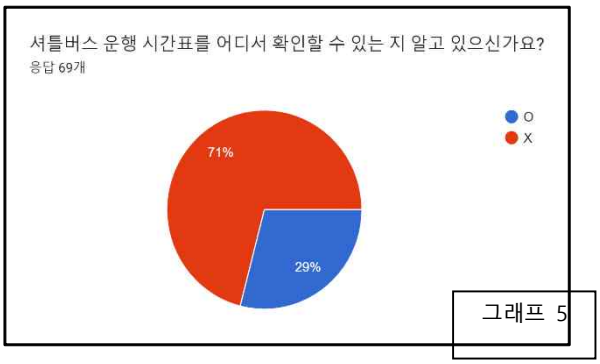


그래프 3

(그래프 3)-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60.9%의 학생 중, BMC에서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운행 사실과 시간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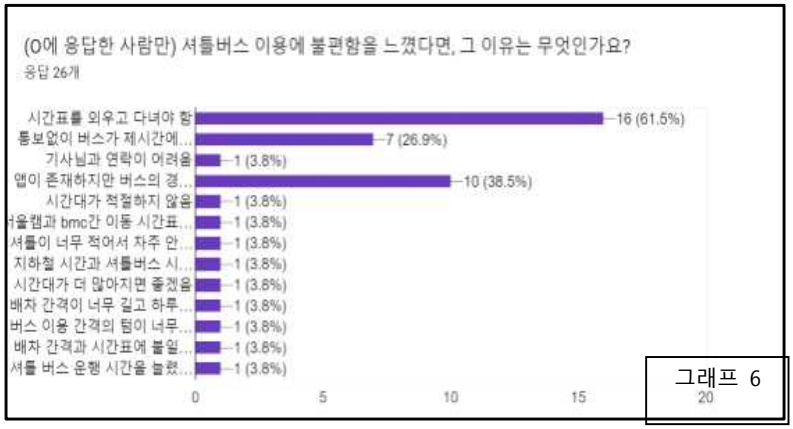


그래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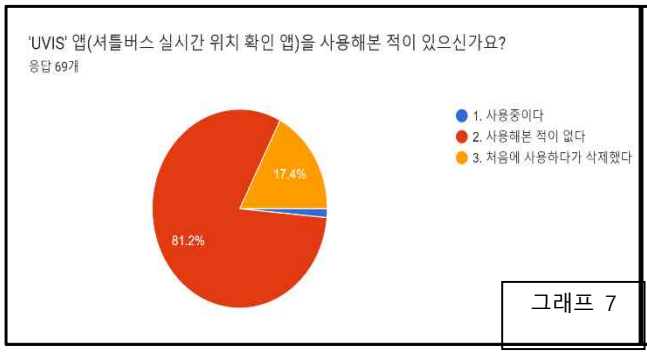
그래프 5

(그래프 4)- 셔틀버스 이용의 만족도 1점과 2점을 선택한 학생이 25.9%, 3점을 선택한 학생이 33.3%로 학생들이 셔틀버스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프 5)-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7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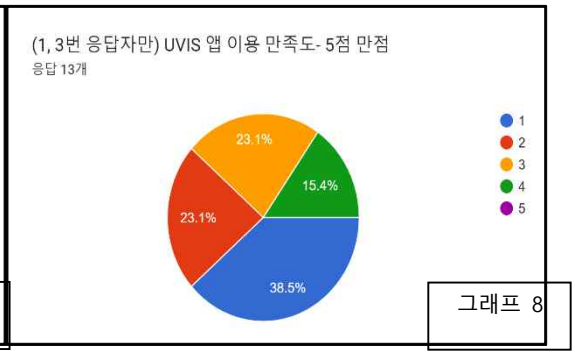


그래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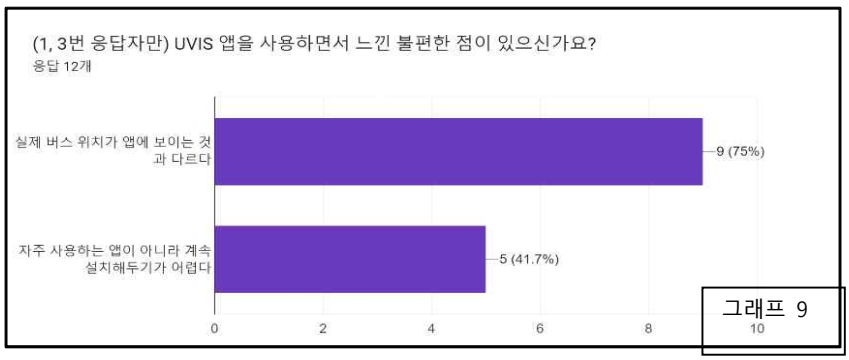
(그래프 6)- 셔틀버스 이용 중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시간표를 외우고 다녀야 함'이 그래프 5의 응답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래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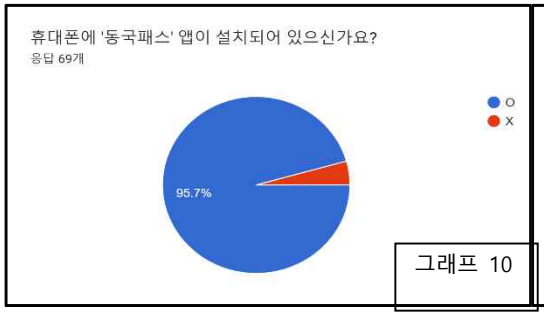
그래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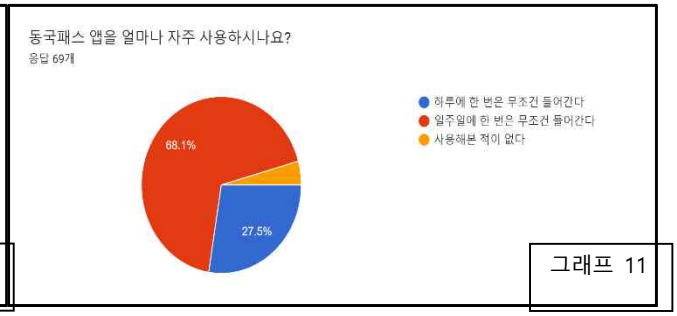
그래프 9

(그래프 7)- 셔틀버스 실시간 위치 확인 앱인 'UVIS 앱'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1.4%이다.[79]
(그래프 8)- 앱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점과 2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9)- 'UVIS 앱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 '실제 버스 위치가 앱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에 75%, '자주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 계속 설치해 두기 어렵다.'에 41.7%가 응답했다.

79)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경우 UVIS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프 10



그래프 11

(그래프 10)- '동국패스' 앱을 설치한 학생의 비율이 95.7%이다.
(그래프 11)- 동국패스 앱을 설치한 학생 중 68.1%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앱을 사용하고, 27.5%의 학생은 매일 앱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36.2%나 차지하였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60.9%의 학생들이 그 이유로 '운행 사실과 시간대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셔틀버스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셔틀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시간표를 외우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제공하는 UVIS 앱의 정확도가 낮아 앱 설치를 안하고 사용조차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Ⅱ.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 콘셉트와 구축 전략

1.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구글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동국대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재학생들 또한 셔틀버스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현재 셔틀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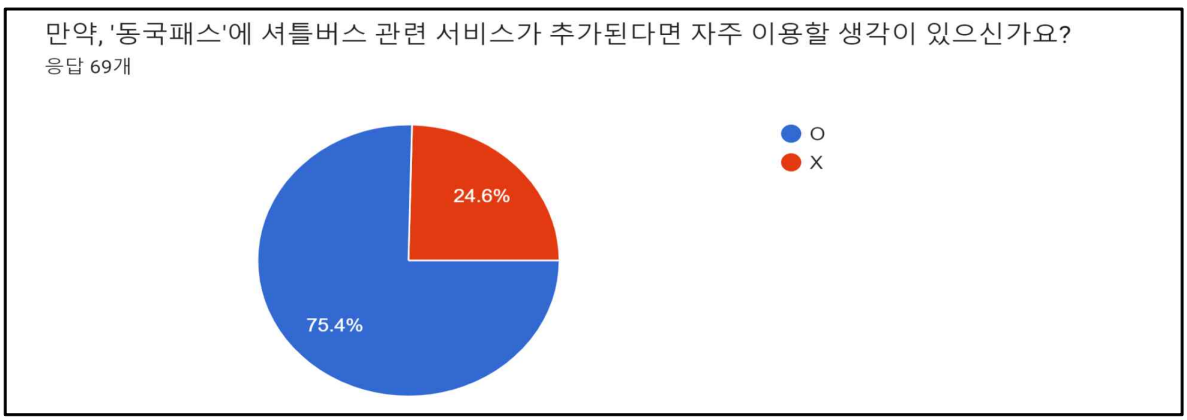
2022년 2학기의 셔틀버스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중 매일 BMC ↔ 원당역 14회, BMC ↔ 백마역 7회, BMC ↔ 서울캠퍼스 3회를 왕복하고 있다. UVIS앱을 통하여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의 웹사이트와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셔틀버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웹사이트와 (2022.11.06. 오후 8시 기준) 오직 499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계정은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게시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홈페이지 셔틀버스 시간

또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며 최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셔틀버스 시스템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복지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아쉬운 결과일 것이다. 이용자가 없거나 적으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문에 참여한 95.6%의 학생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동국패스를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동국패스 앱에 셔틀버스와 관련된 기능을 추가할 것을 현재 셔틀버스를 관리하는 BMC 종합행정실과 동국패스를 관리하는 정보인프라팀에 제안하는 바이다.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접근성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셔틀버스 운영 주체는 동국대학교이며 주된 이용 대상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바로 동국패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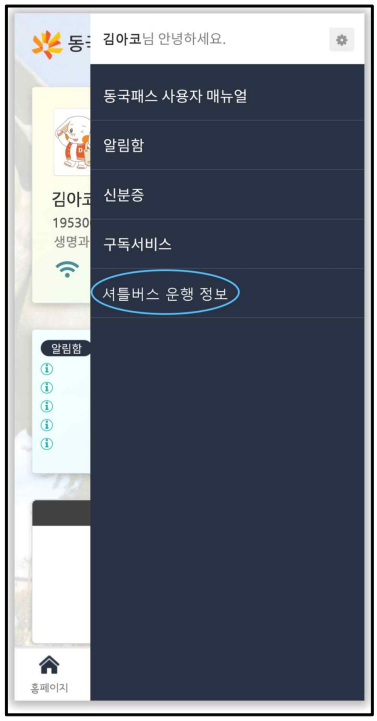


설문 중 동국패스에 셔틀버스 관련 서비스가 추가되면 자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5.4%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면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서비스 콘셉트와 구축 전략

1) 기존 앱 '동국패스'에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 추가

'동국패스' 앱에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을 추가한다. 동국패스는 서론에 나온 설문조사에 의하면 95.7%나 이용할 정도로 동국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이 많이 이용하는 앱이므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80]



2) 기사님 정보 및 차량 정보 표시 기능 추가

운행 기사님의 정보와 차량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백마역↔BMC 차량인지 원당역↔BMC 차량인지 BMC↔서울캠퍼스 차량인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3) 버스 운행 시간표 정보 표시 기능 추가

버스 운행 시간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운행이 끝난 시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출발까지 10분이 남은 시간은 굵게 표시하는 기능을 넣는다.

4) GPS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 추가

GPS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추가한다. 셔틀버스에 설치된 GPS 장치를 조회하여 동국패스 앱에 셔틀버스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버스가 이미 출발한 건지 아니면 도착이 지연된 건지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한다.[81]

5) 불편사항 접수 게시판 추가

불편사항 접수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셔틀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내용은 셔틀버스 관리자(BMC 종합행정실)가 확인하여 처리한다.

6) 동국패스 내 알림함과 학과 공지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추가 내용 전달 및 업데이트 유도

동국패스 내 알림함(또는 팝업)과 각 학과 공지방에 동국패스 앱에 셔틀버스 정보 시스템이 추가되었음을 공지한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스토어에서 앱 업데이트만 진행하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80) 개발비의 경우 동국패스 개발, 관리 담당을 맡은 동국대 정보 인프라팀에서 '구축비용 산정은 시스템 설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서비스 구축비용 산정은 단순히 기능 몇 가지 정리해서 산출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개발자의 실력에 따라 걸리는 기간, 비용이 달라져 특정 개발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지만 학업용 기획서의 한계로 개발자의 본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불확실한 예산 또한 기획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81) 동국패스 앱에서는 이미 위치 앱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 없다.

7) 월 1회 동국패스 앱 유지 보수

셔틀버스 시스템 추가 후, 매달 앱 유지 보수를 한다. 외부업체에서 개발한 동국패스의 현재 월 유지보수 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82]

3. 앱 메뉴 구조 및 주요 기능

제시한 이미지는 동국패스 앱에서 셔틀버스 운행 정보로 들어가면 나오게 될 첫 번째 페이지다. 이 페이지의 메뉴는 안내 사항을 나타내는 게시판과 각 셔틀버스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는 3가지 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안내 사항에서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게시판 이용 안내를 맨 위에 배치**했다. 이는 동국패스에 새롭게 생긴 기능인 셔틀버스 관련 메뉴들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안내문이며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에 있는 셔틀버스 불편사항 접수 게시판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는 도중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운 점, 개선할 점 등의 의견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버스 운행 회사와 학생 간의 마찰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것까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관련되어 **급하게 운행을 하지 못한다거나 도착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푸시 알림과 동시에 안내사항에 빨간 글씨로 게시**하여 눈에 띄도록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운영되는 버스는 ① BMC ↔ 서울캠퍼스, ② BMC ↔ 백마역 ③ BMC ↔ 원당역으로 3가지 운행경로가 있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 시간표의 3가지의 탭을 만들었다. 색맹, 색약 등의 문제로 인하여 탭 구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앱 내의 환경설정 공간에서 탭의 색상들을 임의로 하나씩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며 글씨의 폰트나 색 또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탭마다 친근한 동국대학교 캐릭터인 '아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탭 구분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아코를 선택하여 넣는 디자인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82) 주요 업그레이드로 업무량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비용은 실제 시스템 추가 후에 산정할 수 있다.

좌측의 이미지는 셔틀버스 시간표 메뉴 중 두 번째에 있던 BMC ↔ 백마역을 눌렀을 때의 페이지이다. 상단에는 메뉴페이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다른 목적지로 가는 셔틀버스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목적지로 가는 셔틀버스를 선택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다.

이 메뉴의 하단에는 각 셔틀버스의 출발 유무와 요약 또는 추가 안내사항들을 보여주는 간단한 칸을 위치시켰다. 그 하단에는 시간표를 배치시켰으며 시간표는 일요일 00시에 주차가 바뀌며 각 요일에 따른 날짜가 최신화될 것이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날짜를 눌러 시간표를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며 이미 출발했거나 운행이 종료된 시간은 취소선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출발이 10분 남은 차량에 대해서는 굵게 표시하여 강조할 것이다.

우측의 이미지는 시간표에 존재하는 시간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이다. 이용자들은 선택한 시간표에 대한 정보와 운행 거리, 예상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님의 사진, 전화번호 등의 정보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번호와 실시간 위치 등의 차량의 정보도 제공해 줄 것이다.

Ⅲ. 기대효과

위에서 제안한 셔틀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들이 수용된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따로 시간표를 검색하거나 UVIS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국패스 앱을 통해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셔틀버스 서비스 이용자의 수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1. 동국대학교 재학생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는 기존에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던 학생에게는 셔틀버스 이용 편리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용 개선에 대한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동국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36.2%를 차지했다. 그렇기에 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운행 정보를 알지 못했던 학생들도 쉽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셔틀버스 서비스는 서울캠퍼스와 BMC 간의 거리적 한계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접근성이 높아진 셔틀버스 서비스는 캠퍼스 간의 원활한 교류와 BMC 활성화에 기여하며, 각 캠퍼스 재학생은 강의 수강에 있어 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국패스에서 추가할 셔틀버스 서비스 주요 기능 중 이용 안내, 불편사항 접수, 지연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사항'**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편사항 접수란은 셔틀버스 서비스 운영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표'** 제공 기능은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를 모르는 학생과 시간표를 외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 별 출발 시간만을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셔틀버스 시간표와는 다르게, 동국패스 내 셔틀버스 서비스는 **셔틀버스 출발 유무와 운행의 종료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버스 운행 시간표를 누르면 제공되는 **기사님 정보, 차량 정보, 실시간 위치 정보는 셔틀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셔틀버스 실시간 위치 확인 앱 UVIS는 많은 사람이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사용하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패스 내 셔틀버스 서비스에서 이를 함께 제공한다면, 기존 셔틀버스 이용 학생과 신규 이용 학생 모두 편리한 셔틀버스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동국대학교 BMC 종합 행정실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를 통해 바이오메디캠퍼스 셔틀버스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BMC 종합 행정실은 셔틀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제대로 된 서비스 관리를 통해 기존에 있었던 여러 불편사항이 해결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또한 서비스 주요 기능 가운데 셔틀버스 출발 유무, 실시간 위치 정보를 통해 계약한 업체의 셔틀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버스 업체와 버스기사님과 함께 셔틀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관련된 불편사항이 접수된 경우 서비스 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나 기사님에게 개선할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 셔틀버스 기사님

'동국패스 내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서비스'는 셔틀버스 운행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 기사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버스 기사님의 이름과 같은 정보를 통해 셔틀버스 이용자들은 기사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게 될 것이다.[83] 이러한 셔틀버스 이용자의 존중을 바탕으로 버스 기사님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셔틀버스 이용 개선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동국패스 내 셔틀버스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기획서에서는 부족한 셔틀버스 운행 홍보, 현재 셔틀버스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찾기 어려운 버스 운행 시간표 등과 같은 문제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동국패스 내 셔틀버스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조가 기획한 셔틀버스 서비스를 통해 기존 셔틀버스 이용 학생의 편리성은 증가하고,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신규 셔틀버스 이용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서울캠퍼스와 BMC 간의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BMC 활성화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셔틀버스 서비스가 동국패스에 추가로 구축된다면 동국대학교는 더 나은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동국대학교 재학생은 복지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별도의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83) 실제로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기사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비슷하다.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지혜와자비 명작세미나

욕망으로 만들어진 사회, 내달리는 청년들

: 슈마허의 불교경제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대학 사회.언론정보학부 김지원

Ⅰ. 서론: 풍요로운 사회,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Ⅱ. 본론

1. 인간의 욕망과 탐욕

2. 탐욕으로 만들어진 사회
(1) 물질을 중심에 둔 사회
(2) 내달리는 청년들

3. 불교적 대안의 모색: 슈마허의 '불교경제학'
(1) '탐욕으로 만들어진 사회'에 대한 진단
(2) 불교경제학의 대안

Ⅲ. 결론

Ⅰ. 서론: 풍요로운 사회,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물질적 풍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프랜시스 베이컨을 비롯해, 근대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더 많은 자원과 부를 취득하고자 했던 이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는 기술의 발전을 이뤄냈다. 과거 사람들이 그리던 기술 유토피아만큼이나 풍요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대개 많은 사람들은 욕망 추구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풍부해진 자원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이 가능하게 됐고, 덕분에 거대한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84]이 나타내듯, 고도화된 기술로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만들어내어 손에 넣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류는 그렇게 기술적 진보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어가며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며 더 많은 이익을 손에 쥐길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순간 더 큰 이익을 탐하며 그것을 좇는다. 욕망의 증식과 이를 채우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빈부격차나 자원의 고갈, 생태계 파괴와 같은 현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발전', '성장'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닐까. 무한한 욕망의 수레바퀴에 갇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단언컨대, 우리가 놓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일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부를 취득하는 것만을 중시하는 사회,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떠올려보자. 수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잃은 채로 살아가고, 더 생산적인 사람, 더 혁신적인 사람, 즉 훌륭한 인적 자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불안해하고 있다. 언제나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를 외치지만, 그 중심에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착안하여, 본고는 사람보다 물질적 이익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고통을 조망하고, 불교적 시각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 발전의 동기가 된 인간 욕망이 가진 특성과 그로부터 비롯된 현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불교경제학의 관점에서 인간이 아닌 자본을 중심에 둔 경제중심주의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경제학의 정신이 지니는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간의 욕망과 탐욕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왔다. 크게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본 입장과 부정

84) 홍다영, "자본주의 폐해, 불교에서 답 찾자", 불교신문, 2014. 08. 28.,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49.

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욕망을 행위의 근본적인 동인으로 보았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은 이성을 통해 적절히 억제하여 조화할 수 있는, 역동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근대 철학자인 스피노자와 니체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자 생산적, 능동적, 창의적인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욕망을 중립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본 학자들은 욕망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 집중하였다.[85]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욕망 추구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였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앞선 주장과는 상반되게,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물론 불교가 일체의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제거하고 금기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색욕,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으로 나누어 오욕(五慾)이라 부른다. 이러한 욕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또한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고통으로 전환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낳는 욕망 추구의 행위는 오히려 권장된다.[86]

문제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욕망 행위이다. 불교에서는 오욕의 추구가 과해져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탐욕이라 부른다. 탐욕은 삼독(三毒) 중 하나로,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탐욕은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야기하기에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욕망은 기본적으로 맹목적이고 무한하기에 아무리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만약 자신에게 내재된 욕망을 채운다 하여도, 만족의 상태는 일시적일 뿐 순식간에 그 상태에 적응하여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엔 같은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욕망 행위는 무한히 이뤄지게 되며, 더욱 확대되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무한한 욕망의 속성은 갈애(渴愛)를 원인으로 한다. 갈애는 “모든 욕망의 근저를 이루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의미한다. 갈애는 인과적 이치에 대한 사유 없이 맹목적으로 이끌리는 무명(無明)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사성제(四聖諦)에서는 번뇌의 근본적 원인인 갈애(渴愛)를 극복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인 열반에 이를 것을 말한다. 팔정도(八正道)에서 제시하는 수행 방식을 따름으로써 무명과 갈애를 극복하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다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87]

2. 탐욕으로 만들어진 사회

(1) 물질을 중심에 둔 사회

오늘날의 사회는 욕망 추구의 산물이나 다름없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문명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눈부신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이뤄낸 배경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이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증대와 부의 획득을 최고 목표로 둔다. 이는 물질적 가치가 정의, 조화, 미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보다도 무조건적으로 우선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85) 이상헌,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 살림, 2017, p. 180.
86) 조준호. 「무명(無明)과 공(空) - 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불교학연구, 24, 2009, p. 184.
87) 이상헌,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 살림, 2017, pp. 184-185.

여겨지기 시작했다. 협업과 분업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학기술을 통해 이를 더욱 손쉽게 이뤄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선진국들은 국제 시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착수하였고, 효율성과 생산성은 최고의 미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대 사회의 수많은 주체들은 국제 사회 속 경쟁에서 앞서나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1순위로 삼는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이 탐욕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근면하게'와 같은 주문을 통해 유지하고 더 부추겨가고 있다. 국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주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이다. 이들은 사회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2) 내달리는 청년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는 한국 청년들의 삶을 통해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부품으로서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될 것을 주입받는다. 가족, 학교, 회사, 그리고 국가는 "열심히 일하라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88] 청년들에게 말해왔다. 젊은 청년들을 사회적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하고 훈련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에 부응하듯 청년들은 12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끝마치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부품으로서의 삶은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 자본이란 "인간의 지식, 기술, 경험, 창의성 등의 능력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본으로 파악한 개념"[89]을 의미한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토지나 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노동의 질적 수준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들의 교육 수준, 직업훈련의 정도,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90]

한국 청년들은 인적 자본으로서의 삶을 매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교육 기관에서 일종의 훈련을 받는데, 정해진 교육을 받고,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고, 그 결과에 따라 줄세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어느새 미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논리는 '좋은 성적이 명문대 진학으로 이어지고,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과 같은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포장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고도화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준생이 되고,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결국 청년 개인의 삶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적 자본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점철되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 청년들의 강박,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손상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사회에서 비롯

88) 맬컴 해리스, 『밀레니얼 선언』, 노정태 역, 생각정원, 2019, p. 14.
89) 두산백과, "인적자본",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6122742&categoryId=31846.
90) 정병각,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고찰 및 한국의 인적자본 현황분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2007, p. 7.

된 것이다. 훌륭한 인적 자본으로 인정받아야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에 청년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어려서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정량화된 스펙을 쌓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린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이 단일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들의 건강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청년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 중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청년들 개인의 의지와 목적이 지워지는 것이다. 개인적 성장은 그들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사회적인 유용성의 증대로 연결된다. 청년의 행위가 갖는 목적, 의미는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청년들은 노동행위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내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1020 청년들의 우울증, 공황장애 상담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인 병든 사회가 만들어졌다.[91]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나날이 갈수록 불행해지고,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가고 피폐해지고 있다.[92]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탐욕으로 만들어진 사회.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현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일 것이다.

3. 불교적 대안의 모색: 슈마허의 '불교경제학'

(1) '탐욕으로 만들어진 사회'에 대한 진단

앞서 살펴보았듯 성장을 향한 과도한 탐욕은 청년들을 인적 자본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중심에 둔 사회를 만들었다. 이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잃고 소외되게 만들며, 큰 정신적 고통과 불행을 초래한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에른스트 슈마허(Ernst Schumacher)가 그의 저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제시한 불교경제학을 들 수 있다. 불교의 팔정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경제학은 불교적 인간관과 노동관을 근거로 근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간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93] 불교의 노동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나타난다.

> "불교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역할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다."[94]

불교에서는 노동을 인간성과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로 본다. 인도의 경제학자 쿠마라파(J. C. Kumarappa)에 의하면 노동은 인간이 활력을 얻게 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격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을 행하는 자를 고상한 인간으로써 탄생시키는 축복과도 같은 행위이다.[95]

---

91) 이에스더, "유서조차 안 남기고 죽은 영재 아들…1020 이런 죽음 급증, 왜", 중앙일보, 2022.11.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145.
92) 이상헌,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 살림, 2017, p. 254.
93) 이상헌,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 살림, 2017, p. 249.
94)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p. 73.
95)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pp. 74-75.

이러한 불교의 노동관을 통해 한국 사회를 조망했을 때, 우리는 목적을 잃고 불안과 강박을 연료로 내달리는 청년들이 노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슈마허는 그의 저서에서 노동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을 "범죄 행위나 진배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은 노동할 기회가 없으면 절망에 빠지는데, 이는 단순히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훈육된(disciplined)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활력을 얻는 측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96]

위의 대목은 청년들이 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의미와 활력도 얻지 못하면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을 그저 인적 자본, 사회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부품으로 여기는 사회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 생산물을, 사람이 아닌 재화를 중시하는 사회인 것임을 시사한다.[97] 슈마허가 말했듯, 노동을 의미 없는, 맹목적으로 해야만 하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한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악행이자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98]

(2) 불교경제학의 대안

자본주의 사회 형성의 기저에는 부를 쌓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무한한 탐욕이 깔려있다. 결국 '자본을 중심을 둔 사회'에서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뿌리를 건드려야만 한다. 불교경제학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으로 중도를 제시한다.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즐거움을 탐하지 않음으로써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99] 이를 반영한 기본 정신은 소박함과 비폭력으로, 소비만이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적절한 소비를 통해 큰 만족감을 얻는다면 압박감,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탐하지 않고 적은 양의 자원으로 만족할 줄 안다면 경쟁하게 될 일도 없을 것이고, 경쟁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 강박, 고통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슈마허는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무언가를 욕망하고, 이를 무한히 추구하기보다는 중도를 지키며 적절히 만족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경제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던 탐욕의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 욕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이 이를 추구하게끔 만든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하고, 더 큰 자본이 존재하는 대도시나 거대한 공동체에 뛰어들어 경쟁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욕망을 재생산해내는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사람의 행복이 성장의 척도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얼마를 더 벌지를 궁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내달리게 하던 물질중심주의적, 성장중심주의적 사고를 내려놓고 소박함과 비폭력의 정신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만들어낸

96)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p. 75.
97)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p. 75.
98)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p. 73.
99)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p. 76.

욕망을 맹목적으로 좇는 대신, 현재의 삶 또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에 뛰어들어 타인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회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인류의 진보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 즉 사람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을까.

Ⅲ. 결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사회는 더 많은 부, 더 빠른 발전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는 욕망으로 이뤄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무한함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계하기에 어렵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욕망을 포장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욕망을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것에 급급하여 그 안에서 부품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내면의 행복과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시점에서 중도를 지향하고 욕망의 절제를 외치는 불교경제학의 정신은, 탐욕을 동력으로 삼아 움직이던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혹자는 불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며, 불교적 대안만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경제학이 제시하는 중도의 중요성,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교훈은 큰 것만을 지향해오던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는 멈추어서,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향성을 성찰할 때이다.

참고문헌

이상헌,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 살림, 2017.
맬컴 해리스, 『밀레니얼 선언』, 노정태 역, 생각정원, 2019.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강기선, 「三毒에 대한 불교의 종교교육- <화엄경> 「십지품」에 나타난 敎說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56, 2018.
정병각,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고찰 및 한국의 인적자본 현황분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2007.
조준호. 「무명(無明)과 공(空) - 욕망의 비실재성에 대한 불교적 통찰」, 불교학연구, 24, 2009.

홍다영, “자본주의 폐해, 불교에서 답 찾자”, 불교신문, 2014. 08. 28.,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49.
이에스더, “유서조차 안 남기고 죽은 영재 아들…1020 이런 죽음 급증, 왜”, 중앙일보, 2022.11.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145.
두산백과, “인적자본”,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6122742&categoryId=31846.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문화와예술 명작세미나

우리나라 현실 속 <괴물>과 의미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박성은

Ⅰ. 서론

Ⅱ. 본론

1) <괴물> 속 현실 - 식민 안의 식민
2) <괴물> 속 현실 - 386세대,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
3) 현실에서 <괴물>의 반복
4)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의 의미

Ⅲ. 결론

Ⅰ. 서론

1895년, 최초의 영화인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 이후 영화 산업은 산업혁명, 세계전쟁, 경제공황 등 재난상황 속에서 약 1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발전해왔다.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영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현실 문제를 지적하거나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현실 도피적 태도에서 비롯된 환상적이거나 공상적인 내용의 영화들은 그 형식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플레이션까지 몰아닥치자 독일은 큰 혼란에 빠진다. 영화들은 뒤틀리고 과장된 세트, 과잉된 분장, 극적인 그림자 등을 사용하여 기울어지고 불안한 심리를 표현했는데,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노스페라투>가 그 예시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전쟁으로 인해 피폐했던 프랑스에는 아방가르드 영화가 발전한다. 주로 꿈, 환상, 감정의 변화로 내면을 표현하는 이 사조는 표현주의와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안달루시아의 개>가 대표적이다. 이런 표현주의나 아방가르드 영화는 현실 도피적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분명히 시대상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했음은 틀림없다.

주관적인 표현주의와 아방가르드와 달리 객관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예가 지가 베르토프의 <키노-아이>이다. 지가 베르토프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완전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시민이 얼마나 사회를 믿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키노-아이>는 배우가 아닌 일반 시민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담아냄으로써 처절한 현실을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1940년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역시 객관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네오리얼리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현실을 반영한다. 편집을 최소화하고 카메라 기교를 배제하는 등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해 전쟁의 비참함, 가난, 실업 등 민중의 삶을 꾸밈없이 담아내는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이렇게 짧은 역사 동안 영화는 사회 분위기, 문제 등을 반영하며 '현실 비판'으로서 발전해왔다. 마르크스는 "예술은 언제 어디서나 비밀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시대 불멸의 운동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술이 시대의 부조리를 무엇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많은 영화는 현실과 유리된 혹은 무관한 가상을 만들 수 있는 영화적 특성을 활용해 현실을 낯설게 보도록 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영화를 통해 비판하는 작가주의 감독 중에는 봉준호 감독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공감한 영화 <괴물>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괴물>에 담긴 무능력한 식민지로서의 정부와 그 안에서 또다시 식민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남일과 남일의 선배가 보여주는 386세대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고, 윤사장과 노숙자가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 또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감독이 보여주고자 한 현실의 비판점을 고민할 것이다. 이후 현실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괴물>이 언급되는 이유를 고민해보고,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Ⅱ. 본론

1. <괴물> 속 현실 - 식민 안의 식민

100)*고등학교 때 한강 다리의 '괴물'을 '목격'한 이후 언젠가는 이것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맥팔랜드 사건이 일어났다. 보도를 접했을 때, 마치 장르영화 속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이 비현실 같은 현실이 '괴물의 탄생'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논픽션과 장르의 관습이 만나는 지점에 늘 흥미를 느껴온 내 개인적인 취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봉준호가 직접 언급하였듯 영화 <괴물>은 맥팔랜드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맥팔랜드 사건은 주한미군이 독성이 강한 포름알데히드를 무단 방류해 한강에 흘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맥팔랜드는 주한미국지위협정(SOFA)를 내세워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했다. 미군 당국은 한국의 재판권을 부인하며 판결을 무시하였고 맥팔랜드는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소장으로 진급하기까지 했다. 맥팔랜드는 사건이 폭로된 지 5년 후에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괴물>은 맥팔랜드 사건에서 그러하듯 프롬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하는 미군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한강으로 흘러간 약물은 괴물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미군에 의해 괴물은 탄생하지만, 영화에서 괴물을 해결하는 것 또한 미군이다. 괴물과 싸우다 부상당하는 미군 병사는 영웅으로 그려지고, 미국은 괴물 바이러스를 주장한다. 미국은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유가족들을 격리시키고, 도망간 강두의 가족을 추적한다. 이때 오염된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이다. 101)이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의해, 혹은 한국 군인들에 의해 한강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스의 보도는 '미군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정보도 밝힐 수 없다.'는 미군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는 한국 역시 아무것도 모른 체 미국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침내 미군은 에이전트 옐로우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국가적 재난 해결의 주도권을 쥐기도 한다. 이런 미군 주도적 상황은 국가적 재난의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한국 정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마치 식민지처럼 보일 만큼 나약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식민 안에서, 즉 한국 정부에 의해서 또다시 식민이 일어난다. 102)분단 체제하의 불완전한 국가를 지원한다는 핑계로 서울 한복판에 상주하고 있는 미군이 만들어낸 돌연변이는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낙오한 채 자살을 선택한 남자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대중의 여가 공간인 한강에서 생존해야 하는 강두의 가족, 그 안에서도 가장 어린 여학생 현서 역시 이런 현실에서 죽어간다. 103)정성일은 박현서가 강남의 기업 회장의 딸이었으면 그녀의 실종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언급하며 딸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외침은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자의 이상행동으로 치부되고, 일과를 마치면 매일같이 거주 공간인 한강공원으로 돌아와야 했던 소외계층민 소녀의 계급적 운명이라 표현하고 있다.

"아무도 내 얘길 안 들어줘요."
"왜 내 말도 말인데 안 들어줘"

위의 대사는 격리실에서 강두가 외치는 대사이다. 그러나 강두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

100) 봉준호 외, 『괴물』, 21세기북스, 2006, p.47.
101) 민경조,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를 통해 본 봉준호 영화의 공간적 시대 반영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6쪽.
102) 민경조,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를 통해 본 봉준호 영화의 공간적 시대 반영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3쪽.
103) 정성일, 「괴물적인 것, 삑사리의 정치학」, 『필사의 탐독』, 바다출판사, 2010, 341쪽.

않는다. 미국에 종속되는 무능력한 정부, 그리고 그런 정부에 통제당하는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사이다. 즉, 영화 <괴물>은 맥팔란드 사건을 모티프로 사용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식민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2. <괴물> 속 현실 – 386세대,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회의감 가득한 백수 삼촌 남일은 가족 중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다. 그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뉴스에서도 언급조차 해주지 않지만, 스스로 조국의 민주화에 몸을 바쳤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이다. 즉, 남일은 취업도 못 하고 특징도 없는 실패한 386세대의 대표 인물인 셈이다. 이때 386세대란 영화 제작 당시를 기준으로 30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남일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줄 수 없다는 무관심한 경찰의 태도에 직접 현서의 위치를 찾아내기로 하고, 학창 시절 함께 운동권이었던 선배에게 연락하게 된다. 통신사 회사에 다니는 선배는 남일과 다르게 양복을 차려입고 기름진 모습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 선배는 남일을 밀고하고 현상금을 받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사회 부조리에 함께 맞서던 정의로운 선배는 사라지고 자본주의 사회에 굴복한 타락한 선배가 남은 것이다. 에이전트 옐로우 살포 반대 시위하는 젊은이들과 최루탄같이 뿌려지는 에이전트 옐로우는 다시 학생운동의 기억으로 남일을 보내주지만, 남일의 화염병은 괴물을 맞히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386세대의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남일의 실패와 대비되는 현실에 큰 불만이 없어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선배의 모습은 정의를 좇는 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에 굴복한 자는 잘 지내는 현실을 비판한다.[104]

<괴물>에서는 경제개발 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가였던 윤사장과 패배자였던 노숙자의 대비를 통해 경제사회문제 또한 비판하고 있다. 영화 초반,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리자로 보였던 윤사장은 “끝까지 둔해 빠진 새끼들. 잘 살어, 들.”이라는 말을 남기고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한다. 이는 ‘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터이니 둔해 빠진 너희는 계속 살아라’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이는 자본가였던 자의 절망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개발정책의 폐해를 보여준다. 반면 한강에서 지내는 노숙자는 남일에게 대가 없는 연대를 해주는 인물이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라고 말하며 남일에게 소주병을 주고, 함께하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 연대임을 보여준다. 투신자살을 택해 괴물에게 먹힌 윤사장과 다르게 노숙자는 괴물에게 기름을 부어주어 괴물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사장, 노숙자가 그려지는 모습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과 대비되어 자본주의 현실의 폐해와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제안한다.

이렇게 영화는 남일과 선배, 윤사장과 노숙자라는 인물들의 대비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는 연출을 택하고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3. 현실에서 <괴물>의 반복

원효대교를 소독하던 방역 요원이 괴물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도 차에서 내려 만 원권 지폐를 줍는다. 위기 상황에서도 돈을 밝히는 모습은 세월호 선장을 연상시킨다. 텔레비전 속 뉴스와 바이러스를 주장하며 시간 끄는 정부는 세월호 사건 당시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와 허둥대던 정부의 초동 대처를 떠오르게 한다. 전광판에서 괴생물체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자 횡단보도에서 기침하는 한 남자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기침하면

104) 임정식, 「괴물영화에 나타난 영웅 탄생의 새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59(59), 2017, 116쪽.

코로나가 아닌 감기임을 열심히 해명해야 했던 코로나 19 초기 한국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얘기 다 들었어. 엉뚱한 애 손 붙잡고 뛰었다며! 네가 아빠냐? 그러고도 네가?”라며 괴물의 습격을 아빠 강두의 탓으로 돌리는 남일의 대사는 국가 시스템을 탓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성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10.29 이태원 참사를 현장에 간 희생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여론을 연상시킨다. 2006년에 2014년, 2019년, 2022년의 한국을 예지라도 한 듯 영화 속 상황들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마다 <괴물>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영화가 ‘현실을 비판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 반응하는 의견이나 움직임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괴물>에서 남일의 선배가 그러했듯 관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 부조리에 대해 무던해지며 또다시 부조리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현실 문제에 대한 인지가 사라지면, 과거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니들 방금 봤냐? 밑에 말이야, 물속에. 커다랗고 시커먼 거, 물속에. 정말 못 봤어?”
“끝까지 둔해 빠진 새끼들. 잘 살어, 들”

영화의 초반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하는 윤사장의 대사이다. 이때, 다리 위에 있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앞둔 윤사장의 눈에만 괴물이 보인다. 밤낮없이 침 흘리고 볼에 동전을 붙이며 자던 강두는 현서의 죽음 이후 두 눈을 부릅뜨고 옆에 총을 두며 괴물을 경계한다. 죽음을 앞둔 자의 눈, 딸을 잃은 자의 눈에만 괴물은 의식되고, 영화의 마지막 관객의 눈이 보는 한강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이런 한강의 모습은 몇 번이고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괴물>이 회자되는 이유 ‘잊힘’을 의미한다. 윤사장의 시신 기사에 “끔찍해”라고 채널을 돌리는 현서, 미국 상원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기사에 “테레비 재미 없다”고 말하는 세주, 발을 뻗어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강두. 영화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이들까지 무관심한 현실은 관객들의 무관심, 나아가 국민의 무관심한 현실을 비판한다. “둔해 빠진” 관객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뉴스에 무관심했던 현서, 세진, 강두의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영화는 관객에게 경각심이 드는 질문을 남긴다.

4.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의 의미

<괴물>은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적인 모습도 제시하고 있다. 남일은 실패한 386세대의 인물로 보이지만, 과거 그의 운동은 오늘날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가 떨어뜨린 화염병 속 불씨는 남주를 통해 마침내 괴물을 죽게 했다. 이런 남일을 영화 자체에 빗대어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불씨의 메시지를 <괴물>은 던지고 있다. 관객들은 괴물의 등장, 괴물 바이러스의 등장이라는 낯선 가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노, 정의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관객들이 연대하고 그 마음들을 모아 영화의 불씨를 사회에 날린다면, 영화에서 괴물이 죽어갔듯, 부조리한 현실은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괴물>처럼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도가니>가 있다.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어났던 아동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는 이 영화는 많은 사람에게 사건을 알리고, 현실 문제를 자각하게 했다. 관객들의 분노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가니법’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는 비판에서 나아가 관객과 상호작용하며 현실의 문제를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Ⅲ. 결론

본 고에서는 영화 <괴물>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며 영화가 비판하고자 하는 현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괴물>을 비롯한 현실 비판 영화들의 의미를 고민해보았다. 우선 미국 식민지로서의 한국 정부와 그 안에서 또다시 식민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무능력함과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패한 386세대 남일과 타락한 386세대 남일의 선배를 통해 정의로운 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는 잘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영화가 비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자본주의의 성공자 같았던 윤사장의 자살과 자본주의의 패배자 같았던 노숙자의 활약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개발정책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감독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때 남일-선배, 윤사장-노숙자라는 대비를 통해 감독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오늘날까지도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영화 <괴물>이 회자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엔딩의 한강 모습을 통해 '잊힘'이라는 이유를 살펴보았고, 뉴스를 외면해버리는 강두, 현서, 세주의 모습을 통해 '무관심'이라는 이유를 살펴보며 영화가 전달하는 경각심에 대해 느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괴물>에서 남일이 만든 화염병처럼 영화는 '현실의 부조리'라는 불꽃을 만들며, 이를 보는 관객들은 남주가 쏜 활처럼 영화의 불꽃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괴물>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영화 <도가니>와 도가니법을 예시로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들이 관객과 상호작용하여 현실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쌀, 배추 가격 폭락과 폭등으로 보는 농산물 시장 국가 개입의 필요성

: <화식열전>에 나타난 사마천의 경제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박상준

---

1. 머리말

2. 사마천의 경제관 - 사마천이 말하는 올바른 시장 경제

3. 농산물 시장 국가 개입의 필요성
   3.1. 사마천 경제관의 문제점
   3.2. 농산물 도매시장 독과점 방지 측면
   3.3. 생산자 보호 측면
   3.4. 소비자 측면

4. 맺음말

1. 머리말

올해 2022년 쌀값은 정부가 통계를 시작한 1977년 기준 가장 크게 폭락했다.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를 보면, 2019년 9월 4만6834원, 2020년 9월 4만8143원, 2021년 9월 5만4228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9월 4만725원까지 내려갔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쌀값은 28.3%나 떨어진 것이다. 이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던 쌀값은 약 1년 만에 폭락을 겪게 되었다.[105)]

올해 2022 이상 기후로 인해 고랭지 배추 농가에 큰 피해가 일어났다. 고랭지 배추는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배추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보통 산간에서 농사를 짓곤 한다. 2022년 기후는 오락가락했다. 비가 오지 않다가 한 번에 많이 오는 경우와 이상할 정도로 기온이 오르고 기온이 낮아져야 하는 시기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랭지 배추는 이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폭등을 맞이한 것이다. 9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9월 25일 배추 소매가는 한 포기에 9,544원으로 1년 전 가격인 5,671원과 비교해 68.29% 폭등했다. 8월 가격인 6,425원과 비교해도 48.54%가 오른 가격이다.[106)] 이로 인해 김치의 가격도 배추 가격폭등과 더불어 오르게 되면서 일명 '금(金)치'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다.

필자는 '화식열전'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국가가 경제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오늘날 자유 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근 재조명되고 있기에 전통사회에 사마천이 집필한 '화식열전'에서 얘기하는 경제관을 다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에 비춰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된 바로는, 사마천은 한 무제가 경제를 자유 방임경제에서 통제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화식열전을 통해 한 무제의 통제경제를 비판하고 자신의 경제관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107)] 이를 통해 사마천은 '화식열전'을 통해 오늘날의 '자유 방임주의'와 유사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유 방임주의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관이다. 사마천의 경제관과 자유 방임주의의 유사성 및 대칭성은 이어지는 본론에서 다시 언급하려 한다.

매년 나타나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 상황에 대해 사마천은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국가가 나서지 않는 것이 경제 이치에 옳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가?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에 있어 필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쌀값 폭락과 배춧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농산물은 인위적인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 매년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 매년 수급량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 여러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문제는 매년 나타난다.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매년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마천의 '화식열전'의 개념들을 살펴보며 그가 주장하는 경제관이 농산물 시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농산물 시장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왜 필요한 것인지 '화식열전'에 나타나는 그의 관점과 쌀, 배추 가격 폭락, 폭등 사례를 활용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2. 사마천의 경제관

2.1. 사마천이 말하는 올바른 시장 경제

> 노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시대는 이웃 나라와 서로 마주 보이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이며,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음식을 달게 먹고, 그들의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고, 풍속을 편안하게 여

105) 김용희, 「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대풍년 볏짚만큼 쌓이는 시름」, 『한겨레』, 2022.09.21.
106) 김진환, 「배추 1포기 1만 원 육박…김장 앞둔 상인·소비자 한숨」, 『뉴스1』, 2022.09.26.
107) 최순희 외, 「司馬遷의 화식열전에 나타난 경제치국관과 경영관」,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06, p.40.

> 기며, 자신들의 일을 즐거워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아, 요즘의 풍속을 옛날처럼 돌이키려 하거나 백성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은 아마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
> 눈과 귀는 아름다운 소리나 모습의 좋은 점을 힘껏 보고 들으려 하고, 입은 여러 고기 등의 좋은 맛을 보고 싶어 한다. 또한,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은 권세와 재능이 가져다준 영화로움을 자랑하려 하니, 이러한 풍속이 백성들을 전염시킨 지 이미 오래되었다. 때문에 오묘한 이론을 가지고 집집마다 들려주어도 도저히 교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를 가장 잘하는 자는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그다음은 이익으로써 백성들을 이끌고, 그다음은 깨우치도록 가르치고, 또 그다음은 백성들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사람이고, 가장 못 하는 자는 백성들과 다투는 사람이다.[108]

화식열전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사마천은 화식열전에 처음부터 노자의 도덕경 80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자의 말은 '무위자연'의 개념인데, 무위자연이란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 속세의 삶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사마천이 도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109]에서 도가의 개념 중 하나인 '무위자연'을 경제관에 대입해 본다면, 경제에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자유 방임이라는 경제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마천은 자유 방임 경제체제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 개념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인 정치하는 자에 관해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하는 자는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이후에 백성을 이끌고 가르치고 바로잡는 것을 넘어 가장 못하는 자는 백성들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한 점에서 국가가 백성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정치를 못 하는 자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국가가 백성에 가하는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한다는 자유 방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마천이 말하는 올바른 경제관이 국가가 백성의 경제활동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오늘날 경제관 중 하나인 자유 방임경제와 유사하다는 견해다.

3. 농산물 시장 국가 개입의 필요성

3.1. 사마천 경제관의 문제점

필자는 사마천의 경제관을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일단 한국 농촌 시장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통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도매-소매-소비자를 기본 틀로 가져간다. 이러한 유통 구조가 나타난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산성으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판매와 구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은 영세한 전국의 많은 생산자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에 개개인의 생산자로부터 전국의 많은 소비자까지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한곳에 모아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매 과정 중 경매라고 한다. 결국, 전국 곳곳의 농산물이 한곳에 모여서 그날의 가격이 결정되고 다시 전국으로 운송되어야 비로소 전국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선도 유지 및 운송의 어려움, 다수의 분산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수급구조, 높은 감모율은 유통효율을 떨어트려[110]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시키기에 생산자는 합당한 판매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소비자는 직거래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산물 유통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도매시장의 독점,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 만약 사마천의 경제관을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적용한다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

108) 사마천 지음; 정범진 번역, 『사기 열전(下)』, 까치, 1955, pp.1171~1172.
109) 박병기, 「史記 貨殖列傳에 보이는 경제사상과 경영관의 현대적 재조명」, 『공주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2021.02, p.21.
110) 심춘수, 「식품 경제의 이해」, 『동국대학교』, 2022, pp.37~38.

3.2. 농산물 도매시장 독과점 방지 측면

앞서 말했듯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도매-소매-소비자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도매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유통구조의 문제라면 유통구조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도매 단계가 사라지게 된다면 가격 결정 등의 도매 중요 업무를 다른 곳에서 감당해야 하고 이는 생산자가 떠맡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유통에서 도매 단계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나타나는 농산물 시장에서의 문제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중간 상인들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한 과도한 유통 마진이다.[111] 만약 국가가 이러한 농산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번 연도에 나타난 배추 가격폭등으로 얘기해보자면, 기후 문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자 배추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이러한 배추 시장에 사마천의 경제관을 적용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배추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 배추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배추 생산량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양이 많아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본적인 시장 원리다. 하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매매참가자 사이에서 배추 가격에 대한 담합이 일어날 수 있고 배추 구매, 판매량의 조절 등으로 배추 시장에서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연도 쌀값 폭락도 마찬가지다. 쌀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쌀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쌀은 도매시장에서 많은 양이 판매되지 못하여 생산자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 역시 앞서 배추 시장에서 말한 구매, 판매량 조절 등의 방법으로 그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안법 제3 장의 내용을 통해, 도매시장에 들어온 농산물의 전량 처리 및 수탁판매, 경매, 입찰의 정가 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112]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1994년부터 산지에서 소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유통구조개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했다.[113] 위의 이유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3.3. 생산자 보호 측면

대한민국 농가는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고 수도 많을뿐더러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 나타난 쌀값 폭락과 배춧값 폭등 등 가격 변동에 영세한 농가들은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중 쌀값 폭락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난 문제다. 소비자의 구매보다 쌀의 생산량이 현저히 높아 쌀값이 폭락한 것이다. 이에 생산자는 계속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힘들여 기른 쌀이 있는 논을 갈아엎기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14] 이렇게 논을 갈아엎고 쌀을 시장에 내보내지 않고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연도 폭락한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쌀 45t을 구매해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다.[115] 쌀 시장에 내보내는 쌀의 양을 줄여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폭락하는 쌀값은 그 양이 계속 늘어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끝없는 폭락을 마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및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해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돕는 제도인 최저가격제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중인데, 이러한 제도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에 피해를 받을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116]

> 값이 올라도 80전을 넘지 않고, 떨어져도 30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농민과 장사치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가격이 일정하도록 물가를 조정하고, 관가가 세금과 시장 공급이 적당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입니다.[117]

화식열전에 나온 계연의 이야기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최저가격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단지 일종의 해결 방법으로, 제도,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법 마련에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사마천은

111) 양승룡 외,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 『시선 집중 GSnJ』, 2013.05, p.5.
1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산물도매시장.
113) 이병훈 외, 「농안법 개정이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축산경영학회』, 2002, pp.72~73.
114) 이영실, 「쌀값 폭락하자 논 갈아엎는 농민 "원가라도 보장을"」, 『국제신문』, 2022.09.21.
115) 박서경, 「폭락하는 쌀값… 정부, 쌀 45만t 시장격리 조치, 『매일안전신문』, 2022.09.26.
116) 원재정, 「농축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한국농정』, 2014.04.13.
117) 사마천 지음; 정범진 번역, 『사기 열전(下)』, 까치, 1955, p.1176.

생산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수는 있어도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은 반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 시장에 제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불안정한 농산물의 비탄력적인 수급구조로 나타나는 공급 과잉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4년 기준 농산물의 소비자 지불 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취율은 55.2%밖에 되지 않는데[118], 이는 위 3.1.에서 언급했던 도매시장의 독과점 문제, 높은 운송 비용 등의 이유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재배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자 보호를 위해 3.2.와 위에서 언급한 도매시장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안법, 최저가격제,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가격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3.4. 소비자 측면

우리나라는 매년 농산물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일을 겪고 있다. 이번 배추 가격폭등만 보더라도 배추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일시적으로 마트 등에서 배추와 김치를 볼 수 없어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에 정부는 추석 전 3주간 배추 총 1만t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119] 이러한 노력에도 가격폭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추가로 풀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정부가 비축 물량을 농산물 시장에 공급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조절한 것이다. 이번 배추의 가격폭등은 하남 가을배추가 나오기 전까지 이어졌는데, 정부가 많은 비축 물량을 배추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다면 하남 가을배추가 나오기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배추는 정상적인 가격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부의 공급 배추가 없는 배추 시장에서의 하남 배추의 물량이 소비자의 구매량을 따라가기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소비자는 매우 비싼 가격에 배추를 구매하게 되거나,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기존 연구된 바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산지의 저온저장시설을 사회자본 차원에서 확충하여 채소의 저온저장을 늘려 시간적 분산 출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농산물 재배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농산물이 한꺼번에 출하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농산물 출하가 미뤄지면 경매가가 치솟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대도시 인근에 저온저장시설을 포함한 소비지 물류센터를 확충하여 소비지 분산 출하를 돕고 태풍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적기 공급 곤란 등 물류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120]이 있었다. 또한, 위 3.2.에서 언급한 정부의 도매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제도 역시 소비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농산물 공급 과잉이 일어나더라도 도매 과정에서 가격을 높이고 또 유통 비용까지 더해져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체감할 수 있다. 정부의 도매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4. 맺음말

필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국가가 경제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화식열전'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회에 사마천이 집필한 '화식열전'에서 얘기하는 경제관을 다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에 비춰볼 필요성이 있다.

사마천의 경제관은 도가의 영향을 받은 점과 화식열전 초반 노자의 도덕경, 무위자연의 내용, 정치를 잘하는 자는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자라고 언급한 점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관 중 하나인 자유 방임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사마천의 경제관을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에 적용할 시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은 사마천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

118) 심춘수, 「식품 경제의 이해」, 『동국대학교』, 2022, p.37.
119) 이은영, 「추석 전 '金배추', 지금은 '다이아배추' 됐다… 작황 부진에 가격폭등」, 『강원도민일보』, 2022.09.16.
120) 박종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2010.12, p.49.

대한민국 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산성으로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이 필수며, 그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할 의무를 지녔다,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도, 정책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쌀 가격 폭락과 배추 가격폭등의 사례를 통해 도매시장 독과점, 생산자 보호, 소비자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은 현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매력적인 산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의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농업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용희,「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대풍년 볏짚만큼 쌓이는 시름」,『한겨레』, 2022.09.21.

김진환,「배추 1포기 1만 원 육박…김장 앞둔 상인·소비자 한숨」,『뉴스1』, 2022.09.26.

최순희 외,「司馬遷의 화식열전에 나타난 경제치국관과 경영관」,『한국경영교육학회』, 2012.06.

사마천 지음; 정범진 번역,『사기 열전(下)』, 까치, 1955.

박병기,「史記 貨殖列傳에 보이는 경제사상과 경영관의 현대적 재조명」,『공주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2021.02.

심춘수,「식품 경제의 이해」,『동국대학교』, 2022.

양승룡 외,「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시선 집중 GSnJ』, 2013.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병훈 외,「농안법 개정이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국축산경영학회』, 2002.

이영실,「쌀값 폭락하자 논 갈아엎는 농민 “원가라도 보장을”」,『국제신문』, 2022.09.21.

박서경,「폭락하는 쌀값… 정부, 쌀 45만t 시장격리 조치,『매일안전신문』, 2022.09.26.

원재정,「농축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한국농정』, 2014.04.13.

이은영,「추석 전 ‘金배추’, 지금은 ‘다이아배추’ 됐다… 작황 부진에 가격폭등」,『강원도민일보』, 2022.09.16.

박종은,「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유통경영학회』, 2010.10.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경제와사회 명작세미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 경제

: 미국 금리 변동을 중심으로

경영대학 경영학과 진해주

---

1. 서론

2. 본론

2.1. 21세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2.2. 세계 패권과 경제구도
2.3. 세계 경제의 전망

3. 결론

1. 서론

공산주의는 단순히 빨갱이 사상으로 치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공산주의는 불온한 사상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통념상으로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의 철폐, 국유화, 계획경제 등을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으로 내세웠다고 알려져 있다.[121]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이 단어들만으로 본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든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가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본다. "계급과 계급 적대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우리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122]라는 마르크스의 표현을 통해 공산주의 또한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거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회의 오해다.[123]

계급 대립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진보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반복되며 흘러왔다. 마르크스도 모든 사회의 역사가 계급투쟁을 통해 진보하고 이어져 왔음을 인정한다. 단 기존의 복잡하게 서열로 등급화되어있던 계급 제도가 아닌 사회의 계급을 적대적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현대 부르주아지는 공업 발전 과정의 자체적인 산물로서 생산양식과 교환양식에서 발생했다. 부르주아는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사회의 지배권을 획득하면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금전적 관계로 얽힌 자본으로 연결시켰다. 현금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전의 감성적이고 목가적인 관계는 부르주아가 등장한 이후 전부 자본적인 관계로 바뀌었고,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과잉생산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자가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자본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 만능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현상은 어쩌면 마르크스가 우려했던 자본주의의 비참한 성격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부르주아, 즉 자본은 한 개인뿐 아니라 소중한 관계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가치로 전락하게 했다. 당시 부르주아지가 추구했던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은 오늘날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작동되고 힘의 균형이 조절된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 대국과의 교류가 많아서 현재까지 대외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124]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25] 마르크스는

---

* 부르주아지란 현대 자본가들,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자들, 고용자들의 계급을 뜻한다. 프롤레타리아트란 그들 자신의 생산수단이 없어서 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현대 임금노동자들의 계급을 뜻한다. [1888 영어판에 붙인 엥겔스의 주]

121) 정성진(Jeong Seongjin). "마르크스 공산주의론의 재조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12.1 (2015): 12-46.

122) Karl Marx·Fridrich Engels, *공산당 선언*, 권화현 역,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7), 255p.

123) 정성진, 5p.

* 물질 만능주의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물질만능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124) 이성수. "미국금리 변동에 관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분석 및 적정 외환보유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지배 구조를 통해 억압과 착취 구조를 설명한 바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통해 부르주아의 억압적인 상황을 탈피하고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했다. 본고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관점에서 21세기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세계의 고금리 현상을 분석하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21세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마르크스의 평등 추구 공산주의 이념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전보다 21세기 들어 자본이 더욱 중시되고 정보, 통신 등의 기계적 문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의 개별적 성격 상실은 더욱 심화되었다. 자본주의의 자기모순은 자본주의적인 사유제도와 그 밑에서 발전해온 생산력 간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사회적으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의 계급 대립으로 나타난다.[126] 마르크스가 저서를 통해 서술한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계급 구조는 현대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급 구조는 사회의 지배 체제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고 자본이 존재하는 한 지배-피지배 구조, 착취자-피착취자 간의 투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공업의 발달로 기계가 도입되고 이로 인한 대량생산과 분업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는 단순한 기계의 부속물 따위로 여겨졌다.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로 사회가 진보를 거듭하며 노동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게 되었는데도 노동력의 착취로 인한 노동자 인격의 상실은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본주의하에서는 그 현금 사용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며 동일한 양의 현금으로 타인보다 더 높은 질과 양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현금의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효율을 중시하므로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관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효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만 중시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에게 가해지는 개별성의 상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사유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르주아의 횡포 때문에 마르크스는 일반적 사유재산이 아닌 부르주아에 대한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국유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의 철폐를 외칠 때 자본에 따라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이기심 정도를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자본의 발달과 노동자의 단결이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공통의 과정이다. 노동자의 단결 확대와 동시에 자본도 성장하면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부 격차는 마르크스 생애 당시보다 증가했다.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는 눈에 보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의 비가시적인(주식, 코인 등) 현금도 축적하며 부를 쌓아가고 있다. 이는 부르주아의 직접적인 프롤레타리아 지배 양상과 함께 간접적인 지배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

125) 진가. "미국의 금리변화가 주변국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1. 대전

126) 강재윤. "세계와 공산주의: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오늘의 자본주의." 북한 ,3월호 (1986): 102-105, .

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더 간편하게 만든다.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등은 표면적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자본 보유를 동등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점 더 두 계급 간의 간극이 벌어지도록 방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프롤레타리아가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부르주아의 부정적 이면을 포착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의 흔적을 기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본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주아의 자본이 축적될수록, 노동자의 인격적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락한다.

2.2. 세계 패권과 경제구도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구조는 개인과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서도 발생한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미개국과 반미개국을 문명국에, 농민의 국가를 부르주아의 국가에, 동양을 서양에 종속시켰다.[127] 부르주아는 인구와 권력,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 정치의 중앙집권화를 단행했다. 국가 내에서 중앙집권이 이루어진 후에는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국가까지 시야를 확장해 그에 따른 이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익 추구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전쟁, 영토를 귀속하고자 폭력을 가하는 여러 차례 시도는 모두 부르주아적 가치를 지닌 생산물 시장의 확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르주아는 이러한 패권 다툼에 범세계적 가치를 부여해 자본을 형성하고 증식하고자 한다. 국가 간 부르주아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은 역시 자본이 거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저항하고자 시도한다고 해도 두 계급 간 자본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모순적이게도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임금 노동을 지불해야만 하므로 부르주아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 국가 내에서의 프롤레타리아는 개인적 프롤레타리아로서 존재하지만, 국가 간의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구조에서 프롤레타리아는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현재 세계에서 국가 차원의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결정은 크게 세계대전을 통해 정리되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부르주아가 되어 세계 연합체를 형성했고, 여러 세계 기구를 통해 세계의 힘을 집중하는데 몫을 다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선진국에게 구호라는 명목하에서 매 순간 관리, 감시를 받는다. 부르주아 국가들의 지배 체제는 그들의 역사 자체가 긴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국가 간 교역의 확대는 국가 차원의 부르주아 세력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 자본 가치를 하나로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설정하여 화폐 가치의 기준점을 두는 데에서부터 이어졌다.

2.3. 세계 경제의 전망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불확실성이 만연한 모습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호 연속적이고, 동질적, 동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28] 세계화는 프롤레타리아의 단

---

127)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233p.

* 금리를 한꺼번에 0.75bp(베이시스 포인트)올리는 것.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금리는 0.25bp씩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가 커질 때는 이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이언트 스텝 [giant step] (한경 경제용어사전)

128) 김형진. "국제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

결 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확장과 함께 부르주아의 세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자본의 집중화 문제를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화폐 가치 기준의 규정으로 자본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생기니,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심은 증폭되고 평등의 실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변화는 자국 경제 운영 외에도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29] 실제로 미국 연준의 2022년 11월 2일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은 다른 국가에 국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5개월 간 네 차례의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다. 미국 금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외채위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의 금리, 환율, 생산, 인플레이션, 국제 원자재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0]

이상의 문제점들은 '달러본위제도'가 유발한 구조적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부르주아로서 작동하며 국제 금융시스템을 창조하고 있다.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금융경제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이어 각국의 자산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지배-피지배 관계 속에서 부르주아의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되면 프롤레타리아의 몰락 유무도 가늠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의 지배 구조를 철폐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지 전체의 완전한 소유로서의 붕괴는 아니기 때문이다. 평등을 침해하고 국유화를 위한 재산까지 소멸하기를 시도하는 것은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이념이 아니다. 따라서 달러화의 시스템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 세계 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메커니즘의 작동이 필요하다.[131]

3. 결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사적 자유를 억압하고 소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소수만이 아니라 다수 혹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적 가치 속에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이념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진 이기심으로부터 탈피해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좇을 수 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상이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 자본의 소유로부터 얻는 특수한 혜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는 계급 간의 대립으로 인해 진보의 과정을 겪기에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간 적대적인 계급의 완전한 철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부정적 이면을 수정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공산주의적 가치를 대입해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진보로 나아가는 동시에 이상 사회로의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현상에 대입하며 부르주아-프롤레

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05. 경기도.

129) 어르덩. "미국의 금리변화가 일본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20. 서울

130) 어르덩, 17-18p.

131) 김형진, 17p.

타리아의 관계를 확장해 보았다. “부르주아지는 인구를 밀집시키고, 생산수단을 집적시키며, 재산을 소수의 손에 집중시킨다. 그 필연적 결과는 정치의 중앙집권화였다. 별개의 이익, 법률, 정부, 조세체계를 가진 독립적인 혹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던 지방들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률, 하나의 민족적 계급 이해, 하나의 국경, 하나의 관세를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합쳐지게 되었다.”[132]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패권 국가의 입장을 자본적 가치로 환산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경제적 구조로 얽혀있는 세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며 진보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의 충돌은 충돌 그 자체로서 진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계급투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결국 계급 간 투쟁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보는 반드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 이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점점 극심하게 인격적 가치가 수단으로 간주되는 자본주의의 폭력적 형상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주의의 평등적 가치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은 부르주아에 의해 본래 가치를 상실한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비참하게 여겨지는 부르주아적 성격을 폐지하기 위해 자본주의에서 더 견고하게 자유를 열망할 시점이다.

132)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234p.

참고문헌

서적

Karl Marx·Fridrich Engels, 공산당 선언, 권화현 역,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7).

학술논문

정성진(Jeong Seongjin). "마르크스 공산주의론의 재조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12.1 (2015).

강재윤. "세계와 공산주의: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오늘의 자본주의." 북한 ,3월호 (1986): 102-105.

학위논문

이성수. "미국금리 변동에 관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분석 및 적정 외환보유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진가. "미국의 금리변화가 주변국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1. 대전.

김형진. "국제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05. 경기도.

어르덩. "미국의 금리변화가 일본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20. 서울.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우수상

자연과기술 명작세미나

개발적 복원과 재야생화(rewilding)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남도원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분석(비평)개념 제시

Ⅱ. 본론

1. 도시 공간의 생태적 공간화(만들어진 자연)
2. 청계천복원사업
   (1) 만들어진 청계천
   (2) 실패한 청계천복원사업?
3.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
4.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인간의 無역할론
5. 자연을 믿어보자, '내버려두기'와 '재야생화'

Ⅲ. 결론

Ⅰ. 서론

1. 문제제기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늘어난 인간의 경제(생산)활동은 생태계의 오염·파괴를 불러일으켰고, 세계 각국은 심각하게 인식하여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은 역사적 과정에서 하천과 여러 형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였고, 하천을 다양하게 변경·활용하여 왔다. 그 결과, 하천의 자연적 형태(구조)가 인위적 형태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천 주변에 자생하는 식생이 사라졌으며, 결국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천의 구조는 지극히 단순한 모습을 띄게 되었고, 그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자연생태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청계천 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계천은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2005년 복원된 도심 한복판의 하천으로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친환경적 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생태적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었고, 직선적인 수로로 조성하여 생물이 살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다. 즉, 서울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하천의 자연적 재생보다는 기계적·공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중심적으로 강을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다(박미진, 2016.05.16.).[133)]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생태하천정비사업과 같은 하천의 복원·보호 전략이 과연 생태친화적인 것인지, 오히려 인간중심적 사고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비평)개념 제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자생적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생태하천정비사업을 비판하고,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배리 카머너의 『원은 닫혀야 한다』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관점 및 관련 '생태학 4원칙'을 참고하여 새로운 대안의 방향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시 공간의 생태적 공간화(만들어진 자연)

과거에는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할 시, 주변 환경과 분리된 공간으로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 외부환경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설계하고, 약간의 숲이 조성된 경관으로 설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말 그대로 '도시의 생태화', '자연의 생태화'라고 하는 도시계획 '작업'의 결과물이다. 즉, 인간의 주도하에 자연을 만드는 것, '만들어진 자연'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래 '만들

133) 박미진, "청계천은 '누구'의 것인가", 서울시립대신문, 2016.05.16.,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1

어진 자연'은 인간 활동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일부나마 회복하자는 취지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인간의 선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만들어진 자연'은 생태계 복원과 인간의 필요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적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계천복원사업

(1) 만들어진 청계천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청계천은 대표적인 '인공물'로서 '만들어진 자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현대 도시에서 안 만들어진 자연이 어디 있겠냐 싶겠냐마는, 지금의 청계천은 모든 제반 사항이 기술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청계천은 본래 1950년대 이전에는 실개천처럼 흐르는 한강의 지류이었다. 당시 청계천 인근은 대표적인 빈민 슬럼가였고, 청계천의 오염된 물로 인하여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도시개발 목적에서 청계천 복개(하천이 흐르는 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것)가 이루어졌고, 각종 고가도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소멸된 청계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문화·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여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엄밀히 말하면 강물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공적으로 정수한 수돗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매일 약 4만t 정도를 끌어들이고, 청계천 하부에 설치된 수로를 통해 인공펌프로 뿜어내어 방류되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 역사 주변에서 유입된 지하수를 모아 매일 약 2만t이 섞여 흐르고 있다. 한편, 청계천 주변 수변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당국이 지정한 식물만을 심을 수 있으며, 어류 방류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풀어놓은 어류만 살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며, 한때는 일부 멸종 위기 어종의 개체 수 확대를 위해 치어를 인위적으로 방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처럼 청계천도 인간의 선호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천변에 풀이 무성하여 경관에 해를 끼친다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풀을 잘라내기도 하였으며, 시민의 청계천 접근성을 높이고자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각종 산책하기 좋은 이동통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서울시는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숭인동에 고층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계획하기도 하였다(최재원, 2018.10.25.).[134] 이에 관하여 시 당국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도시 환경의 개선'은 누구의 환경 개선을 말하는 것인가?

(2) 실패한 청계천복원사업?

그렇다면 청계천복원사업은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단순히 주변 도시경관사업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하천과 천변 본래의 자연환경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생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금까지 종종 발생하였다.

실제, 매년 여름 폭우가 내리면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청계천의 하수관로가 빗물과 오폐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이고, 폭우가 내리면 수문이 자동 개방되도록 설계하여 하수관로 내 오폐수가 청계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조은지, 2017.08.07.).[13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과 오폐수를 따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

---

134) 최재원, "청계천변 숭인동에 21층 오피스텔", 매일경제, 2018.10.25., https://academy.mk.co.kr/news/view.php?year=2018&no=667407

135) 조은지, "서울 청계천서 물고기 500마리 폐사", YTN, 2017.08.07.,

지만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청계천 하류에서는 한강 하류보다 녹조가 심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청계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재복원하기 위하여 '청계천 개선·보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역으로 청계천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단순 토목·조경 공사로 전락하여 주변 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두고, 본래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3.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

이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가하천에서까지 시도되고 있는데, 최근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이 사업은 대구 도심의 금호강 주변을 개발하여 '시민 이용' 중심의 강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 '금호강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촌유원지 주변에는 생태수로와 비오톱(야생 생물의 서식과 이동에 도움이 되는 숲, 하천, 습지 등)을 복원하고, 샌드비치, 수변무대 등을 조성하여 생태·문화·관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아크문화관 일대는 야생화정원과 관광보행교를 설치하고, 금호강에 몇 안남은 안심습지, 반야월습지, 팔현습지 등에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호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지점에 생태거점과 강 곳곳에 비오톱 조성, 수종개체·수량확보·수질개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단체는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사업이 자연에 대한 배려·공존·공생을 위한 비전이 철저히 배제된 개발계획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미 금호강의 둔치에는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심지어는 물놀이시설까지 마련된 상황이며,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시는 하중도와 그 상류 일대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레저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이 지역 일대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의 집단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정수근, 2022.12.03.).[136]

금호강은 한때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산업 오폐수와 생활하수로 '죽어버린 강'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강이다. 즉,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심 속에서 그나마 건강하고 자연적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손'을 타는 순간, 금호강에 서식하는 여러 야생동식물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국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금호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중심적인 토건사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하천 관리를 이유로 금호강 및 인근 지류의 하중도를 없애버렸는데, 서식지를 잃은 수달이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도중 로드킬로 인하여 폐사하는 사건이 수없이 발생되고 있다(심병철, 2022.04.29.).[137]

4.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인간의 無역할론

---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070005224269

136) 정수근, "수달이 사는 금호강마저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 하는가", 프레시안, 2022.12.0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113374668918

137) 심병철, "'사라지는 보금자리' 위기의 대구 신천 수달", 대구MBC, 2022.04.29., https://dgmbc.com/article/m4W4JMn1n5oWk-CMqh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도시의 생태화’라고 하는 도시계획 작업이 결코 생태친화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사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기저에는 인간의 개입으로 하천을 기술적·공학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인간중심적 자연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과학기술이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었는데, 그 과학기술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기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을 망친 방법으로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누가 이러한 논리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천을 포함한 생태계복원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시작은 먼저 생태계 복원에서의 인간의 역할에 대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균형이란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며 조절과 조정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 역시 자연이 이루는 균형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가끔씩 인간이 이런 상태를 자의적으로 바꾸곤 한다. 그 결과 인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생긴다.”(카슨, 2011)[138]

“문제를 해결한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병을 옮기는 해충을 없애서 전염병을 통제했다는 빛나는 승전보는 자주 들려오지만 그 반대편의 이야기, 즉 실패에 관해서는 감춰져 있다. 해충이 인간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놀라운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짧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 나쁜 점은 우리 스스로 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카슨, 2011)[139]

미국의 환경운동가 레이첼 카슨은 자신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DDT 등 살충제를 통한 화학적 방제법 위험성을 알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이 인간중심적이고 인간편의적인 생태관을 비판한다. 이 책이 나온 지 올해로 60년째, 오늘날의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인간과 하천은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일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이 말인즉슨, 인간과 하천이라는 구성 요소는 생태계라는 공간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생적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연을 기계적·환원적 해법으로 통제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생각 기저에는 인간중심적 자연관이 흐르고 있다. 카슨이 지적한 바는 생태하천정비사업이라는 범위로 한정하여도 거의 대부분 적용되는데, 앞서 말한 청계천 재복원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돌무더기 시설과 식생방틀이 토사에 묻히면서 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천폭이 더욱 좁아져 유속이 빨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서식하던 참갈겨니 산란 장소마저 파괴되는 등 청계천 수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되려 남기게 되었다(강병용, 2018.04.03.).[140]

따라서 인간은 생태계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생태하천복원 및 보호에 있어 인간의 역할은 없다(無)고 할 수 있다.

5. 자연을 믿어보자, ‘내버려두기’와 ‘재야생화’

카슨은 “우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철학을 바꿔야 하며 인간이 우월하다고 믿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 자연이 인간보다 특정 생물체의 수를 조절하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

138)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 2011. 『침묵의 봄』, 김은령 역, 에코리브르, p.275.
139)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 2011. 『침묵의 봄』, 김은령 역, 에코리브르, p.294.
140) 강병용,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생태계 더 나빠져”, 천지일보, 2018.04.03., https://www.newscj.com/508240

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해충 방제와 관련하여 화학적 살충제 대신 생물학적(자연적) 방제법을 제안한다(카슨, 2011).[141]

또한 카슨과 함께 근대 생태학의 창시자로 손꼽히는 배리 카머너는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연이 만든 유기화합물은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인위적인 화합물은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여갈 것이라고 말한다(카머너, 2014).[142]

생태계 복원과 보호의 중요성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오늘날, '환경보호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나날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실상은 과거와 다를 바 없고, 어쩌면 환경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카슨과 커머너의 주장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즉,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야생화(rewilding)'이라는 생태계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재야생화란 생태계의 자생력에 중점을 두는 보호 전략이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물과 동식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재야생화 개념에 기초한 여러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 네덜란드는 산업용지로 쓰이다 버려진 간척지에 여러 초식동물들을 풀어놓고 관찰하였는데, 초식동물의 배설물이 곤충을 유입시키고, 또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들이 연이어 유입되면서 생물 스스로가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해당 환경훼손지역의 본래 포식자 동물(회색 늑대)을 유입시켜 관찰하였는데, 이후 풀뿌리와 작은 나무를 먹어치우던 포유류의 개체 수가 자연히 감소하였고, 식물들이 늘어났으며, 작은 초식동물이 유입된 것이다. 인간의 개입이라곤 회색 늑대를 들여온 것뿐이었다(한성주, 2021.04.24.).[143]

더 나아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수동적 재야생화' 사례도 존재한다. 전쟁 또는 재난으로 인간이 진입이 차단된 지역에서 생태계복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체르노빌 원전 내부를 원격으로 탐사한 결과, 일종의 버섯류가 방사능을 흡수하여 성장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발견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무장지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 비무장지대에는 인적이 끊기게 되었고, 그곳은 수많은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공간이 된 것이다.

요컨대 재야생화의 요지는 자연의 힘을 믿어보자는 것이다. 이 글의 직접적인 주제인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하천에 대해 (실상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보호기술의 적용 대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인공 구조물을 해체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개입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거기까지면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생태계 보호의 일환으로 생태하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업의 결과는 하천에 대한 인간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 인간의 만족에 기여했을 뿐이다. 어쩌면 생태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잘 포장된 인간 욕심의 산물이 아닌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

따라서 진정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그저 하천을 내버려두는 역할을 맡아야

141)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 2011.『침묵의 봄』, 김은령 역, 에코리브르, p.290.
142) 배리 카머너(Barry Commoner), 2014.『원은 닫혀야 한다』, 고동욱 역, 이음. p.45-49.
143) 한성주, "진정한 자연보호 전략은 그냥 내버려 두기", 쿠키뉴스, 2021.04.24.,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30215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개입한 인공구조물은 없애고, 자연의 생명력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멀리서 지켜보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단할 수 없지만,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강은 본래 인위적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생태계복원 및 보호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레이첼 카슨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일에만 관심을 보인다. 문제가 즉시 드러나지 않고 그 형태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무시하고 그 위험을 부정해버린다.”라고 말한다(카슨, 2011).[144] 생태하천정비사업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천복원기술이 실상은 하천의 자연적 재생력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위와 같이 비일비재하다. 시민의 즉각적 만족을 위하여 근시안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복원 및 보호 기술이 당장 내일의 훼손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44)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 2011.『침묵의 봄』, 김은령 역, 에코리브르, p.218.

참고문헌

(1)서적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 2011.『침묵의 봄』, 김은령 역, 에코리브르.
배리 카머너(Barry Commoner), 2014.『원은 닫혀야 한다』, 고동욱 역, 이음.

(2)기사

박미진, “청계천은 ‘누구’의 것인가”, 서울시립대신문, 2016.05.16.,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1
최재원, “청계천변 숭인동에 21층 오피스텔”, 매일경제, 2018.10.25.,
https://academy.mk.co.kr/news/view.php?year=2018&no=667407
조은지, “서울 청계천서 물고기 500마리 폐사”, YTN, 2017.08.07.,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070005224269
정수근, “수달이 사는 금호강마저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 하는가”, 프레시안, 2022.12.0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113374668918
심병철, “‘사라지는 보금자리’ 위기의 대구 신천 수달”, 대구MBC, 2022.04.29.,
https://dgmbc.com/article/m4W4JMn1n5oWk-CMqh
강병용,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생태계 더 나빠져”, 천지일보, 2018.04.03.,
https://www.newscj.com/508240
한성주, “진정한 자연보호 전략은 그냥 내버려 두기”, 쿠키뉴스, 2021.04.24.,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30215

장려상

자기표현글쓰기

지루해, 정말

문과대학 영어통번역학과 송현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떠나가는 손님의 뒤통수에 오늘도 인사를 한다. 문득 뒤통수에 대고 인사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기는 했을까. 하기야 나도 기계적으로 인사하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손님이 나가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온다. 냉기가 매장 안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가며 순식간에 내 몸 전체를 휘감았다가 사라진다. 추위로 인한 잠깐의 움츠림 뒤에는, 다시 반복적인 업무의 시작이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마치 먹고 마시고 움직이며 숨 쉴 수 있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나는, 동네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다.

이제 막 나이가 차서 일을 구할 수 있게 된 대학생들에게 카페 아르바이트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한다는 학생들 중 카페에 지원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이니까.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로 손님을 응대하는 친절한 직원이 된 자신의 모습과 능숙하게 샷을 뽑아내는, 무언가 전문적인 포스를 풍기며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 하면 정말이지 이만한 아르바이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뿐인가? ‘카페’라는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과 평화로운 분위기,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과 한 켠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복작거림,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원두를 갈아내는 소리, 볶은 원두에서 나는 고소하면서도 쌉쌀한 향기와 오븐에 갓 구워낸 향긋한 빵 냄새…. 카페의 모든 것들이 오감을 자극하며 유혹해 오는데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는 카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운 좋게 집 앞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손님 응대 매뉴얼을 외우고, 다양한 케이크와 음료의 이름을 외우고, ‘이건 무슨 맛이에요?’, ‘이거 달아요?’하며 물어오는 손님들의 질문에 대비해 어떤 맛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숙지하고, 음료를 만드는 법과 가게를 청소하는 순서와 방법을 배우고 하다 보니 몇 달이 흘렀고, 배운 것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데까지 또 몇 달이 걸렸다. 일이 손에 익기 전까지는 매 순간이 새로운 자극이었고, 도전이었다. 남에겐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게임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깨는 듯한 기분이 들어 일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일하러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이 재미를 오랫동안 느낄 수는 없었다. 일이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매번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매장 청소와 도구 관리, 거기서 거기인 손님들의 주문,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똑같은 질문들-‘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드시고 가세요?’-, 닦아도 닦아도 계속 생기는 설거지, 조선 왕의 묘호를 외우듯 이제는 줄줄 읊을 수 있는 음료의 레시피에 점점 질려갔고, 싫증이 났다. 누구나 반복되는 일상에는 무료함과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기계적인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고 힘들게만 느껴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죽은 후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여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 인물인데, 이후 저승에서 큰 돌을 가파른 산 위로 올리는 벌을 받게 된다. 그가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린 돌은 밑으로 굴러내려 가고, 다시 그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고… 언제까지나 그 돌을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이다. 끝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시시포스. 내 모

습이 그 인물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별것도 아닌 아르바이트 하나 하면서 무슨 시시포스가 받는 벌까지 나오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나 자신도 '에이, 나랑 무슨 시시포스가 받는 벌을 비교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생각은 점차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하는 하루하루마다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무게는 점차 늘어나 어느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깔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장 났다. 아니, 이미 고장 나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눈을 뜬다. 이불이 내 배 위에 얹혀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인다. 아무래도 어제 나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 같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휴대 전화가 회사 로고만을 화면에 남기며 전원이 꺼지듯이, 내 의식도 부지불식간에 꺼지며 잠에 드는 일이 잦아졌다.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 햇빛에 의지해 더듬더듬 안경을 찾는다. 겨우 찾은 안경을 쓰고 시계를 확인한다. 시계가 10시 조금 넘은 시간임을 가리킨다. '어제가 금요일이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겠네'하며 외출 준비를 시작한다. 외출하는 이유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정신의학과에 가기 위해서이다.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를 지나게 된다. 모래로 되어 노란빛이 도는 운동장과 네모난 창문들, 커다란 컨테이너처럼 생긴 학교 건물을 바라보면 자연스레 내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기억이어서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추가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지배한 감정은 절망감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친구들과의 성적 차이, 그곳에서 생기는 좌절과 노력으로 메꿀 수 없어 보이는 타고난 능력 차이에서 느껴지는 패배감이 머릿속과 마음 모두를 꽉꽉 채웠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왜 나는 안되지?', 그리고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내 머리와 마음을 감염시켰다. 감염된 나는 그 증상으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게 되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 정말로 더 오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노력하면 할수록 한계가 명확해지기만 하는 능력. 뚜렷한 장점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흥미 있는 것도 없는 성격. 이 둘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들지 않았다.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인도로 달려와 전부 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파트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힌다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온갖 사고를 보도하면 저런 일이 왜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를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금세 병원 건물에 도착한다. 버튼을 누르고, 위층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느린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병원에 다니며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여기에 오는 걸까. 오늘은 의사 선생님에게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치료를 위해서라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선다. "예약하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짧게 대답하고 의자에 앉는다. 진료실에서는 한창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오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내용을 선정한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겹고 재미없어서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런 생각 때문인지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쉽거나 기다려지는 감정도 별로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윽고 모니터 화면에 이름이 떠오른다.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향한다. 하얗게 칠한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마주 보고 앉는다. 선생님 뒤편엔 온갖 서적과 상장이 가득 들어차 있다. 간단히 안부를 묻고, 내 증상을 설명한다.

"아무래도 우울증이 오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점점 둔하게 변해간 것 같아요. 우울함을 느꼈

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2주일 치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시고. 2주 후에 봅시다. 혹시 또 불편한 점 있나요?"

내 상태를 설명한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동시에 그 말은 그동안 나를 옭아매던 '반복적인 삶에서 오는 무력감과 우울함'이라는 문제를 깊고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게 했다. 그에게는 그저 환자의 상태를 짚어주는 별것 아닌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딱히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은 것도 아니고, 조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듣고 그것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삶에서의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내가 선택한 대처 방법은 맞서 싸우거나 철저히 분석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체념한 척,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인 척하며 감정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달팽이를 건드리면 껍질로 몸을 감추어 버리듯이, 감정을 내 안쪽 깊은 구석에 숨겨두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어떻게든 피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자 감정은 점점 무뎌져 갔고, 나 자신도 현재의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게 되어갔다. 이전만큼 좌절감과 우울함을 느끼지는 않게 되었지만 설렘과 기쁨도 더 이상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일이 반복적이고 지루하게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반복적임에 지루함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사건과 마주했을 때의 새로운 자극이 감정을 자극해 또다시 좌절과 우울을 느낄까 봐 겁이 나서, 더는 무너지는 나를 붙잡을 자신이 없어서 자신을 반복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

좋아하는 만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 먼저 주인공이 어려움에 부닥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뿐이다. 침울해 있는 주인공.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고,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감사 인사를 하는 주인공에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뿐이지." 만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기에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이 만화에 등장한 남자가 생각났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자기 자신만이 쥐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만화 등장인물의 그 말. 고장 나버린 나에게 꼭 들어맞는 것 같았다. 곰곰이 생각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문제를 마주했을 때 대처 방법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마음을 닫게 되었을까? 계속된 질문 끝에는 명확한 답이 있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얻은 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자'는 뻔한 답뿐이었다. 잘하는 게 없고,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인정했다. 하루하루가 새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지 않기로 다짐했다. 일상이 단조롭게만 느껴지면, 특별한 일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 본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보고 경험해 보는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을 만들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길, 평소대로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간식거리를 사 들고 간다거나, 아르바이트하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사소한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 생각보다 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다채로운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넷플릭스에서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우울증에 걸린 남편과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다룬 영화이다.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한다.

주인 할아버지 :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물병이라네.'
하루 : '기포가 많이 있네요. 꽃병으로 쓰면 좋겠어요.'
주인 할아버지 : '당시엔 유리병을 다 입으로 불어서 만들었지.'
하루 : '이 기포 안에 든 공기는 100년도 넘은 거겠네요.'
주인 할아버지 : '평범한 유리병일 뿐이지만 안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있게 된 거지.'

박물관에서 볼 법한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쓸모가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버텼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장점이 없어도, 남들보다 잘난 점이 없더라도 나만이 가지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을 켜서 날짜를 확인한다. 오늘은 금요일, 아르바이트하러 가야 하는 날이다. 빨래해 둔 유니폼을 돌돌 말아 가방에 집어넣는다. 겉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는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깥바람이 얼굴을 덮는다. 찬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한다. 이번 주도 여느 금요일과 똑같이 출근한다.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거리. 매장 앞에 붙은 배너마저도 몇 주째 똑같다. 안녕하세요! 똑같은 복장을 한 직원들이 나를 반겨준다. 잠시 후, 나도 똑같은 복장을 하고 포스기 앞에 선다. 하지만, 단조로워 보이는 내 삶에 더 이상 우울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내 삶은 충분히 특별해질 수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도 비슷하지만 다른 하루를 살아간다. 매장 문이 열리고 냉기와 함께 손님이 들어온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DHARMA COLLEGE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장려상

학업기초글쓰기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국어과 메이커교육 수업 개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오동규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한 차시 국어과 메이커교육 수업 개발
3. 한 학기 국어과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Ⅲ.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메이커교육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Papert의 구성주의[145]에서 시작된 메이커교육은 사회적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협력·제작하며 학습하는 교육으로, 학습자는 메이커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증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이수정·강인애·정다애, 2021). 또한, 교육부(2016)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등 메이커교육의 교수·학습 속성에 주목하였으며, 여러 차원에서 메이커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을 실제적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먼저, 대부분의 학교에 갖춰져 있지 않은 메이커 스페이스는 조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학교 재정상 조성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메이커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메이커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교사가 어려움을 느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어과에서의 메이커교육은 따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필요 없이 기존 학교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교수·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이커교육을 실제적 교육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매체 교육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 갖춰진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메이커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메이커교육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메이커교육을 활용하여 매체 수업을 진행할 근거는 충분하다.

최근 매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어과 교육에서 매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매체 문식성’을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필수 역량으로 보고 매체 교육의 필요성과 강화 방안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종윤, 2022). ‘매체 문식성’의 개념을 임천택(2022)은 ‘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이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매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매체 언어[146]가 복합 양식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통해 매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을 대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매체의 기본 특성인 복합 양식성을 기반으로 한 학기 메이커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국어과 수업 한 차시 내 메이커교육을 녹아내는 것.
2. 교수학습지도안을 통해, 메이커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메이커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국어 교사들이 매체 문식성에 대한 메이커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45) 무형의 아이디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이론(Papert & Harel, 1991)

146)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언어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한다(김지현. 2022).

1. 이론적 배경

2019년에 DIY(Do It Yourself)가 유행하면서 메이커 운동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메이커 운동이란, 3D 프린터와 같은 신식 도구를 활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발하는 일련의 문화적 현상을 이야기한다(이진석·전승우·권지은 2019). 또한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한다. 이러한 메이커 운동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강조하며, 메이커 활동 중 보이는 자기주도적, 협동적, 문제 해결적, 성찰적 정신은 교육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커교육은 미래 교육의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도 메이커교육이 도입되고 있으며, 학습자가 여러 융합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어과 수업에서 메이커교육을 활용한다면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자의 협동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 수업 교수·학습 모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선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의 메이커 수업 교수·학습 모형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모형을 탐색했을 때, TMI, uTEC, TMSI, TMIS 모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TMI 모형은 PBL[147] 과정을 토대로 페퍼트의 학습 원칙인 '실제적 도구 활용'의 관점을 더해 메이커교육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모형이다. 마르티네즈와 스테이저의 TMI 모형은 Thinking(생각하기) → Making(만들기) → Improving(개선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성중, 2021). 생각하기 단계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기 단계에서 계획에 따라 결과물을 제작하며, 개선하기 단계에서 더 정교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하여 수정·보완한다. 해당 모형은 메이커 활동의 기본인 실제적 도구 활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TMI 모형은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메이커 활동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탄생한 uTEC 모형이 있다. uTEC 모형은 Using(사용하기) → Tinkering(팅커링하기) → Experimenting(실험하기) → Creating(창작하기)의 과정을 갖고 있다. uTEC 모형은 메이커 활동을 접하지 못한 학습자가 어떻게 전문성을 갖추어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지에 주목한 모형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출물을 학습자가 조작하며 메이커 활동과 친숙해지는 사용하기와 팅커링하기 단계가 존재한다. 앞서 산출물을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시도하는 실험하기 단계에서는 생산적인 실패를 얻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창작함으로써 학습자가 숙련된 메이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 또한 TMI 모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로 구성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제작된 TMSI 모형은 Tinkering(팅커링하기) → Making(만들기) → Sharing(공유하기) → Improving(개선하기)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모형은 '공유하기' 단계를 반영하여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147) '동기부여→규명→해결방안 도출'의 과정을 거치는 모형이다.

나 해당 모형으로 메이커수업을 진행할 경우, 공유하는 대상이 같은 반 학우에게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TMSI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TMIS 모형은 공유하기와 개선하기 단계의 순서를 바꾼 모형이다. 개선 후에 공유함으로써, 완전히 만들어진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범위가 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혹은 사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선하기 단계에서 메이커 동료들끼리만 결과물 개선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TMSI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기 단계와 개선하기 단계 사이에 같은 반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을 넣음으로써 모형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모형을 국어과 수업에 적용하여,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메이커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한 차시 국어과 메이커교육 수업 개발

먼저 메이커교육을 한 차시로 설정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은 한정된 시간일 것이다, 메이커교육이라는 방대한 수업 양식을 한 차시 약 50분 내외로 끝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차시 메이커 수업에서는 보통 TMIS 모형에서 '생각하기'와 '만들기'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메이커교육에서 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자신의 결과물을 사회에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하기' 활동을 포함하여 한 차시 국어과 메이커교육 수업을 개발해 보았다.

해당 수업의 주제는 '좋아하는 장면을 라디오로 구현하기'이다. 평소 학생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책의 장면을 음성 언어인 라디오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합양식 문식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제작하였다.

과목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이며, 수업 대상은 언어와 매체를 수강하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수업 시간을 평균 고등학교 수업 시간인 50분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에 방송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설계하였다.

다음은 해당 수업의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표 1> 한 차시 국어과 메이커교육의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수·학습활동		수업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7분	인사	3분	·인사 및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석 체크를 한다. ·수업환경을 정돈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교사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 준비 상태를 갖춘다.	출석 확인 수업 전 모둠 활동을 할 것을 안내하고 자리를 배치하도록 한다.
	전시학습 확인	2분	·전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 매체 언어 : 여러 매체 언어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며, 해당 매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PPT 활용

			· 책 - 문자 언어 · 라디오 - 음성 언어 · 영화 - 영상 언어		
	동기 유발	2분	ㆍ모둠이 어떤 장면을 선택했는지 물어본다.	ㆍ모둠원과 함께 가져온 좋아하는 장면을 이야기한다.	
전개 38분	모둠 활동	38분	ㆍ해당 장면을 어떻게 음성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시한다. ㆍ학생들에게 오디오 무비를 잠깐 보여준다. ㆍ학생들에게 대본 형식 학습지를 제공한다. ㆍ학생에게 자유로이 토론할 것을 권유하고, 대본을 완성하였다면 방송실로 같이 갈 것을 지도한다.	ㆍ교사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음성 언어로 변환할지 모둠원들과 토의한다. ㆍ교사가 제공한 오디오 무비를 감상하고 음성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ㆍ모둠원과 토의하여 대본 형식 학습지를 작성한다. ㆍ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사에게 질문한다. ㆍ작성이 끝났으면 방송실로 가 대본에 맞게 녹음을 시작한다.	대본, 오디오 무비, - 순회지도하며 학생이 대본을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방송실에서 녹음하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정리 5분	공유 활동 여부	5분	ㆍ녹음한 결과를 점심시간에 틀어도 되는지 모둠마다 묻는다.	ㆍ모둠원의 생각을 종합하여 점심시간에 자신의 모둠이 녹음한 음성을 틀어도 되는지 말한다.	동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둠마다 따로 불러서 묻는다.

해당 활동은 여러 매체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꾸어 복합 양식 문식성에 대해 학습하는 활동이다. 음성 언어를 직접 제작하며, 메이커 정신을 확립할 수 있으며, 결과물을 점심시간에 방송하는 형태로 공유하며 TMIS 모형의 '공유하기'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결국 한정된 시간 때문에 '팅커링하기'와 '개선하기'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 공유하기 활동을 모둠에 따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공유하기가 학교 내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3. 한 학기 국어과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메이커교육을 한 학기로 진행하게 된다면, 한정된 시간이라는 한 차시 메이커교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즉, TMIS 모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다. 한 학기 국어과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수업 주제는 '영상 언어를 활용한 공익 광고 만들기'이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단원은 '3단원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이다. 해당 단원을 선택한 이유는 메이커교육이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2015 개정 국어과 언어와 매체 학습 목표 중 "[12언매03-03]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합 양식 문식성에 대해 학습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해당 단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언어와 매체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2언매03-01]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12언매03-03]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3-04]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12언매03-05]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단순히 언어와 매체에서 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교육의 목표인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른다는 것을 따라, 쓰기 교육과 매체 교육을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사회 비판 글쓰기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며 학습자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문자 언어를 생산하는 방법을 기르고, 영상 언어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원의 수업 계획 요약은 다음과 같다.

차시	학습 내용
1차시	사회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사회 비판 글쓰기 사례
2차시	글쓰기 방법 , 다양한 글쓰기 종류
3차시	프리라이팅을 통해 주제 탐구
4차시	비판적 글쓰기 (슬로건 제시)
5차시	독자 기반 피드백 (피드백 작성 - 패들릿 이용) 독자 기반 피드백 (발표 및 개선)
6차시	영상 매체의 특성, 문자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의 차이점, 영상 매체의 사례 (공익 광고)
7차시 (T)	영상 소스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패러디 영상 제작 (영상 제작을 해 보며 학생의 흥미를 끌기 위함)
8차시 (M)	문자 텍스트를 영상 언어로의 전환, 글쓰기를 토대로 영상 시나리오 제작
9차시 (M)	영상 매체 제작
10차시 (M)	영상 매체 제작
11차시 (I)	영상을 발표한 후, 피드백 받기, 영상 개선
12차시 (S)	영상 완성, 유튜브에 공유, 다른 조 영상에 감상 댓글

1차시부터 5차시는 일반 수업으로 글자 매체를 생산하는 활동을 목표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여기서 작성한 사회 비판 글을 바탕으로 7차시부터 공익광고 만들기 메이커 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7차시 활동은 팅커링 단계로 영상 소스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보며, 학생이 메이커교육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다음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8차시 활동부터 10차시까지 만들기 단계가 진행된다. 4차시에서 슬로건과 함께 작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변화를 촉구하는 문자 언어로 작성된 글을 매체 언어로 전환하는 본격적인 과정이다.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하며, 메이커 정신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11차시는 개선하기 단계이다. 조별로 만든 영상을 반 학우들에게 발표한 후, 패들렛[148]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자신들이 영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한다.

그 후, 12차시에 영상을 개선하고 최종 결과물을 유튜브에 공유한다. 이는 공유하기 단계로 유튜브에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공유가 될 수 있으며, 학교로 한정된다는 한계를

148) 가상 게시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웹플랫폼.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의 유튜브 영상에 감상 댓글을 남기며, 창의적 표현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해당 프로그램의 8차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8차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공한 이유는 8차시 수업이 메이커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만들기'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이며, 복합 양식 문식성에 대해 자세히 수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표 2> 한 학기 국어과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8차시

수업 단계	학습과정	시간	교수·학습활동		수업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3분	·인사 및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석 체크를 한다. ·수업환경을 정돈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교사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 준비 상태를 갖춘다.	출석 확인 수업 전 모둠 활동을 할 것을 다시 안내하고 자리를 배치하도록 함
	전시학습 확인	2분	·전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영상 언어 : 영상 언어와 문자 텍스트 언어의 차이, 공익 광고 사례 등 - 사이버 불링에 대한 기사문과 공익 광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97847 https://youtu.be/7jKVC_HyAA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PPT 활용
전개 40분	개념학습	5분	·PPT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영상 사례를 통해 문자 언어가 영상 언어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설명한다.	·PPT를 참고하여 수업에 참여하며, 교사가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가 영상 언어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해한다.	PPT로 수업 진행
			1. 예시 : 문자 언어로 표현된 소설이 영상 언어로 표현된 영화가 된 '해리포터' 시리즈 : 영상 언어인 영화가 문자 언어로 표현된 소설이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예시를 통해 이해한다.	
			2. 생각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학생에게 물어보며 학생의 참여도를 증진한다. (예를 들어, 웹툰 <신과 함께>	·생각나는 다른 사례를 발표한다.	

			가 영화화 되어, <신과 함께: 죄와 벌>이 되었음.		
	모둠 활동 1	20분	ㆍ학생에게 지난 시간에 작성한 글쓰기 결과물을 제공한 후, 모둠별로 해당 글쓰기 결과물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을 안내한다. ㆍ모둠 활동 시 순회하며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나리오 작성의 어려움을 돕는다. ㆍ촬영 장비를 제공하여 학생이 촬영 방법 및 구도를 잠깐 사용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잠깐 찍어보거나 세팅을 해보며 밝기 등을 조절해 본다.)	ㆍ교사에게 자신이 지난 시간에 작성한 글쓰기 결과물을 받아, 다시 한번 읽어본다. ㆍ글쓰기 결과물을 토대로 모둠끼리 문자 언어를 영상 언어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토의한다. ㆍ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해 본다. ㆍ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촬영 방법과 구도를 미리 확인해 본다. ㆍ시나리오 작성 중 어려움이 있을 시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ㆍ시나리오 작성이 끝나면 자신의 주장이 영상 언어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한다. ㆍ글쓰기 결과물과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문자 언어와 영상 언어의 차이점을 다시 상기한다.	글쓰기 결과물, 시나리오 학습지, 촬영 장비 - 모둠 활동 종료 5분 전부터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내한다. (활동을 정리할 것을 요구)
	모둠활동 2	15분	ㆍ작성한 시나리오를 간단히 공유할 것을 지시한다. ㆍ학생이 제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긴다. ㆍ모둠별로 공유가 끝나면 전체 학생에게 문자 언어가 영상 언어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질문한다.	ㆍ작성한 시나리오를 간단히 공유한다. ㆍ교사의 피드백을 듣고 시나리오 수정 방향을 모색한다. ㆍ교사의 질문을 듣고 글쓰기 결과물과 시나리오의 차이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가 영상 언어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발표한다.	
정리	학습 내용	5분	ㆍ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한다.	ㆍ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5분	정리		- 문자 언어를 영상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음악, 카메라 구도 등 다양한 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신들이 작성한 문자 언어를 영상 언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통해 복합 양식 문식성을 기를 수 있으며,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제작한 공익 광고를 유튜브에 올리며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변화 촉진자의 정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공유의 범위가 학교가 아닌 사회로 확장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촬영과 편집을 학습자가 스스로 진행하므로 수업 구성이 너무 전문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국어과 교수학습 범위 내에서 해당 활동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시 학습자의 촬영과 편집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촬영 장비와 편집 프로그램을 적절히 선택할 것을 강조한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메이커교육이 국어과 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며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한 차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커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에 수행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TMIS 모형에 충실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메이커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어과 교사가 메이커교육을 실제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예시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수업 지도안을 통해 즉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평소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던 과목에서 메이커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 차시 수업지도안은 TMIS 모형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 즉 본 연구는 메이커교육의 일회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한 학기 수업지도안은 '만들기' 단계에서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국어과 교수학습의 범위는 언어에 대한 탐구이고, 목표는 실질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에 있다. 그러나,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 구도나 기법에 관해 탐구하고, 영상을 편집할 때 여러 편집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국어과 교육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이 든다. 따라서 교수자가 촬

영 도구나 편집 프로그램을 정할 때, 전문적인 영역에서 먼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처음 촬영하고 편집하는 학생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메이커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 보았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계획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메이커교육의 특징을 더 체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정교화된 교수학습 방안의 탐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애, 윤혜진, 정다애, 강은성 (2019). 메이커교육의 이론과 실천. 내하출판사, 41(2장-메이커교육의 교수학습모형)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 (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 김성중 (2021).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을 위한 기술교과 연계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 분석 연구 : 매체 언어 개념화 및 관련 학습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권유진, 박성석, 임윤진 (2022). 학교 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 적용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유형. 아시아교육연구 23권 1호, 1-30
- 윤지연 (2015) [취재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온라인 괴롭힘',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97847 [2022.12.15.]
- 이수정, 강인애, 정다애 (2021).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수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295-309.
- 이진석, 전승우, 권지은 (2019). 국내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메이커 커뮤니티 참여 효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9), 349-359.
- 임천택 (2022). 초등학생의 매체 문식성 제고를 위한 국어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73(0), 233-255.
- 장성민 (2018). 귀추적 사고 기반의 학습 목적 글쓰기 교육 연구: 글쓰기 수행 예측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종윤 (2022). 매체 문식성 교육과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 모색. 새국어교육, 132(0), 291-316.
- KOBACO공익광고협의회 (2020). [공익광고협의회] 톡 쳤을 뿐인데 - 30초 A. https://youtu.be/7jKVC_Hy_AA [2022. 12. 15.]

장려상

실용글쓰기

세미나 수업의 비타민, “글쓰기”

: 동국대학교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글쓰기 이수제도 개선 방안

법과대학 법학과 김민지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과 박진혁
경영대학 경영학과 임동준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장윤지

Contents

01 프롤로그

02 문제인식

1. 글쓰기의 중요성
2. 동국대학교 글쓰기 운영현황
3. 동국대학교 세미나 운영현황
4. 글쓰기 수강제도의 문제

03 해결방안

1. 수업 이수제도 변경
2. 전임교수 충원
3. 수강인원 조정

04 예상 결과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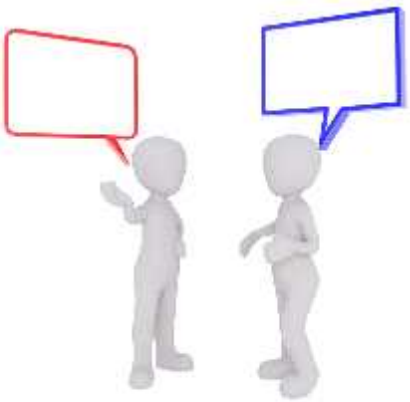
05 참고문헌

01 프롤로그

02 문제인식

01 프롤로그

학우 1: "너 에세이 써봤어? 기말 과제가 에세이인데, 어떻게 쓸지 감이 안 잡히네"
학우 2: "세미나 말하는 거지? 나도 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야"



고등학교에서는 간단한 글만 써보고,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오니 5페이지가 넘는 에세이를 써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라서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세미나 교수님에게 자세히 배울 수도 없어요. 기말 과제가 에세이라서 점수가 낮으면 학점도 떨어질 텐데, 에세이 때문에 학점이 낮게 나오면 어떡하죠. 참 걱정이에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에세이 쓰는 법을 자세히 배울 방법이 없을까요?

모 교수님: "세미나 교수님, 수업은 잘 돼가요?"
세미나 교수님: "세미나 수업에 명작과 관련된 내용만 가르치고 싶은데 글쓰기부터 참고문헌을 다는 것까지 가르쳐야 하니 참 힘드네요"

세미나 수업은 선정된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과 자기의 생각을 합쳐 보여주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에세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과 관련 없는 글쓰기에 수업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받는 것이 보여 힘듭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 편할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들은 에세이를 힘들어하지 않고, 세미나 교수님은 명작에 집중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은 없을까?

글쓰기의 중요성 증가

우리는 하루에도 20~30통의 문자와 150줄 이상의 카카오톡,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등 수많은 글을 주고받는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공, 세미나, 모든 영역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외에도 강의 과제 리포트 및 각종 발표 토론문을 써야 한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의 한 조사에서도 응답 학생의 52%(38명)가 대학생의 기초 교양 교육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로 '글쓰기, 말하기 등의 의사소통능력'이라고 응답했다.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대학에서 글쓰기 관련 교과를 교양 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또한 글쓰기 강의를 3학점으로 필수 교양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글쓰기 운영 현황

올해 동국대학교의 글쓰기 강의는 39개의 수업이 운영되었으며, 수업을 운영하는 교원 수는 22명, 평균 수강인원은 30명에서 최대 40명이다. 글쓰기를 수강해야 하는 신입생의 수는 평균적으로 2,340명이며, 평균 수강인원이 32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 학기에 2,500명의 수강이 가능하다.

동국대학교 2022년 학업 이수 가이드를 살펴보면 공과대학과 바이오 시스템 대학, 약학대학은 별도의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고, 외국인도 외국인 전용 강의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외의 대학은 크게 3가지로 자기표현 글쓰기와 실용 글쓰기, 학업 기초 글쓰기 중 수강이 가능하다.

D. 공통교양 학기별 이수체계(대학별 지정학기에만 수강 가능)

대학	커리어디자인	불교와인간	기업가정신과리더십영역 (택 1)	글쓰기영역 (택1)
불교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문과대학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이과대학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법과대학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사회과학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경찰사법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경영대학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바이오시스템대학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공과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2학기
AI융합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사범대학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예술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미래융합대학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 위 목록 외 공통교양 교육은 본인 희망 학기에 이수 가능

세 강의는 후반부에서 다루는 과제에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인 글쓰기의 단계와 절차를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지정한 학기에만 글쓰기를 수강할 수 있다. 현재 불교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사범대학, AI 융합대학 예술대학, 미래 융합대학은 1학기,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은 2학기로 제한되어 있다.

02 문제인식

동국대학교 세미나 운영 현황

세미나는 경제와 사회 명작세미나,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 존재와 역사 명작세미나, 자연과 기술 명작세미나, 문화와 예술 명작세미나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3개를 선택하여 수강해야 하며, 기말과제는 에세이로 진행된다. 글쓰기와 세미나는

필수교양과목으로 선 후가 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미나를 수강한 후 글쓰기를 수강한 사람의 비율이 60%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쓰기 수강 제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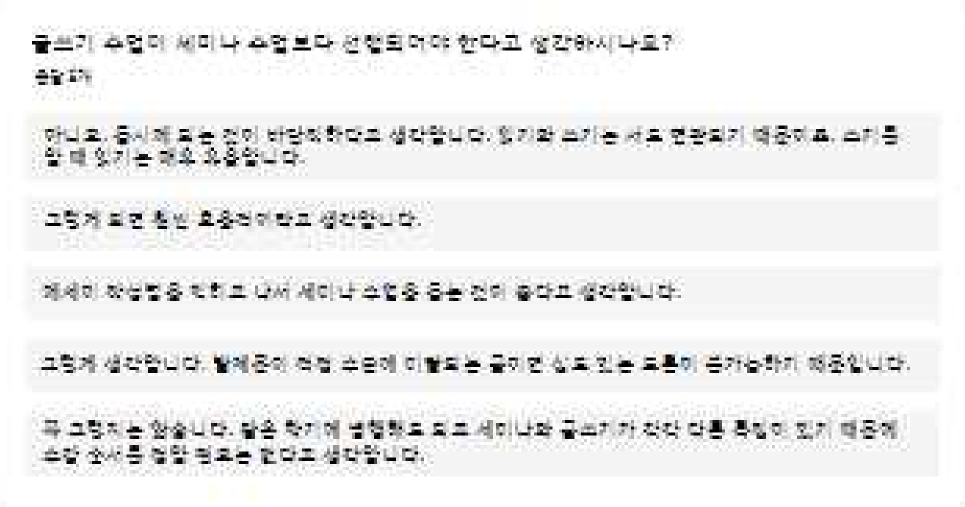
1) 수업의 효율성 감소

세미나는 동국대학교의 모든 학생(공과대학 제외)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공통교양 과목이다.

위 강의계획서에서 볼 수 있듯이, 세미나는 각 분야에서의 명작을 선정하여 탐구하고, 핵심적 주제를 추출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 에세이 작성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관련 지식 이해와 습득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명작을 읽은 뒤 이에 대한 발제문, 토론문, 에세이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글쓰기 방법을 모르며, 교수님들은 글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과 에세이 양식 등을 가르치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양식과 구성요건을 지키지 않은 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수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Q. 세미나 교수님의 입장 : 세미나에서 최종 평가물인 에세이를 위해 글쓰기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 시간을 아껴 수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02 문제인식


글쓰기 수업이 세미나 수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개

아니요, 동시에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읽기와 쓰기는 서로 연관되기 때문이죠. 쓰기를 할 때 읽기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세이 작성법을 익히고 나서 세미나 수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제문이 적정 수준에 이르는 글이면 싶고 있는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학기에 병행하되 모든 세미나와 글쓰기가 각각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강 순서를 정할 필요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마칼리지 전임교수 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글쓰기 수업이 세미나 수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응답이 3명,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명, 상관없다는 응답이 1명으로 동시 혹은 선행해야 한다가 4명이다. 하지만 동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세미나를 먼저 듣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비효율적인 학업 이수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 학교 입장 :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이수제도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

2) 에세이 작성의 어려움

에세이란 자신의 체험, 의견, 감상 등을 자유롭게 적은 글이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 감상 등을 전달하는 것이 에세이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은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이용해 흥미를 끌 수 있게 작성해야 하며, 본론은 사례, 설문조사 등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참고자료, 인용, 각주, 문체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02 문제인식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세미나 수업에서는 에세이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이러한 에세이 작성법을 배운 적이 없고,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기 이전에 세미나 강의를 수강하여 에세이의 양식이나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을 알지 못해 에세이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에세이를 쓸 때 좋은 글은 무엇인가에 대해 몰라서 손 가는 대로 썼다. 글의 인테리어를 하는 법을 몰라서 조직적인 글쓰기가 부족했다. 또한 글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 즉 그루핑, 브레인스토밍 등을 하지 않아 즉흥적인 글을 제출기한 마감 전에 써서 냈다.",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에세이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근거를 입증할만한 참고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에세이가 주제를 정하고 선정하여 쓰는 게 힘들었다.", "개요서 작성이나 글쓰기에 어려움 많았다.", "에세이 작성할 때 개요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 인용은 어떤 표시가 맞는지 항상 헷갈렸다."

위는 동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세미나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일부를 선정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에세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Q. 학생의 입장 : 에세이는 세미나 평가 항목이지만, 세미나 수업에서는 글쓰기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다. 글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없을까?

03 해결방안

글쓰기 선 이수 제도 도입

1) 수업 이수제도 변경

학업 이수제도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글쓰기 과목을 1학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기별 단과대학 지정 이수제를 폐지한다. 글쓰기 선 이수 후 세미나 수강을 권장한다. 기존에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은 세미나를 먼저 들을 수 있다. 세미나 수업에서는 글쓰기를 모두 배운 후에 세미나를 수강한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배우지 않으면 에세이 작성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먼저 듣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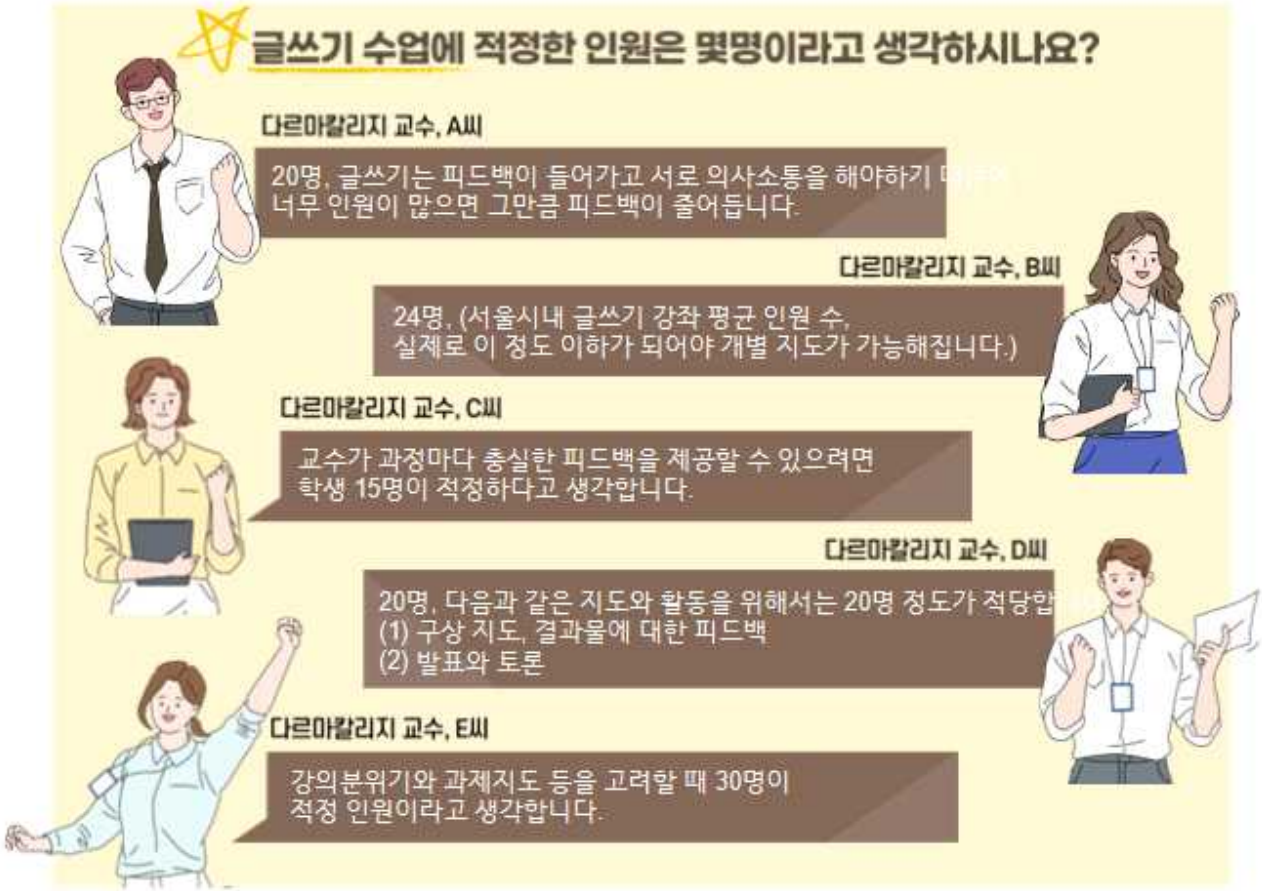
이에 따라 2학년 이후에 세미나를 많이 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강 신청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1, 2학년 20명/ 3, 4학년 7명/ 추가 3명으로 수강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변경에 따라 1학년 때 세미나를 적게 들을 것을 예상해 1, 2학년 15명/ 3, 4학년 12명/ 추가신청 3명으로 개편하여 3, 4학년 TO를 늘린다.

	글쓰기	세미나
변경 전	강제사항 X 학기별 단과대학 지정	강제사항 X
변경 후	1학년 필수 이수 학기별 단과대학 지정 X	글쓰기 이후 수강 권장

2) 유예기간 중 전임교수 충원

현재 글쓰기 수강 가능 인원이 2,500명이고, 현재 1학년 입학 인원 중 글쓰기 수강 대상 인원이 2,340명이므로 이전에 수강하지 않은 인원을 수용하려면 강좌 증설이 필요하다. 이들이 글쓰기를 들을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지정한다. 유예기간에 글쓰기 강좌를 8개 증설해 학기당 47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당 35명, 학기당 28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이를 2년간 진행하면 약 1,700명의 미이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강좌 수를 늘리려면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 전임 교수님 한 명당 최대 4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명의 전임 교수를 채용한다. 서울 시내 교양 담당 전임교수 기준 초봉은 4,000만원이다. 2명의 전임 교수를 채용하면 추가적으로 연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3) 유예기간 종료 후 수강인원 조정



다르마칼리지 전임교수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22명의 학생이 적당하다고 말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업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수강인원을 줄인다. 학기당 47수업으로 늘어나므로 신입생만 수강 시 25명 정원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04 예상효과 및 기대효과
05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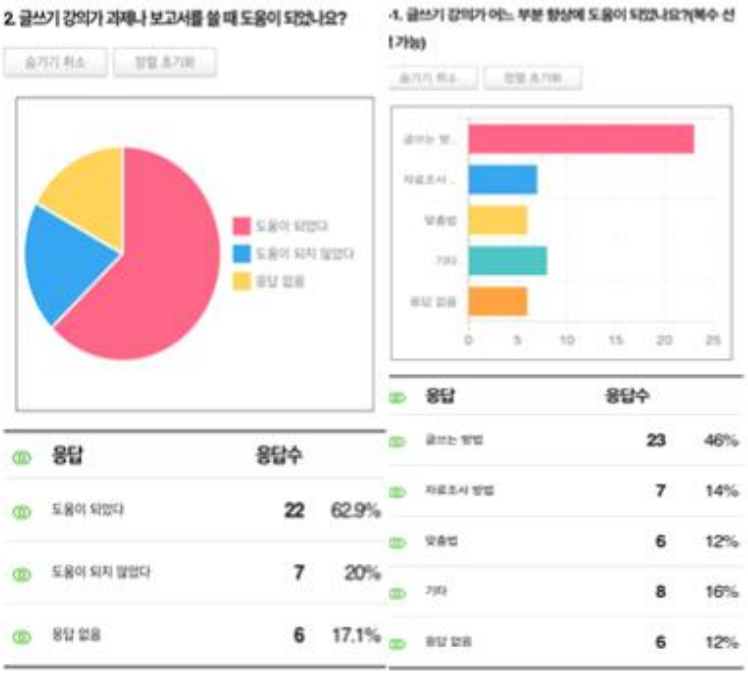
04 예상효과 및 기대효과

"글쓰기 선 이수 제도 "

동국대학교의 많은 학생은 글쓰기 수업과 세미나 수업을 필수로 수강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을 알지 못해 세미나 수업의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세미나 교수님들의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쓰기 선 이수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월한 과제 해결이 가능하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학생 입장

입학 후, 대학 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글쓰기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 에세이처럼 긴 글을 써본 경험이 없는 학생,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미숙한 학생 그리고 작성 양식을 모르는 학생들이다. 만약 '글쓰기 선 이수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글쓰기 방법을 우선하여 학습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글쓰기 수업을 들은 학생의 60% 이상은 글쓰기 강의가 과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글 쓰는 방법과 자료조사 방법 등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의 한 학생은 글쓰기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글의 전개 구조 및 맞춤법, 출처표현법을 학습하였고, 약술 및 서술형의 답안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전공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글쓰기를 배우면 많은 과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명작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하여 세미나 수업을 듣고, 글쓰기 능력의 함양을 위해 글쓰기 수업을 수강한다. 수강 목적에 적합한 수업 진행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세미나 수업과 글쓰기 수업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

05 참고문헌

[기사]

이후연 기자 외 3명, "서울대 7년 연속 1위…건국대, 29년만에 사상 첫 톱10 진입 2022 대학평가." 중앙일보.(2022.12.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276

[논문]

서울대 기초교육원, 열린 지성 창간호, 서울대 기초교육원, 2005, 8면

염민호·김영록·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 개선을 위한 교수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사례」, 교원교육 25-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9

이재헌,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 작문연구 27, no.0 (2015): 119-144.

[설문조사]

글쓰기 1학년 필수 수강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2022.11):

https://naver.me/FTk86xNt

다르마칼리지 전임교수 대상 설문조사(2022.11):

https://drive.google.com/file/d/1biWr7IWMgYQfpGF3w0-ipsNkml1OW3Z/view?usp=share_link

05 참고문헌

[기사]

이혜연 기자 외 3명, "서울대 7년 연속 1위…건국대, 29년만에 사상 첫 톱10 진입 2022 대학평가." 중앙일보.(2022.12.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276

[논문]

서울대 기초교육원, 열린 지성 창간호, 서울대 기초교육원, 2005, 8면

염민호·김영록·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 개선을 위한 교수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사례」, 교원교육 25-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9

이재현,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 작문연구 27, no.0 (2015): 119-144.

[설문조사]

글쓰기 1학년 필수 수강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2022.11):

https://naver.me/FTk86xNt

다르마칼리지 전임교수 대상 설문조사(2022.11):

https://drive.google.com/file/d/1biWr7IWMgYQfpGF3w0-ipsNkml1OW3Z/view?usp=share_link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장려상

지혜와자비 명작세미나

행동이 만들어 내는 가치

: <붓다 브레인>에서 나타난 결과로서의 자아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온다빈

---

1. 서론

2. 본론
   2.1 주체적 자아라는 환상
   2.2. 자아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 비판
   2.3. 오직 행동만이 남는다

3. 결론

1. 서론

“고정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149] 불교의 무아사상을 대표하는 말이다. 자아에 대한 믿음은 집착을 만들어 괴로움을 더한다. ‘나’라는 의식에 주체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것을 말한다. 성격과 판단의 요소인 오온이 실체가 없듯이, 고정 불변한 ‘나’라는 인격적 자아의 존재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릭핸슨의 <붓다 브레인>은 무아와 같은 기존 불교의 철학적 고찰을 뇌과학적 접근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간다. 신경심리학자로서의 지식을 불교적 개념과 엮어 설명하는 함으로서 종교적으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개념들을 대중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작가가 심리학자 도널드 헵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뇌의 변화’는 뇌의 작용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선한 주제이다. 사람은 명상과 마음가짐을 통해 새로운 신경 체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지혜를 위해 나아간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가느냐가 우리의 뇌를 만들고 우리 삶의 질과 함께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50] 작가는 이와 함께 실천 방법도 제시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명상, 입술 만지기 그리고 마음 챙김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의 전개에 있어 작가는 ‘무아’의 개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작가는 “자아와 관련된 정신활동은 마치 유니콘과 같다“[151]는 표현을 통해 자아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특별함을 부여하지 말라 경계한다. 이를테면 ‘내 것’, ‘나의 생각’과 같은 표현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자아는 수많은 뇌와 신경 체계 작용의 **결과**이며 이는 뇌의 구성요소 중 극히 일부분이라는 근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사결정이 주체적 결정이 아닌 신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결과로, 패턴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다소 결정론적인 입장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환원주의적 접근 방법에 근거한 인간의 사고에 대한 분석은 <붓다 브레인> 후반에 전개하는 ‘행동이 뇌를 만든다’라는 주장과 상충한다. 작가는 ‘우리 자신이 자아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며 뇌의 능동성을 통한 새로운 신경회로 형성을 통한 만들어가는 나를 긍정했지만[152] 앞서 발생한 괴리에 대한 여지만 남기고 구체적인 논의는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본고는 작가가 책에서 정의한 ‘변화하는 뇌’에 대해 정리하고 ‘하부 체계가 만들어내는 뇌‘라는 논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뇌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오직 행동만이 남게 됨을 얘기한다. 나아가 니체가 제시한 삶의 긍정 측면에서 행동이 가지는 가치를 분석하고, 삶에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며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

149)"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22년11월30일 수정, 2022년11월20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8080&cid=46648&categoryId=46648.

150) 150) 릭핸슨,리처드멘디우스, 『붓다 브레인』, 불광출판사, 2010, p.18

151) 릭핸슨,리처드멘디우스, 『붓다 브레인』, 불광출판사, 2010, p.234

152) 릭핸슨,리처드멘디우스, 『붓다 브레인』, 불광출판사, 2010, p.222

2. 본론

2-1. 주체적 자아라는 환상

자아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작가의 주장은 책 전체에 걸쳐 강하게 드러난다. 자아의 가변성을 파악하기 위해 걷기 명상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데, '나'에 대한 의식을 놓을수록 나는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과 자아를 최소화하는 활동들에서 자아의 불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무의식적 인지가 의식적 인식에 선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 느낌은 모두 신경 구조의 활성화된 패턴이고 자아 또한 일련의 뇌 작용의 패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자아'가 정확히 무엇이고 실재하는 것인지 대한 질문은 쉽사리 답하기 힘든 주제이다. 작가는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피하고, 실재 여부가 아닌 패턴의 속성 즉 자아라는 것이 통일성 있고, 행동의 주체로서 작용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논의에 집중한다. 예컨대 사색적 자아는 전방대상피질 영역과 전전두피질 그리고 해마의 신경 연결에서 유래하고, 정서적 자아 편도체의 시상하부와 뇌간 상부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자아는 고유성을 부여해 '나'라는 자서전적 자아의 관념을 만들어낸다. 특징을 가진 대상으로서의 자아인 '나'는 경험과 매 순간적 자아들이 시계열로 축적이 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일련의 '나'는 신체를 기준으로 몸과 외부의 세계를 구분함으로써 주관성을 만들어낸다. 즉 <붓다 브레인>에 따르면 통합적인 자아란 감각기관에서 시작해서 뇌의 신경 체계 그리고 호르몬까지, 여러 **하부 및 하부-하부 체계들이 만들어낸 완전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153] 독립적인 자아, 행동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아의 강조에 있어 인간의 판단이 뇌와 관련된 일련의 하부 체계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대게 욕망이 자아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의식 또한 하부 체계들과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2-2 무아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법 비판

심리학자 도널드 헵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뇌는 평생 변화한다. 인식의 변화로 신경 구조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자아의 의식 활동에 있어 판단하는 결정이 단순히 하부 체계에서 올라온 일방적인 상향적 활동이 아닌, 의식적 자아의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즉 자아의 속성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올라온 상향적 패턴이 아닌 상호 유기체에 가까운 형태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생물학자 데니스 노블은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154] "생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유전자와 세포, 기관, 신체 그리고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 생명을 네트워크 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노블과 작가는 공통적으로 주체적인 자아가 가변적인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 가변성의 특징과 결과에 있어 작가는 고정적인 자아를 부정하고 하위체계들이 만들어낸 패턴으로서의

153) 릭핸슨,리처드멘디우스, 『붓다 브레인』, 불광출판사, 2010, p.220

154) 신동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반론 - -데니스 노블의 '생명의 음악'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011, vol., no.25, p.149

자아를 주장하는 반면, 노블은 독립적인 자아를 부정,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서의 자아를 주장한다. 이는 불교의 근본 원리인 연기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의식과 판단에 있어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시상하부에서 야기된 감정이 피질에서 인식하는 '나'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감정과 정보의 발현 정도를 조절하는데, 이러한 순간 정보의 총합으로서의 '나'가 내리는 판단 또한 피질과 시상하부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판단에 있어 의식이 상향적 신경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접근 방법은 의식과 뇌 그리고 신체 전체에 있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적 피드백을 간과한 환원주의적 접근이다.

만약 작가가 무아의 특성을 얘기할 때 불변하는 '나'에 대한 부정 근거로서 자아의 가변적 속성에만 집중했으면 충돌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뇌의 의식 구조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는 이상, 하부 체계들이 만들어낸 패턴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쉽게 성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요약하면, 자아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닌 신체와 세상과의 교류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상태라는 불교의 철학을 뇌 과학의 신경학적 원리를 통해 증명하였다. 그러나 판단에 작용하는 신호 즉 정보의 흐름이 상향적인 패턴이 아닌 하향적인 전달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단과 뇌, 신체는 상호적 관계이다. 그러면 판단에 있어 상호성이 전제되었을 때 앞선 주장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본고는 오직 과정 속 '행동'만이 남는다고 이어서 서술한다. 그러면 행동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어서 논의한다.

2-3 오직 행동만이 남는다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으나, 객체로서 '행동하는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행동이란 복합적 활동이다. 감정과 의식으로 판단하고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자아에 대한 속성부여를 하는 순간 '구별'을 하게 되고 의식적인 활동은 무의식적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뇌와 의식의 관계가 그렇듯 가변적인 자아의 행동이 자아를 만들어가는 상호적 관계로서 존재하기에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여기서 니체의 '위버멘쉬Übermensch'가 이정표를 제시한다. 위버멘쉬란 단어 자체는 '넘어선(über) + 사람(mensch)'을 의미하지만, 그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한 위버멘쉬는 구체적으로 '극복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극복이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어떤 존재의 행동은 그 존재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존재의 긍정, 극복만이 고통의 인생을 구원함으로써 존재의 가치와 정당성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에 의하면 필연적인 '고통의 삶'을 긍정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위버멘쉬는 이러한 고통의 삶을 긍정한 존재, 즉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가치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긍정을 간접적으로 가져온다.[155] 나아

가 니체는 위버멘쉬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영원회귀 즉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긍정할 수 있는, 정당화되는 가치를 삶에, 행동에 부여함으로써 인간은 구원받게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붓다 브레인>의 13장의 마지막 단원과 맥락을 함께 한다. 자아를 버리면 개인에서 나아가 인류, 자연 그리고 우주까지 전체의 보탬이 되길 바라는 존재만이 남게 된다.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곧 하나라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만물에 자비를 베푸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논의한 고통의 삶을 긍정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불교와 니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개인이 취하는 '행동'이 세상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함께한다.

3. 결론

<붓다 브레인>에서 작가는 무아를 신경 체계와 엮어 환원주의적 해석을 시도했다. 자아와 의식 활동이 호르몬, 신경과 뇌라는 하부 체계들의 패턴으로서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본론에서 이에 대해 노블의 통합적 시스템을 들어 비판을 전개했다. 뇌에서 발생하는 의식 활동과 판단은 상호적이다. 이는 자아가 뇌에서 발생한 일련의 관념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변적 자아로서 호르몬과 뇌의 신호가 판단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뒤에서 앞서 작가가 인용한 '의식이 뇌를 만든다'라는 주장과 충돌되는 소지가 있다. 자아의 행동은 본래 데니스 홉의 연구처럼 의식 활동이 뇌를 만드는 하향적 과정과 신경 체계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상향적 과정이 공존하는 상호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에서 '행동하는 나'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뽑아냈고 <붓다 브레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한 위버멘쉬를 인간 행동의 모범으로 제시했다. 고통이 가득한 삶을 긍정함으로써 행동에 정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원을 통해 위버멘쉬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 불교에서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는 점에서 책에서 이야기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자세를 앞서 발생한 행동의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 속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 바로 영원히 반복되어도 가치를 지닐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를 인식하고, 역동적으로 얽혀있는 존재와 사회를 행복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창조해가는 자세는 삶의 긍정에서 시작되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155) 김주휘, "니체에게서 삶의 긍정 및 구원Erlösung과 위버멘쉬Übermensch", 대한철학회, 2014.09, 철학연구 제131집, p.83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22년11월30일 수정, 2022년11월24일 접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8080&cid=46648&categoryId=46648.
릭핸슨,리처드멘디우스,『붓다 브레인』, 불광출판사, 2010
신동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반론 - -데니스 노블의 '생명의 음악'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011, vol., no.25, p. 149-168
프리드리히 니체,『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문예출판사, 2013
김주휘, "니체에게서 삶의 긍정 및 구원Erlösung과 위버멘쉬Übermensch", 대한철학회, 2014.09, 철학연구 제131집, p.77-103

DHARMA COLLEGE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장려상

문화와예술 명작세미나

김수영의 양립세계와 연결 매개체 분석

: 영화 <인셉션> 속 '토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신한울

Ⅰ. 서론

ⅰ. 양립세계의 정의와 그 분석에 대한 의의

ⅱ. 영화 <인셉션>에서의 양립세계와 '토템'에 대한 분석

Ⅱ. 본론

ⅰ.「달나라의 장난」에 나타나는 양립 세계

ⅱ. 이후 시에서 나타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① 팽이가 여전히 돌고 있는 가상세계, 김수영의「눈」

② 팽이가 돌아가다 멈춘 현실세계, 김수영의「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ⅲ.「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팽이'와 <인셉션>에서의 '팽이' 비교

Ⅲ. 결론

I. 서론

ⅰ. 양립세계의 정의와 그 분석에 대한 의의

인간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산다. 슬픔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상상, 자유를 얻게 된 후에 대한 상상 등 여러 상상을 하고,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혹은 꿈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필자는 무의식과 꿈속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가상세계'의 영역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실세계'의 영역으로 나눌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세계를 '양립세계'라고 말하기 위해 먼저 '양립'에 대한 필자만의 정의를 다루겠다. '양립'은 "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립'하는 것들은 독자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할까?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가능하다는 대답을 남긴다. 예를 들어, 문화의 대중성과 예술성이 양립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고 할 때[156], 이는 일차적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이 분리되어,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깊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술성의 증진이 대중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157], 반대로 대중성의 증진이 예술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158] 이러한 필자의 '양립'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양립세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양립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때의 두 가지 세계는 앞서 얘기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이다. '양립세계' 또한 독자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세계'가 가상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양립세계에 대한 분석의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초현실주의자들은 꿈과 사고의 무의식적 흐름이 사물의 인식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우수하다고 믿었으며 그 방법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획득하려 하였다는 말처럼[159], 꿈과 상상은 주체의 이상과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현실세계에서의 장애물적인 요소들은 꿈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아가 꿈과 상상력의 가상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 예시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꿈, 이상, 상상력 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양립세계간의 연결과 단절 등을 분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어떠한 이유로 서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면 분석 대상의 지향점 혹은 연결 매개체를 파악하여 심화적인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분석 대상인 김수영의 경우, 후술하겠지만 하나의 시 안에서 양립세계의 연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분석하게 된다면, 시인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 대해 파악하고 이후 삶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등을 알 수 있다.

---

156)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중 '양립'이라는 명사의 예문을 인용함.

157)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대중성이 떨어지는 작품이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예술성이 인정받아 대중성이 증진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힘.

158) 현대미술에서 대중성에 대한 중요성을 작가들이 느끼며, 이에 대해 반영하는 여러 작품이 생겼음 즉, 이러한 경우에도 대중성이 예술성에 영향을 미쳐, 예술성에 대한 기준을 바꿨다고 할 수 있음. '앤디 워홀'이 많은 대중들이 애호하는 수프 캔으로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고, '뒤샹'이 생필품인 변기에 자신의 사인을 해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든 경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음을 밝힘.

159) 최승원, 박민주. "영화 <인셉션>에서 표현된 초현실적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5.4 (2019): 26-44, p.2

ii. 영화 <인셉션>에서의 양립세계와 '토템'에 대한 분석

2010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은 개봉 후 큰 화제를 이끌었다. 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많았지만, 타인의 꿈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내고, 조종까지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인셉션>을 간단히 요약하면,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 생각을 추출하고 조종하는 미래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양립세계는 꿈과 현실이다. 특히나 이 작품을 주목하고, 이 작품을 바탕으로 김수영의 양립세계를 탐구하려는 이유는 양립세계간 연결이 매우 잦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코브'는 자신의 꿈속에서 죽은 아내가 나오고, 이것은 '코브'가 가상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종종 영향을 받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현실세계의 요소가 가상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작품의 핵심 주제인, "꿈을 이용하여 비밀 정보를 추출한다."는 것은 가상세계의 요소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필자의 양립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좋은 예시가 된다.

이 작품에서 또 주목할 요소는 '토템'이다. '토템'은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작중 '추적자'라는 집단은 이러한 '토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꿈에 침투하여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다. 필자는 이 '토템'이 구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토템'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꿈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내가 현실인 줄 알았던 상황이 알고 보니 꿈이었다면, 현실에서 꿈으로 연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인공 '코브'는 '토템'으로 팽이를 가지고 있다. '팽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면 꿈, 즉 가상세계를 나타내고, 멈춘다면 현실세계를 나타낸다. '팽이'는 돌고 있을 때 그 성질을 제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즉, 팽이가 돌다가 멈춘다는 것은 성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팽이'로서의 가치를 잃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160] 즉, 필자는 감독이 성질의 변화 없이 계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상세계로 나타내고, 중간에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현실세계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아닐까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인셉션>의 양립세계적 성격과 '토템'을 근거로 하여 김수영의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양립세계를 분석할 것이다. 해당 작품에서도 양립세계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셉션>의 요소는 꼭 필요하다 말할 수 있다.

160)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팽이치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겨울철에 눈이나 얼음판 위에서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며 노는 놀이. 조선 숙종 때 편찬된 『역어유해(譯語類解)』나 정조 때 편찬된 한어·만주어 사전인 『한청문감(漢淸文鑑)』에는 팽이를 '핑이'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핑이는 어떤 물체가 빙빙 돈다 또는 핑핑 돈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볼 수 있다." 즉, 팽이를 정의한 그 자체는 '핑핑 돈다'라는 성질임. 팽이가 돌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라면, 이를 완전한 팽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가치를 잃는다고 표현함.

Ⅱ. 본론

ⅰ.「달나라의 장난」에 나타나는 양립 세계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 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달나라의 장난」(1953) 전문[161]

「달나라의 장난」은 김수영의 애착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1959년 발간된 생전의 유일한 개인 시집 제목이 바로 이 텍스트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라는 점이야말로 그러한 추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유력한 증거일 수 있겠다.[162] 김수영의 애착이 담긴 시라는 것은, 김수영 스스로 이 시가 가장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텍스트를 양립세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다른 시에서, 김수영의 양립세계인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화자는 "팽이가 돈다"라고 말하며 시를 시작한다. 이 팽이가 후에 성질이 변화한다면 현실세계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상세계일 것이다. 이 시는 중간중간 가상세계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곧, 팽이를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화자가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말과 가상세계를 나타내는 말을 시의 행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각각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하도록 하겠다.

화자는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라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곧 바쁘게 사는 본인 삶에 대한 설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어린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라고 말한다. 살아가는 것이 신기롭다는 것은 화자가 집중하는 부분은 단순히 타인이 아니다. 화자는 삶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것을 좋아하는 화자가 '아해가 팽이를 돌'리는 것을 본다. 즉, 화자가 삶의 집중 및 집착하는 것은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의 화자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살림을 하는 아해들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한다. 이 문장을 재해석하면, "살림을 하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이다. 이 문장에서 숨어있는 것은 살림을 하는 아이들이 아름답다는 것은 화자가 기존부터 생각해 왔던 관념이다. 즉,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화자는, 살아가는 아이가 당연히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팽이를 보고 화자는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한다. 화자에게 현실세계는 '살아남기 위해 쫓겨 다니는 삶'이다.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왔던 화자가 팽이라는 것을 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노는 아이를 보게 되었다. 즉, 팽이를 통해 연결된 가상세계에서의 화자의 가치관이 현실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화자는 현실세계에서 삶을 '살아남기 위해 쫓겨다니는 것', '당연한 것' 등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한다. 즉, 현실세계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상세계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상세계에서 화자는 '노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화자의 가상세계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라는 구절은 화자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앞서 '살림을 사는 아이들'과 '노는 아이'의 대립항은 "누구 집을 가 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는

161) 이영준.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p.46-43
162) 김유중. 놀이와 상상력, 시작(詩作)의 상관 관계. 어문학, 94. 2006. 275.

“별세계”의 주민과 “도회 안에서 쫓겨 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대립항으로 연결된다.[163] 즉, 화자의 “나 사는 곳”은 현실세계를 의미하고, 이때의 현실세계는 본인의 삶에 대한 설움과 살아남기 위해 쫓겨 다니는 삶이다. 이와 반대로, 별세계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 않은, 노는 삶이다. 즉, 화자의 가상세계인 것이다. 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도 ‘뚱뚱한 주인’과 ‘수천 년 전의 성인’의 대립항을 볼 수 있다.[164] 이때 ‘뚱뚱한 주인’은 물질적이고 속물적인 사람, 즉 현실세계에서 마주한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성인’은 자유로운 정신을 나타내는 존재, 즉 가상세계에서의 존재이다. 이 구절에서도 팽이가 가상세계와 연결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팽이가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있는 나를 비웃는’다는 것은 이 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앞서 화자는 팽이를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성인’의 역할을 하는 팽이가 나를 비웃는다는 것은 무언가 화자의 행동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필자는 화자가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팽이가 비웃었다고 판단한다. 현실세계에서 화자는 삶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살아남기 위해 쫓겨 다니는 삶은 곧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가상세계로의 연결을 이끌어주는 팽이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곧, 가상세계에서의 화자의 지향점은 나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도는 힘”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천 능력을 발휘하고 지향하는 것을 상징한다.[165] 이때, 화자는 “스스로 도는 힘”을 ‘너도 나도’라고 말했다. 이때 ‘너’가 상징하는 것은 팽이, ‘나’가 상징하는 것은 화자 스스로다. 이 부분은 화자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합일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팽이, 즉 가상세계는 화자의 내면과 이상점을 보여주는 세계이자 여유를 가진 세계이다. 반면, 현실세계는 삶에 쫓겨 사는 바쁜 삶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서 양립세계가 합일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가상세계의 요소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화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통된 그 무엇’이라는 부분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중복되는 지점, 즉 화자 그 자체이다.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화자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마지막에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라고 끝이 난 것은 영화 <인셉션>과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이다.[166] 이 팽이가 잠시 후 멈춰 다시 현실세계를 나타낼지, 끝없이 돌아 가상세계를 나타낼지는 다른 시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시를 보며 해석하고자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달나라의 장난」이 1953년에 쓰였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953년 이후의 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3) 이중원. 김수영 시집의 편집과 구성의 원리: 달나라의 작란과 달나라의 장난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8. p.70

164) 위와 같음.

165) 정치훈. 김수영 시의 정전화 과정과 방향. 한양대학교. 2018. p.17

166) 영화 <인셉션>의 결말은, 꿈과 현실에서 고된 업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코브’가 행복해하는 장면과 팽이가 돌고 있는 장면을 함께 보여줌. 끝이 날 때에는 팽이가 계속 돌면서 끝이 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므로 곧 팽이가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과 ‘코브는 아직도 꿈속에 갇혀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졌음.

ⅱ. 이후 시에서 나타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① 팽이가 여전히 돌고 있는 가상세계, 김수영의「눈」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은 '팽이가 여전히 돌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화자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시이자,「달나라의 장난」에서의 가상세계 모습과 닮아있는 시여야 한다. 앞서 얘기하였지만, 이 시에서의 가상세계는 여유 있는 삶, 내면에 집중하는 삶 등이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시로, 필자는 김수영의「눈」(1956년)을 골랐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 눈더러 보자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
>
>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을 바라보며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
> 「눈」(1956) 전문[167]

이 시는 굉장히 재밌다. 2000년대의 이 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눈'의 순결성과 고결성에 집중하였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행위는 그에 대한 긍정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168] 반대로, 2010년대의 이 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눈'을 현실의 부정적인 면모를 덮어 하얗게 만드는 위선의 역할을 한다고 파악한다. 또,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행위는 이러한 '눈'의 위선적인 성격과 대조되는 것으로, 현실의 부정적인 면모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강력한 행위라고 파악한다.[169]

그러나 필자는 양립세계에 대한 개념으로「눈」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예정이다. 이 시는 필자의 가상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많은 연구자들이 '눈'에 대해 순결성, 현실의 부정적인 면모를 가리는 위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필자는 '눈'이 가상세계를

---

167) 이영준.『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p.148

168) 이남호. 김수영의 시「눈」의 해석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3, 2011. p.161. 이남호의 연구는「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였음. 이남호는 2000년대에「눈」에 대해 연구한 유종호, 남진우, 강연호의 해석 방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음. 각주에 있는 부분은 세 연구자의 해석임.

169) 위와 같음. 각주에 있는 부분은 이남호의 새로운 해석임.

상징한다 파악한다. 이 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눈이 녹지 않으며 살아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자의 시간이 곧 동이 틀 새벽이라는 것이 "새벽이 지나도록"과 "밤새도록"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고,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기에 당연히 눈이 녹지 않는다고 혹자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화자가 '눈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며 '눈'을 '살아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팽이가 '수천년 전의 성인'을 상징했던 것처럼, 화자는 '눈'을 '살아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눈에 '기침을 하'고, '마음 놓'고, '가래라도 // 마음껏 뱉'는 등 눈에게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필자는 이 부분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한다. 기침을 하는 행위는 인체 내부에서 외부로의 분출, 즉 내면에서 외부로의 이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가래를 뱉는다'는 것은 재밌다. 기침을 하다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비의도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가래를 통해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인체 내부에 있는 가래를 이끌어내 뱉는다는 것, 이 전체의 행위가 모두 의도적인 것이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는 '기침'과 '가래'를 부정적인, 더러운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눈'의 부정적인 역할에 더러운 가래를 뱉는다는 것은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러나, 결코 기침과 가래를 더러운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필자는 화자의 기침과 가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이자 내면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앞서 가상세계에서는 화자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화자 스스로 내면에 있는 '가래'를 뱉는다는 것은, 내면에 집중한 이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이를 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시는 가상세계에서의 화자의 삶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1956년에 쓰인 「눈」이라는 시는 「달나라의 장난」 화자의 가상세계, 나아가 김수영의 가상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눈'은 곧 가상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눈에 '기침'을 하고, 의도적으로 '가래'를 뱉는 것은 내면에 있는 화자의 응어리, 할 말 등을 외부로 이동시킨다는 것과 같다. 즉, 가상세계 내에서 내면에 집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침'과 '가래'를 통해 화자는 본인이 가상세계에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팽이가 돌다가 멈춘 현실세계, 김수영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은, 팽이가 멈췄다는 것, 즉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필자의 현실세계와 공통점을 가져야 한다. 이 시에서 필자의 현실세계는 '삶에 집착하고 쫓겨다니는', '바쁜', '여유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를 선정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 옹졸하게 욕을 하고
>
> 한 번 정정당당하게
>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 전문[170]

이 시는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화자, 넓게 보면 김수영의 현실세계를 잘 드러내는 시라고 말할 수 있다. 「달나라의 장난」의 현실세계에서 화자는 삶에 집착하고 쫓겨 다니는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로 시작하는 이 시의 화자의 모습은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와서 돼지 같은 설렁탕 집 주인 년에게 욕을하'는 점은 가난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가난함에서 나오는 여유롭지 못

170) 이영준.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p.148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재밌는 점은,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뚱뚱한 주인'과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의 '돼지 같은 설렁탕집 주인년' 모두 '뚱뚱하다'는 것이다. 김수영은 현실세계에서의 부유층과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모두 뚱뚱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뚱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화자가 살이 쪘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 '뚱뚱한'에서 '돼지 같은'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화자는 「달나라의 장난」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즉 그 경계에 서있었더라고 한다면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는 완전히 현실세계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의 내면에는 집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묘사가 한층 비난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화자의 내면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자는 돈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세계에서 그러한 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또,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며 반항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차별속에 내면이 갇혀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라고 말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달나라의 장난」에서 화자는 "살림을 사는 아해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답다"라고 말했었다. 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자는 현실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이'를 당연히 아름답게 생각했었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노는 아이'도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이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변모되었다. 화자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이라고 말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에 대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이는 곧 '노는 아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아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가상세계의 요소는 없어지고 현실세계의 화자만이 남아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50원', '20원', '10원', '1원' 등 화자는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필자는 '돈'이 곧 현실세계를 상징한다고 파악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다른 대부분의 시들에서는 돈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이 시에서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세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돈'에 집착한다는 것은 삶에 집착한다는 것과 같다. 이는 앞서 여러번 얘기한 것과 같이 '삶에 집착하며 쫓겨 다니는 삶'과 일치한다. 「눈」에서 내면에 집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삶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화자는 마지막에 '나는 얼만큼 적으냐'라고 말하며 모래, 바람, 먼지, 풀에게 말한다. 이 네 가지 것들은 모두 자연적 요소이자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특히, 모래와 바람, 먼지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공기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풀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덜 된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게 묻는 것과 같다. 이때의 세계는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가상세계에 묻는 것이라면, 화자는 스스로의 내면에 다시금 집중하고자 하는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 묻는 것이라면, 삶에 집착하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점점 보잘 것 없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현실세계 모습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을 비교하였을 때, '살이 찐'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현실세계에 더욱 깊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에 대한 차별에 직접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밖에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은 현실세계에 완전히 잠식된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아이’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 변모하였다는 점에서 가상세계의 요소가 없고 완전히 현실세계적인 요소만이 남았다는 점, 돈에 집착하는 점 등 이 시에서는 삶에 집착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화자가 ‘토템’을 찾는다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기 힘들다. 즉, 자신의 고유성을 갖는 토템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세계에 침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ⅲ.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팽이’와 <인셉션>에서의 ‘팽이’ 비교

앞선 부분에서는 김수영의 양립세계와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시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달나라의 장난」을 통해 김수영의 양립세계가 확립되었음을 밝혔다. 「눈」을 통해 가상세계에서의 화자는 어떠한지,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에 있는 화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제는 양립세계를 연결해주었던 ‘팽이’라는 연결 매개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김수영과 영화 <인셉션>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모두 ‘팽이’라는 매개체에 집중하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왜 팽이여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그렇다면 두 팽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각각 해석하고 논리적인 보충을 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얘기한 ‘팽이’의 속성에 대해 심화적으로 이야기하여 ‘왜 팽이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앞서 얘기했지만, 팽이는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팽이의 어원은 ‘핑핑 돈다’ 할 때 ‘핑핑’에 있다. 무언가 계속 돌아가는 형태를 보고 선조가 ‘팽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러한 팽이의 성질은 돌 때와 돌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다. 돌아가고 있는 팽이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완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돌지 않을 때의 팽이는 그 자체로의 의미가 없다. 즉, 하나의 물체 안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팽이의 의미가 달라진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팽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템’이 나온다. 영화에 나오는 또 다른 토템으로 주사위가 있는데, 이는 팽이와 달리 단일의 성질을 가진다. 만약 주사위를 100번 굴려서 100번 다 1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사위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후 100번을 더 굴렸을 때 어떤 수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주사위는 굴려도 주사위의 성질을 가지고, 굴리지 않아도 주사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주인공의 토템을 ‘팽이’로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팽이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돌지 않는 것을 팽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해서, 도는 것과 돌지 않는 것으로 성질을 구분하고 마침내 이것을 두 세계로 구분하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영화 <인셉션>에서도 당연히 드러난다. 작중에서도 주인공 ‘코브’가 현실세계인지 구분하기 위해 팽이를 돌리고 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팽이의 성질 변화에 집중하게 된다. 멈추지 않으면 팽이는 그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고, 이는 곧 가상세계를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멈추면 팽이는 그 자체로의 의미를 잃고, 현실세계임을 나타낸다. 팽이의 성질이 세계를 구분한 것이다. 김수영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돌리는 팽이’에 대해 바라보다, 이것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 즉 하나의 성질만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팽이의 두 가지 성질 중 한 가지만 보여준다는 것은, 나머지 한 가지 성질을 기다리게 한다. 이 기다림 속에서 팽이는 김수영을 가상세계

로 이끌고, 그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였다.

두 작품 모두 팽이만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는 팽이 그 자체의 성질에 집중한 분석이다. 그렇다면, <인셉션>에서의 '팽이'와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팽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두 '팽이' 모두 양립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용되는 방법과 상징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이제, 둘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그림1] 영화 <인셉션>의 '트랙트리코이드 팽이'

[그림2] 팽이치기에 사용되는 팽이와 팽이채

<인셉션>에 나타나는 팽이는 '서양식 팽이'이다. 손가락으로 윗부분을 잡고 돌리는 방식이다. 이때 돌아가는 팽이를 인위적으로 돌아가게 할 순 없다. 손가락으로 다시 잡는 행위는 곧 마찰에 의해 팽이를 멈추게 한다. 즉, 이 팽이는 인위적인 회전이 있을 수 없으며, 팽이는 언젠가 자연적으로 멈출 수도 있으며 인위적으로 멈출 수도 있는 것이다. 팽이의 회전에 계속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팽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가상세계가 자연법칙을 거스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상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영화 <인셉션>에서 꿈은 나의 생각에 따라 형태가 갑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으며, 보고 싶은 사람을 생성할 수도 있다.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팽이의 성질은 가상세계가 자연법칙을 거스른다는 설정에 굉장히 부합한다.

반면 「달나라의 장난」에 나타나는 팽이는 '전통 팽이', 즉 '팽이치기'이다.[171] '팽이치기'는 팽이를 돌린 후 그 팽이를 팽이채(채찍)로 계속 쳐서 팽이의 회전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팽이가 멈춘다는 것은 곧 자연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팽이를 치던 사람이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반대로 멈추지 않는 것은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동시에 치는 사람이 팽이치기를 끝까지 이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치는 사람이 팽이치기를 멈추는 것이 자신의 의지인지, 타자의 의지인지는 알 수 없다. 자신의 의지대로 멈출 수도 있지만, 외부의 압박과 압력으로 인해 팽이치기를 멈출 수도 있는 것이다. 팽이가 멈추는 것은 곧 현실세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곧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의 구분을 외부적인 요소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통해 「달나라의 장난」에서 왜 화자가 '팽이'에게 '스스로 도는 힘'을 키우자고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시 속 '팽이'는 타인의 압박과 압력

171) 한국민속예술사전에 따르면, '팽이치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팽이치기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중략) 한편 근래에는 전문적으로 제작된 팽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불과 1970~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역에서는 손수 깎아서 만든 투박한 팽이를 가지고 누구의 팽이가 더 잘 돌아가는지를 겨루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할 때, 「달나라의 장난」이 쓰인 1950년대와 그 이전에는 팽이를 돌린다는 것은 곧 '팽이치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을 통해 멈출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팽이를 쳐 계속 회전할 수도 있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앞서 <인셉션>의 팽이도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돌아가는 것이 자연법칙만을 따르고, 전통 팽이처럼 인위적인 회전을 갖진 않는다. 즉,「달나라의 장난」속 팽이는 인위적으로 회전을 가질 수도 있으며, 자연법칙에 따라 멈출 수도, 인위적으로 멈출 수도 있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화자, 나아가 김수영은 전통 팽이의 이러한 특징을 발견하고 '스스로 도는 힘'을 키우자고 한 것이다.

팽이의 회전이 자연적이고 인위적이라는 구분은 곧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또렷한지 모호한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172] <인셉션> 속 팽이는 회전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또렷하다. 회전하다 멈추면 현실세계를 계속 회전하면 현실세계를 나타낸다. 팽이의 회전을 의도적으로 연속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달나라의 장난」속 팽이는 회전이 인위적이다. 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팽이가 멈추면 현실세계, 계속 돌면 가상세계이라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때, 만약 아이가 24시간 동안 팽이만 쳐서 팽이가 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했다면 이는 과연 명확한 가상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 작품 속 화자가 보고 있는 그 순간 아이가 계속 팽이를 치고 있다면, 이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모호하다 할 수 있다. 멈춰야 하는 팽이를 계속 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인지, 원래 멈추지 않는 팽이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 속에서도 드러난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모습이 자주 섞여서 나온다. 예를 들어, '살림을 살아가는 아이'와 '노는 아이'처럼 대립항이 한 문장에서 공존하는 것, '나 사는 곳'과 '별세계'와 같은 대립항이 한 문장에서 공존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팽이의 특성에 맞게 양립세계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다.

Ⅲ. 결론

무의식과 꿈 등을 '가상세계'로, 현실에서의 일어나는 것들을 '현실세계'의 영역으로 나눈 후 두 세계를 양립세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위해, '양립'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의 것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주었고, 양립세계 또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양립세계 분석은 두 세계간 연결과 단절을 분석하여 분석 대상의 지향점 혹은 연결 매개체를 파악할 수 있기에 심화 탐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김수영의「달나라의 장난」은 하나의 시에서 양립세계의 연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파악하고 이후 삶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을 하기 전, 분석의 토대가 된 영화 <인셉션>에 대해 소개하였다. 영화 <인셉션>은 꿈과 현실을 오가며 정보를 추출하는 영화이며, 두 세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필자가 분석의 토대로 삼았다. 이 작품에서는 '토템'이라는 요소에 주목해야 하는데,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인 이 토템은 구분의 역할과 동시

172) 단, 이 부분에서는 '팽이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멈춘다'는 논외의 경우로 삼도록 함. 영화 속 '토템'의 성격이 물질의 무게와 밸런스 등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고유성'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고, 멈추게 할 수도 없었음. 이러한 점을 근거로, 논외로 삼도록 함.

에 ‘연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로이 해석하여 위 연구에 논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 주인공인 ‘코브’가 사용하는 토템은 ‘팽이’로, 이것이 멈추면 현실세계, 멈추지 않으면 가상세계를 상징한다. 필자는 이러한 팽이의 성격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달나라의 장난」에서도 팽이가 나오며 두 팽이간의 성격이 비교할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으로 김수영의 「달나라의 장난」에서 나타나는 양립세계적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이 시가 김수영 스스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시라고 파악했는데, 그 근거는 김수영의 유일한 개인 시집이 이 텍스트의 제목에서 따왔다는 점에서였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양립세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다른 시에서 나타나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적인 면모를 각각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달나라의 장난」에서 화자는 “팽이가 돈다”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이 팽이가 후에 성질이 변화한다면 현실세계, 그렇지 않다면 가상세계일 것이다. 이 시는 가상세계의 모습과 현실세계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필자는 시의 행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현실세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요소들, 가상세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종합하도록 하였다.

화자는 현실세계에서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 등 자신의 삶에 대해 ‘바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살림을 살아가는 아이’를 당연히 아름답게 보았던 화자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가상세계로 넘어오면서 ‘살림을 살아가는 아이’뿐만 아니라 ‘노는 아이’도 아름답게 보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가상세계에서의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을 중시한다. 화자는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가상세계를 상징하는 ‘별세계’와 현실세계를 상징하는 ‘나 사는 곳’의 대립항 구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뚱뚱한 주인’과 ‘수천년 전 성인’의 대립항 구조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팽이가 ‘수천년 전 성인’을 상징한다는 것은 가상세계에 화자의 지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구절에서 또한 팽이가 가상세계로 연결해주고 있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팽이가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있는 나”를 비웃었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삶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화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가상세계로의 연결을 이끄는 팽이가 이러한 생각을 지적했다는 점은 가상세계에서의 지향점은 나 자신을 고쳐가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스스로 도는 힘”이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천 능력을 발휘하고 지향하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힘을 팽이와 자신 모두 가졌으면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양립세계가 합일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가상세계의 요소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화자가 변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행에서 “팽이가 돈다”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은 영화 <인셉션>과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시가 쓰인 1953년 이후의 시 중에서, 가상세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와 현실세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를 각각 분석하였다.

ⅱ-①에서는 팽이가 여전히 돌고 있는 가상세계를 나타내는 시로 김수영의 「눈」을 선정하였다.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가상세계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시이며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시의 앞선 연구들과는 관계없이, 필자는 양립세계를 중심으로 필자만의 새로운 해석을 펼쳤다. 이 시에서 ‘눈’은 가상세계를 상징한다. 화자가 ‘눈’을 ‘살아있는 존재’로 설정했고, 이러한 눈에 자신의 내면 속 표현을 가감 없이 하기 때문이다. 기침을 하는 행위는 내면에서 외부로의 표현이며, 가래를 뱉는 행위는 외부를 향한 내면의 의도적인 표현을 나타낸

다. 즉, 내면에 집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다는 것은 화자가 가상세계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ⅱ-②에서는 팽이가 돌다가 멈춘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시로, 김수영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선정하였다. 「달나라의 장난」에서 나오는 현실세계의 모습이 이 시의 화자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달나라의 장난」의 현실세계에서 화자는 삶에 집착하고 쫓겨 다니는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로 시작해 다양한 삶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특히나 '살이 찐' 대상에 대한 표현이 두 시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 시에서의 화자의 현실세계는 「달나라의 장난」보다 더욱 과격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에 대해 차별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세계 속에 갇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아이'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모하였다는 점에서 가상세계의 요소는 온데간데없다고 분석하였다.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현실세계의 모습만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에 '나는 얼마나 적으냐'라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대상'에게 말하는 것을 필자는 세상에게 묻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세계를 다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로 구분한 뒤, 가상세계에 묻는 것이라면 화자 스스로 내면에 다시 집중하고자 하는 변화의 씨앗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현실세계에 묻는 것이라면 삶에 집착하고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점점 보잘 것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팽이'와 영화 <인셉션>에서의 '팽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읽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왜 두 작품 모두 팽이여야 하는가?'와 '두 팽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답을 내리고 논리적인 보충을 하고자 했다.

'왜 팽이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팽이의 성질을 근거로 답을 할 수 있다. 팽이는 '돌고 있을 때' 완전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팽이의 어원이 '핑핑 돈다'에서 왔기 때문이다. 만약 팽이가 돌지 않고 멈춘다면 이를 완전한 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해서, 필자는 팽이를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물체로 분류하였다. 이와 반대로 <인셉션>에 나타나는 토템 중 주사위는 단일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보충하였다. 팽이가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팽이의 성질 변화가 곧 세계의 성질 변화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두 팽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각의 팽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셉션> 나타나는 팽이는 서양식 팽이로, 인위적으로 계속 회전하게 만들 수 없기에 회전에 계속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팽이가 계속 도는 것을 자연법칙 위반이라고 정의가 가능하며, 이는 곧 가상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반면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팽이는 '팽이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전통 팽이와 팽이채이다. <인셉션>에서의 팽이와 달리 이는 팽이채로 팽이를 계속 친다면 연속적인 회전이 가능하다. 즉, 팽이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 누군가 인위적으로 계속 팽이를 치고 있다는 것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곧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구분의 모호함은 '살림을 살아가는 아이'와 '노는 아이', '나사는 곳'과 '별세계'와 같은 대립항이 각각 한 문장에서 공존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셉션 속 토템과 꿈, 현실을 중심으로 김수영의 양립세계를 분석해 보았다. 「달나라의 장난」 속 양립세계가 각각 상징하는 바 등을 분석한 후, 이러한 양립세계가 계속 구성이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눈」 속에서의 가상세계와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의 현

실세계는 「달나라의 장난」에서의 양립세계와 적절히 일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시인의 다른 두 세계의 기조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비록, 이 연구는 김수영에 그쳤지만, 나아가 다른 시인의 양립세계를 분석하고, 그 양립세계에서의 상징하는 바가 다른 시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일단 양립세계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이상과 현실이라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양립세계'를 정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혹자의 질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김수영의 '혁명'에 치중된 바를 보인다. 물론, 김수영이 혁명과 자유에 대해 자주 노래한 시인임은 맞지만, '혁명과 자유를 노래하는 김수영'은 '김수영'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시를 통해 '가상세계에서의 김수영'과 '현실세계에서의 김수영'을 각각 분석하여, 그 자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김수영의 삶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시 속에서의 나'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곧 문학에서의 시인 그 자체를 파악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위 논문]

이중원. 김수영 시집의 편집과 구성의 원리: 달나라의 작란과 달나라의 장난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8.

정치훈. 김수영 시의 정전화 과정과 방향. 한양대학교. 2018.

[학술지 및 도서]

최승원, 박민주. "영화 <인셉션>에서 표현된 초현실적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5.4 (2019): 26-44

김유중. 놀이와 상상력, 시작(詩作)의 상관 관계. 어문학, 94. 2006. 275.

이남호. 김수영의 시 「눈」의 해석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3, 2011.

이영준.『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DHARMA COLLEGE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장려상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자연적 소질의 계발 재검토

: 외적 동기화의 학습을 중심으로

사범대학 교육학과 엄수빈

Ⅰ. 서론

Ⅱ. 본론
1. 이성의 학습과 집단적 기억
2. 외적 동기화와 본성
3. 조형과 천부적 지식

Ⅲ. 결론

Ⅰ. 서론

‘그 행렬 속에서 그가 있는 그 지점이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각을 결정한다.[173]’라는 문장을 명제적 서술로 파악한다면, 적어도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역사관은 참으로 판별될 것이다. 칸트의 논문「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에 드러나는 그의 역사 철학은 18세기 서구 사회의 계몽주의 사조를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해당 논문에서 ‘계속된 계몽’에 의하여 ‘조야한 자연적 소질’의 변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문장[174]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말이다.

칸트는 자연이 의도한 반사회적 소질에 따라서 이성적, 자연적 소질이 발현되고 유(Gattung, 類)로서의 인간의 역사가 야만 상태에서 세계 시민적 상태로 진보한다고 주장하였다.[175]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에 있어서 그의 이성의 사용을 지향하는 자연적 소질’은 ‘언젠가는 완전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발현되도록 결정’되어 있다.[176] 이는 자연이 이미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했음을 전제로 한다. 이때 자연적 의도나 계획에 따라 시민 정체로 이행한다는 목적론적 역사관, 인간 이성의 내적 발현을 중시한 계몽주의 역사관은 인간 제 힘으로 이끌어낸 것만을 긍정한다. 곧 칸트는 천부적 지식의 공급과 교육을 부정하고 “인간은 오히려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177]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칸트의 견해를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개별 인간의 온전한 이성 계발을 거부하고 유(類) 단위의 인간들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칸트의 견해는 인식론적 경향성에 근거할 것일 뿐이다. 칸트는 실제적인 사회 맥락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술하지 않았다. 또한, 칸트는 개별 인간적 존재가 수단화됨을 인지하면서도 묵과하며, 개별 인간의 참여에 대한 동기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칸트에게 있어 완전한 자연적 소질의 발현과 역사적 전진을 위한 필요악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개별 인간의 수단화, 전체주의적 희생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을 뿐 실제적인 참여 과정에 있어서 그것의 원동력이나 운용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다. 나아가 칸트는 그가 제시한 개념의 존재와 기능에 있어 논리를 피력하는 기술적, 방향성에 대한 확신과 어쩌면 소망에 가까운 당위적 입장만 취하였다. 그와 동시에 각 ‘개념’의 실제적인 구성의 원리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작동이라는 구체성은 결여된 감이 없지 않다.

본고는 위에서 거론한 칸트의 역사 철학의 한계점들에 대안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유(類)’로서의 인간인 인류만이 온전한 이성 계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성을 고양하는 기본 단위는 개별 인간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둘째, 각개 인간의 ‘행위’의 기제를 각자의 동기에서 찾고 그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칸트가 상정한 ‘본성’을 ‘사회적 학습의 산물’로 확대하여 논할 여지가 있음을 제안한다. 즉, 본성이라는 추상성의 개념에 대해 사회적인 학습이라는 구성의 원리를 더하여 보다 실체적인 설명을 가미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칸트가 논하는 보편사의 전개는 순전히 내적으로 본연에서 도출된 소질의 계발이라기보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제로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겠다.

---

173) E.H. 카, 김택현 옮김,『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p.53.
174) I. Kant. 이한구 편역,「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pp.29-30.
175)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p.34-41.
176)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p.25-26.
177)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27.

Ⅱ. 본론

1. 이성의 학습과 집단적 기억

칸트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유 속에서만 인간 이성이 완전하게 계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178]. 이성의 완전한 계발은 사실상 아주 오랜 시간의 연속성, 지속선상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인간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완결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79]. 하지만 이는 인식론적인 경향성을 주장한 것일 뿐이다. 칸트는 자연이 제 계획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대 간 전수라는 개념을 상정하였지만 실제적인 사회 맥락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에서 유로, 세대에서 세대 간의 방향으로의 구체적 연결 방법을 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칸트는—그것의 현실적, 경험적 증명은 뒤로 하고—이성을 무한한 존재로 상정하면서도 그것의 계발을 "인간의 노력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180]라고 거론하였다.

본고는, '구체적 연결'의 기제를 사회적, 외적 학습의 개념으로 보완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이성 계발이 인류라는 집단으로, 세대라는 인간이 다른 세대로 기존 이성 계발의 정도를 전수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외부로부터의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디 타자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는 습성을 학습의 기제로 이용할 수 있다.[181] 인간의 행동은 모방의 과정과 그 결과의 해석, 기대를 거쳐 촉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두라(Bandura)의 사회 학습 이론을 칸트의 논지에 적용시켜보자면, '이성'적으로 보이는 신뢰감 높은 타자의 면모는 모방의 대상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외부적 존재로부터 파악한 것을 정신적 언어화, 시각적 표현의 과정을 거쳐 '기억'으로 전이시킨다. 이렇게 '기억'된 행동을 학습자로서의 인간은, 그리고 '기억'의 계승으로써 인간 집단은 능숙하게 재생한다.[182]

물론 그 행동 재생의 수준은 본(本)이 되었던 타자와 다를 수 있고, 학습자의 입장이 된 인간은 필수불가결하게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다. 이 시행착오의 과정은 칸트의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성이) 한 단계의 통찰로부터 다른 단계의 통찰로 점차 진행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시행과 훈련과 수업을 필요'로 하는 시행, 훈련, 그리고 집단적 기억에 대한 사회적 학습은 곧 이 '수업'으로 가능할 것이다. 곧 시행착오의 개념으로 인간은 다양한 시도를 점진적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개인에게나 그 이후의 개별 인간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학습, 기억된 행동은 충분히 내적 발현만이 아닌 조건으로서, 곧 보편사 전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인류만이 온전한 이성 계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체적으로 이성을 고양하는 기본 단위적인 주체란 개별 인간에 국한된다. 이때 개별 인간은 외부로부터 이성의 '학습'을 주입, 습득한다. 집단으로서의 인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전수할 수 있다.

혹자는, 정확히는 칸트의 논리만을 좇는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학습과 시행착오 과정 없이 순전히 내적인 '계몽'으로써 역사 진보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

---

8) I. Kant. 이한구 편역, 앞의 책, p.27.
179)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189.
180)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27.
181) 권재선,「자기 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도덕 교육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3.
182) 신명희 외,『교육심리학』, 학지사, 2018, p.217.

만 본고는 그러한 ‘계몽’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관찰, 모방, 대리적 ‘학습’의 경험이 가미되어야 함을, 또한 ‘계몽’의 존재가 자각된 순간 타자에게 그 개념을 ‘자각’하게끔 전수·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는 순전히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 주입의 성질로 이해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어쩌면 사회적 집단 내부의 구성원 또는 집단 간 외적 상호작용으로 ‘계몽’의 상태를 이루는 구성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성의 계발과 전달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단발적인 개별 인간의 생보다 지속성이 강한 인류가 이것에 더 유리하다는 칸트의 진술은—그것의 실체적인 과정을 따져보았을 때—사회적, 다시 말해 외적 학습이 수반된다면 보다 그의 과정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적 동기화와 본성

칸트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반사회성이 인간 노력을 촉발, 그리고 그 결과가 소질의 계발을 촉진케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로서의 완전한 인간 이성의 고양 상태로의 도달과 세계시민적 정치체제로의 목적 완수에 있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였다. 이를 필요악적 개념으로의 상정한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다. 칸트는 선험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 경험적으로 작성된 역사의 재편찬이라는 평가를 미리 거부하였다[183].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유사한 논리에서 전체주의 체제가 태동, 크나큰 상흔을 남긴 역사적·경험적 실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이와 같은 한계점을 남긴 듯하다. 칸트는 인간의 반사회성이 지나치게 풍만해져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인간 사회화의 본성, 근간으로서의 이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걸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 개체가 그 존재가 묵과되는 방식으로 자연적 소질의 계발에 기꺼이 응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칸트의 논리로는 그 동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마치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파멸적인 비목적론적 역사 이행의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자기희생적으로 추상적인 목적론적 역사관에 귀의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 칸트는 인간 자유의 오용을 염려하여 인간이 지배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라고 보았다.[184] 인류 내부에서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개별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를 포기하고 보편타당한 의지에 복종하게 하여 전체적인 자유를 강요하는 것이다.[185] 이때 칸트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스스로 정의로운 공적인 정의의 지배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시민 사회의 건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에 의해 가장 나중에 해결될 문제이다.”[186]라고 말하며 제 주장의 실현 가능 방안을 잠시 미뤄두고 논의에서 빠져나왔다.

이에 본고는 자극과 반응, 대응의 개념이라는 외적 동기화의 개념으로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만족스러운 보상과 같은 강화물이 제공되었을 때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빈도 감소를 위해 혐오 자극을 제거하고, 같은 목적으로 좋아하는 자극을 배제하여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187]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행동 발현의 유무를 결정하는 동기화로까지 환원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경험과 연습의 결과로써 영속적인 행동, 동기, 잠

183) I. Kant. 이한구 편역,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p.78.
184)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32.
185)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33.
186) I. Kant. 이한구 편역, 위의 책, p.33.
187) 신명희 외, 『교육심리학』, 학지사, 2018, pp.218-220.

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곧 자연의 의도에 따른 행동과 행동 발현의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반사회적 사회성과 사회화적 경향의 동기로서 연결이 가능하다. 각각의 본성에 대한 강화와 벌로써 개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 강화 계획으로 훈련된 지배자의 양성도 가능함을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화와 벌을 이용하여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적용해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188] 이러한 점에서 지배자는 인간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외부 경험, 환경과 자극과 대응으로 융합된 산물이다.

혹자는 본고가 이 문단에서 차용한 S-R, R-S형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아이디어를 구식 이론이라 비판할지도 모른다. 다만 본고는 고전적인 행동주의 이론만을 신봉하여 칸트의 논지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이론이 본론 1절에서 밝힌 사회 학습 이론(사회 인지 이론)의 모체가 된다는 점을 잠시 짚어보자.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 행동과 학습에 대한 설명에 있어 여전히 근원적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가 해당 이론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또한 칸트의 의도로부터 대립 구도를 설정함에 '외부'의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이론적 배경은 행동주의 이론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라는 점을 밝힌다.

3. 조형과 천부적 지식

칸트는, 제3명제에서 자연이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내는 것을 의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명제 제시 다음 후술되는 문장에서 "인간은 본능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 되며 천부의 지식에 의해 돌보아지거나 교육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천부의 지식'은 칸트가 자연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을 확정하는 존재이다. 바로 본능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칸트가 이것들에 의해 '돌보아지거나 교육받아서도 안 된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본능은 앞선 내용에서 동물적인 것이라 바라보았을지라도 천부의 지식의 경우 탄생과 함께 주어진 것이기에 인간 그 자체의 것이라 보지는 않았던 듯하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인간은 오히려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야[189]"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본고는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인간 능력은 외부로부터 주입 가능한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준다는 조형의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인간은 외부의 타자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외부 환경에 맞추어 조절함으로써 학습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수행한 행동의 결과로서의 강화와 벌을 관찰하며 다음 행동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경험적 교훈과 누적치는 명시적인 문장으로 정리되어 '지식'으로 도출된다. 또한 그 누적의 산물은 필연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먼저 만들어진 지식 내지는 행동 강령으로 자리매김 한 후 접근된다. 그리고 어린 인간은 사전적인 지식들에 필연적으로 돌보아지거나 교육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거부한 칸트는 자연적 의도의 훼손을 염려하였을 것 같다. 하지만 형이상학의 세계를 넘어 실천적, 형이하학적 세계로 그 이념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면 '외부', '천부'성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188) 신명희 외, 앞의 책, p.226.
189) I. Kant. 이한구 편역, 앞의 책, p.27.

Ⅲ. 결론

본고는 반사회적인 사회성의 활용과 인간 이성의 계발을 중심으로 한 칸트의 목적론적, 계몽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의 완전한 계몽에 있어 유 속의 개별 인간은 주입된 이성의 학습과 집단적 기억의 실행으로부터 기본 단위로 기능한다. 인류에게 온전한 '내적 계몽'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계몽의 구성물은 외적 상호작용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둘째, 강화와 벌을 이용한 외적 동기화는 역사의 진보에 필수적인 인간 본성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행동주의'라는 심리학적 사조의 이론과 해당 이론 자체의 한계에 몰입하기보다 여전히 인간의 학습을 설명함에 근원적 존재감을 발휘하는 '외부'의 영향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조형의 개념으로 상정될 외부로부터의 배움은 누적적으로 지식의 형태로 정리되고 교육되며, 이는 실제 실행을 고려하였을 때 필연적인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논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칸트의 논지에 관하여 '내적 발현'만이 아닌 '외적 개입'의 대안적 서술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권재선,「자기 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도덕 교육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신명희 외,『교육심리학』, 학지사, 2018.
E.H.카, 김택현 옮김,『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I. Kant. 이한구 편역,『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장려상

경제와사회 명작세미나

소비와 규율의 역학관계

: ‘감시와 처벌’을 통해 살펴본 프로야구단의 팬덤과 스포츠 마케팅

사히과학대학 사회.언론정보학부 이예린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응원이라는 자발적 순종
2) 지불 능력의 서열화
3) 소비의 규범

Ⅲ. 맺으며

Ⅰ. 들어가며

한국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수백 명의 관중은 응원가에 구호를 외치고 안무를 하며 야구 문화를 향유한다. 외국인에게는 이질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사람들은 그저 경기를 관람할 뿐만 아니라 야구단이나 야구선수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비하는 의지에 의한 활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야구 문화는 마케팅 전략과 함께 소비를 욕망하게 하며 발전해왔으며 일상과 무의식에 침잠하여 소비를 유도하기도 한다. 금액이 높은 좌석일수록 야구 관람의 시야가 넓어지고 표를 많이 구매할수록 구단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스포츠 응원문화와 마케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야구 문화를 더 많이 더 자주 소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셸 푸코가 말하는 감옥 내 수감자들이 감옥의 규율을 내면화하여 행동하게 되는 과정과 닮아있다. 푸코가 말하는 규율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시키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하고 규율에 적응시킨다. 야구 문화의 소비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영향을 받아 창조되고 유지되며 경제화된다는 점에서 감옥 및 규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응원문화를 분석하는 데 푸코의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스포츠 마케팅으로 큰 성공을 이룬 SSG 랜더스의 사례에 주목해볼 수 있었다. SSG 랜더스는 야구 구단의 굿즈, 협업 상품 등 일상의 영역에서도 야구 문화를 소비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구단으로 감옥과 규율의 기제를 설명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와 야구 마케팅의 효과를 다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스포츠 응원 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응원이라는 '자발적 순종'

야구를 소비하게 되는 과정은 여러 다양한 경로를 거치지만, 응원문화의 경험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육성 응원이 금지된 2022년 4월 21일까지 KBO리그 평균관중은 6,615명이었으나 육성 응원이 가능해진 2022년 4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는 평균관중이 9,222명으로 늘었다. 육성 응원 허용 전후로 28.3%의 관중이 증가한 것이다.[190] 코로나 이전의 평균관중 수는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야구 생태계에 미치는 응원문화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응원문화, 특히

190) 김양희, "[김양희 기자의 맛있는 야구]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팬에게로". 한겨레, 2022.06.10., https://www.hani.co.kr/arti/sports/baseball/1046496.html

육성 응원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구단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데 가장 출발점이 되는 순종적인 신체를 길러낸다고 할 수 있다.[191] 신경아(2014)는 “관람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각 팀의 응원문화가 팀 구단에 대한 충성도를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팬들이 경기 관람을 통해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유형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야구는 공수(攻守)를 교대하며 이루어지는 스포츠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타석을 차지할 때 즉 공격의 역할을 할 때 응원이 시작된다. 관중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관중석 가운데에서 응원 단장은 마치 사람들을 교련하듯이 응원을 이끈다. 그의 지도에 따라 사람들은 한목소리가 되어 소리 내고,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 많은 야구팬은 이 과정을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로 인식하는 걸로 보인다. 이는 푸코(1994 : 277)가 말하듯 규율의 전술이 한 개인을 개인으로 특징지으면서 동시에, 어떤 일정한 다수에 질서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개체 중심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을 휘젓고, 박수를 치고, 오른쪽 팔을 돌렸다가 왼쪽 팔을 돌리는 등의 단순한 동작들이 연결되어 선수의 등장을 환영하고 타격을 소망하는 의미가 된다. 중독성 있는 문구와 동작들은 단 몇 번만 따라 해도 익숙해져서 노래가 들리기만 해도 몸이 톱니바퀴처럼 절로 움직이게 된다. 예컨대, SSG 랜더스의 대표적인 팀응원가 ‘승리의 깃발’에서는 “WE ARE LANDERS 날아올라라 승리하리라” 와 같은 가사가 반복된다. 쉽고 운율을 맞춘 가사는 마치 337박수와 같이 자동반사적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복종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푸코 1994 : 289).

특히 야구 구단들은 각 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에 맞추어 응원 구호와 응원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재방문을 희망하는 야구팬은 다른 팬들과 함께 응원을 잘하기 위해 영상을 보고 연습하기도 한다. 푸코(1994 : 309-312)의 관점을 빌리자면, 이는 신체를 배치하고 그로부터 규범화한 활동과 숙달된 능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야구의 응원 문화는 하나의 기계 장치의 주도면밀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끝없이 발전되는 훈련 방법에 의해 그리고 의지가 아닌 자동적인 순종에 의해 발전했을 것이다.

2) 지불 능력의 서열화

육성 응원의 수행 정도를 구분해서 처벌하지는 않지만, 야구 경기 좌석이나 구단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야구팬의 가치를 측정해볼 수 있다. 바로 프로야구 구단들의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다. SSG 랜더스의 2022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가입비와 선착순에

191) 푸코(1994 : 256)는 순종의 개념을 통해 복종, 이용, 변화시키며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를 ‘순종적인 신체’라고 칭했다. 나아가 서열과 상벌제도 등을 기반으로 한 훈련과 반복을 통해 사람들이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 등급을 정한다. 등급에 따라 예매 오픈 시점과 티켓 할인율, 예매 수수료, SSG 계열사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사진1 참고) 이러한 멤버십 외에도 선수들과 가까운 관중석의 앞쪽 구역 또는 치어리더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구역은 좌석의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이러한 등급제와 좌석은 지불 정도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푸코(1994:270-271)가 설명하는 서열이 나누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신체가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순환하게 하여 위치 결정에 따라 개별화되어, 기본단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서열은 규율의 공간 배치에 의한 개별적 신체의 일목요연한 파악을 통해 가능해지는데, 야구에서도 관중의 계열화가 가능해진다. 가령 야구 경기 쉬는 시간에 하는 이벤트에서 관중은 이름 대신 좌석 번호로 명명되는 식이다. 물론 야구 경기를 많이 관람할수록 구단 충성도가 높을수록 응원하는 신체의 능력이 탁월해져 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의 개입은 서열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 지으며 나아가 규격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멤버십과 좋은 좌석의 혜택은 그 값을 지불한 보상의 대가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지불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이다.

푸코(1994:341)는 규격화를 신분이나 특권, 소속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분류화, 서열화, 지위 배분 등의 역할을 하는 규격성의 여러 등급으로 이루어진 작용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규격화를 추진하는 권력이 동질성을 강제하면서도 편차를 측정하고 수준을 정하며, 특성을 규정하고, 상이점을 서로 조정하여 유익한 것으로 만들게 하여 결국 개별화를 지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권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야구 구단이 야구팬의 소비 및 등급과 혜택 사이에 양의 상관성을 부여하는 일은 동질성을 강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야구팬들은 경쟁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쟁취하기 위해 기꺼이 소비하며 등급을 흡족해함으로써 개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푸코(1994:342-346)가 말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을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의 결합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야구 구단이라는 권력에 복종하는 야구팬들은 의무적 가시성의 원칙을 부과받아 객체화된 자신의 좌석에서 평가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은 가시성의 경제를 역전한 채 힘의 원리를 발견한다. 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이는 멤버십 등급제와 좌석을 소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의 질서는 감시에 의해 유지된다. 감시의 눈길은 도처에 있다(푸코, 1994:360). 판옵티콘 구조는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무대를 관중석이 둘러싸고 있는 야구장의 구조와 유사하다. 감옥에서 감시인이 죄수들을 실제로 감시하지 않지만, 죄수들이 감시받고 있는 사실을 내면화하여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야구장에서도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관중석에서의 응원 구호와 동작을 응원의 대상인 야구선수가 실제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관중은 선수가 본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또는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응원한다. 또한, 우리는 종종 야구장의 전광판에 비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광

경을 목격하곤 한다. 이는 카메라가 언제 어디서 나의 모습을 포착할지 모르지만, 전광판에 송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를 찾고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소비의 규범

한국 프로 야구 관중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망 역시 밝다. 야구 관람은 팀 충성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과에는 프로야구팀의 스포츠 마케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경아(2014)는 프로야구 팀 충성도의 행동적 효과를 탐구하면서, 행동적 측면에서 충성도의 구성 요인을 입장권 구매, 스포츠 관련 상품 구매 등의 행동 반복이라고 보면서,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야구팀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과 재방문 의향이 높게 나타남과 더불어 팀 충성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형성됨을 밝혔다. 이는 야구장 내에서 발생한 팀에 대한 충성의 규율이 마케팅 전략과 함께 반복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SG 랜더스의 모기업인 신세계 그룹은 유통과 야구를 결합한 마케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마트24에서는 구단의 선수가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된 도시락을 판매하고, 노브랜드버거에서는 야구공을 연상시키는 '베이스볼 버거'를 한정판 메뉴로 선보였다.[192] 노브랜드 버거 외에 스타벅스 코리아도 SSG랜더스 연계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193] 관람객 대상 이벤트 등을 통해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야구단 유니폼(랜더스벅 유니폼)이 완판된 것이다. 이러한 유니폼뿐만 아니라 식음료와 같이 야구단의 이름 즉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은 구단의 활약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다. 관람과 응원 문화 등을 통해 충성도가 높아지고 굿즈를 소비하는 행동의 반복이 재관람을 하게 하는 순환의 구조를 이룬다.

이는 푸코(1994:542-545)가 수감자에 대한 감옥의 내면화를 설명하는 부분과 궤를 함께 한다. 감옥이 그 조직망에는 외부가 없고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처럼 야구의 소비문화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신세계 그룹의 야구단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계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는 범죄자가 제도의 산물로 어느새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본주의 속에서 '범죄자 성격'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케팅에 포획된 소비자들은 굿즈를 소비함으로써 야구 구단의 권력을 아래에서 보증하고 있다. 나아가 야구 경기를 지속해서 관람하며 팀에 대한 충성도를 계속 높이면서 기술적 규율의 권력을 합법화한다. 감옥 체계처럼 야구 구단의 마케팅 역시 사람들의 축적과 유익한 관리의 문제로 권력의 경제학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이다.

192) 김금영, "[스포츠 마케팅①] 대중 스포츠 '야구'로 한판 승부 이어가는 신세계 vs 롯데", 2022.11.30., 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47054
193) 최아영, ""스벅 효과 엄청나네"…`랜더스벅` 5분만에 동났다", 2022.06.21.,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57293

Ⅲ. 맺으며

본 보고서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속 감옥 발생의 원리를 야구 팬덤 문화에 적용하여 스포츠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응원단의 안내에 맞추어 신체를 질서 있게 획일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관람석의 시야와 멤버십 제도는 지불 능력에 따른 혜택에 차이를 두어 서열의 규격화를 가능하게 하고 평가와 감시에 힘입어 정당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케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야구 구단의 브랜드를 소비하며 야구 문화의 소비가 내면화되고 권력이 공고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이 굿즈 구입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다시 야구 티켓을 예매하고 팀에 충성하며 또다시 굿즈 구입으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에는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마케팅으로 팬덤이라는 집단의식이 창조되고 집단과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소비심리가 부추겨지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마케팅이라는 권력의 전술을 인식하고 그 꾀임에 꼬여 소비할지라도 소비는 개인에게 행복감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겨냥하는 ‘주체적인 소비’라고 불리는 행동이 가져다주는 안일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94]

194) 담당교수 김승연 교수님의 조언과 교정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미셸 푸코, 1994[1975],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사.
- 신경아, 황세희, 한미정. (2014). 프로야구 팀 충성도의 행동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 (101), 31-61.

[사진 17] SSG 랜더스 멤버십 제도
(사진 출처 - SSG 랜더스 홈페이지,
http://www.ssglanders.com/main)

DHARMA COLLEGE
2022학년 다르마칼리지 제10회 에세이 경진대회

장려상

자연과기술 명작세미나

기후변화의 진실 혹은 거짓

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정지영

---

1. 서론

2. 기후변화 회의론자의 세 유형과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반박

3. 두 번째 유형의 기후변화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

4. 세 번째 유형의 기후변화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

5. 결론

1. 서론

요즘 세계 각국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 대책, 친환경 제품 사용, 비닐이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의 스타벅스에서는 2018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에 동참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12월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구온난화는 인정하되 그 원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만, 기후위기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책('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있을 정도로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책을 통해 우리 인류가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며, 최근의 기후 소식이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이 이러한 '기후변화 회의론'을 경계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믿을만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 봐야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보면 사실이 아닌, 그저 그럴듯한 근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가 일으킨 환경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덜고 안일함을 갖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에세이에서는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여 이에 반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명백히 인간에 있음을 밝히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2. 기후변화 회의론자의 세 유형과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반박

『과학은 반역이다』의 1부 5장 <생물권은 중요하다>에서 프리먼 다이슨은 지구온난화는 일부 지역의 지역적인 온난화일 뿐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구 전체의 변화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195]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이슨 외에도 실제로 기후변화 회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며 지구 온난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던 사례가 있다.[196] 또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셸런버거도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지구를 망친다고 말하며[197] 환경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다이슨, 트럼프, 셸런버거 이 세 사람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는 인정하되 그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 번째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구

195) 프리먼 다이슨, 과학은 반역이다, 반니, 2006, 88쪽.
196) 홍석윤, 「트럼프, 결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식선언」,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090
197) 마이클 셸런버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부키, 2021.

온난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위험성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이다.[198] 트럼프는 지구가 더워지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첫 번째 입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이슨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것이 인간 활동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두 번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셸런버거는 지구온난화는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세 번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입장 중에서도 지구가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워진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지구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입장의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논할 가치가 있는 주장은 무엇일까?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는 항상 더위와 추위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더워지는 기간에 존재할 뿐 이를 영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880년도부터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직접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분명히 상승 경향을 띠고 있으며 지난 100만년 동안 가장 빠른 상승폭이 1000년에 1℃ 상승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150년 만에 1.1℃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구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199] 즉,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3. 두 번째 유형의 기후변화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

이렇듯 지구온난화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다음으로는 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입장의 사람들은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인간 때문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러한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이라기 보단 자연발생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물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에는 자연발생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실제로 해양과 토양, 여러 생물들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자연으로 흡수되는 순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인간이 화석연료의 연소 등으로 짧은 시간동안 대량으로 방출한 이산화탄소는 자연의 순환 사이클에 의해 자연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오래 머물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200]

또한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속도는 지구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빙하 코어에서 복원한 과거 1만 년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200년도 안 되는 구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치솟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산화탄소 공급원이 지구에 새롭게 등장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한다.[201]

위의 두 가지 근거만으로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바닷속 산호의 탄소 동위원소

198) 지구온난화 허구설,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80%EA%B5%AC%20%EC%98%A8%EB%82%9C%ED%99%94%20%ED%97%88%EA%B5%AC%EC%84%A4
199) 모집 라티프, 핫타임, 씨마스21, 2022, 153쪽.
200) 위의 책. 73쪽.
201) 김백민,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블랙피쉬, 2021, 137쪽.

분석 결과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은 후 이를 산호가 다시 흡수한 것을 분석하면 과거 대기의 ^{13}C와 ^{12}C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그래프에서 ^{13}C의 비율이 196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임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202] 왜냐하면 대기가 화석연료에서 기원한 탄소를 많이 포함할수록 그 공기는 ^{13}C의 비율이 낮아지고 ^{12}C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식물은 ^{13}C보다 ^{12}C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고 식물이 죽은 이후에도 체내에 축적된 ^{12}C가 그대로 보존되므로, 이 죽은 식물체에서 유래된 화석연료를 태우면 태울수록 대기 중 ^{13}C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2007년에 발표된 IPCC의 제4차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할 가능성이 90~99%로,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일으킨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가장 최근 2021년에 발표된 IPCC 제6차보고서에 제시된 그래프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1850년부터 관측된 전 지구의 평균기온 편차,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요소(화산 및 태양 활동)만을 포함한 기후모델로 예측한 기온 편차, 자연적 요소 외에도 인간의 활동을 기후모델에 포함하여 예측한 기온 편차, 이렇게 3가지 그래프가 나타나있다.[203] 여기서 자연적 요소만을 포함한 그래프는 전 지구 평균기온 편차 그래프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간 활동을 포함한 그래프는 전 지구 평균기온 편차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세 번째 유형의 기후변화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

다음으로는 세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인 셸런버거를 살펴보자. 그는 극단적인 환경주의와 기후변화의 과장된 위험성을 비판하는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썼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극단적인 환경주의에 반대한다는 자가 '지구를 지키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가 자연을 파괴한다', '기후 소식은 생각보다 훨씬 좋다'처럼 누구보다도 극단적인 표현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면이 있다. 또한 수많은 참고문헌으로 여러 가지 정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체리 피킹, 그리고 과학적 오류들이 넘쳐난다.[204] 그는 기후위기의 과장된 위험성을 비판한다면서 특정 사실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셸런버거는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한다'와 같은 허수아비 주장을 세운 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산불은 기온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한다.[205] 하지만 기후과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사태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원인'과 '영향'을 철저히 구분한다.[206] 셸런버거는 그의 책 전반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곡해하여 왜곡된 주장

202) 위의 책, 138쪽.
203) 박란희, 「IPCC 보고서, 4가지를 주목하라」, IMPACT ON(임팩트온),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5
204) Peter Gleick, 「Book review: Bad science and bad arguments abound in 'Apocalypse Never' by Michael Shellenberger」, 2020.
205) 마이클 셸런버거, 앞의 책, 67쪽.

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을 취한다.

또 셸런버거는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만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플라스틱 탓은 이제 그만하자', '플라스틱은 진보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이 환경에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폴리스티렌 샘플을 마련해 바닷물에 넣고 태양광과 유사한 인공조명에 노출시키는 실험에서 햇빛이 폴리스티렌을 유기탄소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207] 즉, 어차피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모두 분해되어 사라지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이 빛에 의해 분해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양보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남는 양이 훨씬 많다. 또한 이 연구의 저자인 콜린워드는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이지 수십 년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여전하다고 강조하였는데[208]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나 에코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제품이 생산될 때 발생하는 탄소와 에너지 소비량이 비닐봉투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말한다.[209] 하지만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만을 고려하고,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될 때의 비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종이는 생분해가 가능해 폐기물 발생량이 더 적다는 사실이나 에코백은 한번 만들어지면 버려지지 않고 다회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셸런버거는 '자연은 회복하고 인간은 적응한다'고 말했다.[210] 이처럼 기후변화 회의론자의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과거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때에도 생물들이 지금보다 더 번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룡이 살던 중생대에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높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훨씬 높았다. 하지만 공룡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이 이러한 환경에서도 번창했으니 인간도 변화한 환경에서 그럭저럭 적응하여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오늘날의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남은 생물들이 갑자기 중생대의 환경에서 살 수는 없다. 중생대의 따뜻한 기후에 번창했던 공룡들도 소행성 충돌 이후의 차가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다. 이렇게 지구가 차가운 기후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닌 수천 년이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지구는 단 수십 년 만에 큰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5. 결론

지금까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 이에 반박하였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한 근거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과학적 사실의 일부만을 드러내며 현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구온난화(기후변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206) Peter Gleick, 앞의 논문.
207) 마이클 셸런버거, 앞의 책, 126쪽.
208) 김만기, 「영원할 것만 같던 플라스틱, 햇빛 받으면 수십년만에 분해된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10102222357721
209) 마이클 셸런버거, 앞의 책, 140쪽.
210) 마이클 셸런버거, 앞의 책, 36쪽.

이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임이 분명하고 그 위험성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매일같이 곳곳에서 이상기후 소식이 들려오고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각종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간 탓이라는 죄책감과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귀찮음에 셸런버거와 같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러한 시각을 경계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루 빨리 실천해나가야 할 때이다.

IPCC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 상승하면 Tipping point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 가서 탄소 배출을 멈춘다하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저절로 진행되어 지구는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1℃나 상승한 심각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구온난화가 인간 탓이 아니며 그리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참고문헌

1. 김만기, 「영원할 것만 같던 플라스틱, 햇빛 받으면 수십년만에 분해된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10102222357721
2. 김백민,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블랙피쉬, 2021
3. 마이클 셸런버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부키, 2021
4. 모집 라티프, 핫타임, 씨마스21, 2022
5. 박란희, 「IPCC 보고서, 4가지를 주목하라」, IMPACT ON(임팩트온),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5
6. 프리먼 다이슨, 과학은 반역이다, 반니, 2006
7. Peter Gleick, 「Book review: Bad science and bad arguments abound in 'Apocalypse Never' by Michael Shellenberger」, 2020
8. 홍석윤, 「트럼프, 결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식선언」,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090